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

2015. 08.

저자

책임연구원 이 재 훈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별연구원 ▶ 알제리:

박 영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다 연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튀니지: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Maher Gassab Université Hassan, 1^{er}

▶ 모로코: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Driss Baakil L'école supérieur de commerce

▶ 세네갈: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 건 진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 민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코트디부아르: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은 샘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연구보조원 이 윤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신 혜 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서 문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획하고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수행한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즉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를 대상으로 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겪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정세불안이 지속되며 경기침체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식수 부족문제와 더불어 에볼라 등의 보건 문제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여러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한국의 비중점 협력국으로서 체계적인 협력이 미약했던 바, 향후 협력증대 및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환경 분석 및 구체적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KOICA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불어권 5개국을 대상으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KDS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기본적인 전략들을 수립하는데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협력틀을 바탕으로 대상국의 「니즈」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파악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상기의 협력틀과 실행방안 수립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개발협력 흐름과의 일치 여부와 더불어, 국제사회 여러 지원 기관과의 구체적 공조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별로 일반현황 및 개발환경 조사를 통해 개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가개발전략 및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여 해당 정부가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형태별·분야별·규모별로 분석하고 주체별로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KOICA를 비롯한 한국 지원 기관들의 협력현황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협력 기본 목표와 함께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과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진은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 방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며 실제적인 현지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수요와 공여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정량적 분석 방법과 정책적 타당성,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KOICA의 지원경험,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중점지원 분야를 모색하되, 수원국의 실질적인 「니즈」와 KOICA의 공급능력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채용한 첫 연구 사례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연구위원, 안동대 박찬용 교수, KDS 전홍민 연구위원 등 주 연구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황재상 KOICA 서아프리카팀장과 라갑채 과장, 송은의 과장, 김정민 대리, 이규홍 대리, 이지현 대리 등 서아프리카팀원을 비롯하여, 정회진 모로코 사무소장, 김상철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 송기정 세네갈 사무소장, 서호진 알제리 사무소장, 윤지현 튀니지 사무소장 등 KOICA 현지 사무소장과 사무소 직원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S 최다연, 이은샘, 김민주, 이윤주, 신혜림 연구원 등 실무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KOICA의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과의 향후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에 있어 생생한 정보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양국간 협력효과가 주변 국가들의 국가발전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5년 8월
연구책임자 이재훈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7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
제2장 알제리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13
제1절 일반현황	15
1. 개요	15
2. 정치 현황	17
3. 경제 현황	19
4. 사회·문화 현황	26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30
1. 개발환경	30
2. 분야별 개발과제	56
제3절 국가개발정책	81
1. 국가개발전략(NDS)	81
2. 분야별 전략	83
제3장 국제사회의 알제리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93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95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95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101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116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125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128
1. 한-알제리 협력현황	128
2. KOICA의 지원현황	129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135

제4장 KOICA의 알제리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141
제1절 기본방향	143
1. 산업화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144
2.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155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159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159
2. 분석 결과	168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173
1. 산업에너지	173
2. 농업	181
3. 인프라	184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191
제5장 결론	195
참고문헌	201
부록	209

표 목차

〈표 2-1〉 알제리 개황	16
〈표 2-2〉 알제리 정치 개황	17
〈표 2-4〉 알제리 경상수지	21
〈표 2-5〉 알제리 수출 현황	22
〈표 2-6〉 알제리 수입 현황	23
〈표 2-7〉 알제리의 산업별 GDP 비중 비교	25
〈표 2-8〉 알제리의 산업별 노동인구 분포도	28
〈표 2-9〉 알제리 MDG 달성 현황	30
〈표 2-10〉 알제리 및 역내 국가평균 인간개발지수(HDI)	32
〈표 2-11〉 알제리의 UNESCO 교육 지표	33
〈표 2-12〉 알제리 공공 보건·의료시설 현황	34
〈표 2-13〉 아랍 주요국가의 GII 지수 비교	36
〈표 2-14〉 알제리의 정치 상황	40
〈표 2-15〉 알제리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특징	43
〈표 2-16〉 마그레브 3국간의 투자환경 비교	47
〈표 2-17〉 알제리의 경제자유지수	52
〈표 2-18〉 알제리의 외환보유고 및 외채 규모	56
〈표 2-19〉 MENA 지역 내 국가 간 중소기업 집적도 및 고용률 비교	61
〈표 2-20〉 알제리의 물류 성과 지수(2014)	66
〈표 2-21〉 알제리 철도인프라 현황	68
〈표 2-22〉 북아프리카 항만인프라 환경 비교	69
〈표 2-23〉 북아프리카 국가 간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 정도 비교	71
〈표 2-24〉 알제리 농산물 교역 현황	74
〈표 2-25〉 알제리의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76
〈표 2-26〉 알제리의 주요 작목별 생산 현황 및 기술적 장애요인	76
〈표 2-27〉 알제리의 토지 활용 현황	78
〈표 2-28〉 알제리 생물기후권역 분류에 따른 강수 면적	78
〈표 2-29〉 알제리의 2015-2019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	82
〈표 2-30〉 알제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85

〈표 2-31〉 알제리의 외국인투자법	86
〈표 2-32〉 알제리의 2015-2019년 5개년 개발계획을 위한 농업분야 액션플랜	90
〈표 3-1〉 북아프리카의 국가별 ODA수원 현황	96
〈표 3-2〉 ODA 공여주체별 알제리 지원 현황	97
〈표 3-3〉 공여주체별 對 알제리 지원형태 비교	98
〈표 3-4〉 對 알제리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100
〈표 3-5〉 프랑스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101
〈표 3-6〉 프랑스의 對 알제리 제 1, 2차 원조계획	102
〈표 3-7〉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1)	103
〈표 3-8〉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2)	104
〈표 3-9〉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3)	104
〈표 3-10〉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4)	105
〈표 3-11〉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5)	106
〈표 3-12〉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6)	106
〈표 3-13〉 프랑스 Proparco의 알제리 지원 사례	106
〈표 3-14〉 독일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107
〈표 3-15〉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1)	108
〈표 3-16〉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2)	109
〈표 3-17〉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3)	109
〈표 3-18〉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4)	109
〈표 3-19〉 독일의 환경 분야 지역협력 프로그램	110
〈표 3-20〉 벨기에의 對알제리 ODA 지원 규모	111
〈표 3-21〉 벨기에의 알제리 지원 사례(1)	112
〈표 3-22〉 벨기에의 알제리 지원 사례(2)	112
〈표 3-23〉 미국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113
〈표 3-24〉 스페인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115
〈표 3-25〉 스페인의 알제리 지원 사례(1)	115
〈표 3-26〉 스페인의 알제리 지원 사례(2)	116
〈표 3-27〉 스페인의 알제리 지원 사례(3)	116
〈표 3-28〉 EU의 MENA 지역내 ODA 지원 현황	117

〈표 3-29〉 EU의 對 알제리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NIP) 분야별 지원 규모	118
〈표 3-30〉 EU의 對 알제리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119
〈표 3-31〉 EU의 알제리 지원 사례(1)	121
〈표 3-32〉 EU의 알제리 지원 사례(2)	122
〈표 3-33〉 AfDB의 對 알제리 프로젝트(2007-2014)	124
〈표 3-34〉 국제사회의 對 알제리 지원 내용 비교	127
〈표 3-35〉 한국과 알제리의 관계	128
〈표 3-36〉 KOICA의 對 알제리 연도별 지원 규모	131
〈표 3-37〉 KOICA의 對 알제리 초청연수 지원 규모	131
〈표 3-38〉 KOICA의 對 알제리 무상원조 사업형태별 추진실적	132
〈표 3-39〉 한-알제리 경협 T/F 회의 일정 및 주요 내용	136
〈표 3-40〉 한-알제리 분과별 유망 협력 분야	138
〈표 3-41〉 한-알제리 주요협정	138
〈표 3-42〉 한-알제리 경협 T/F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139
〈표 3-43〉 한국 부처 및 기관별 대 알제리 지원 사업	139
〈표 4-1〉 세계 주요국의 셰일가스 부존량 비교	145
〈표 4-2〉 알제리의 산업 다각화 방향과 정책	148
〈표 4-3〉 한국의 발전경험 ‘소프트 파워’	157
〈표 4-4〉 분야별 지표선정 근거 및 데이터 출처	161
〈표 4-5〉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162
〈표 4-6〉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162
〈표 4-7〉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165
〈표 4-8〉 분석 지표 및 가중치	167
〈표 4-9〉 정량분석 결과	168
〈표 4-10〉 정성분석 결과	170
〈표 4-11〉 종합분석 결과	171
〈표 4-12〉 알제리 석유화학산업의 강점과 약점	176
〈표 4-13〉 알제리 인프라 SWOT 분석	187
〈표 4-14〉 알제리 교통인프라 분야 기술협력 수요(예시)	188

그림 목차

[그림 2-1]	알제리 지도	15
[그림 2-2]	북아프리카 국가별 FDI 유입 추세	24
[그림 2-3]	알제리의 인구구조	26
[그림 2-4]	알제리의 성별 및 연령별 실업률	27
[그림 2-5]	알제리의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경제 전체 기준)	29
[그림 2-6]	알제리의 성장 곡선(Growth Incidence Curve)(2000-2011)	29
[그림 2-7]	알제리 최근 암 발생 추이	34
[그림 2-8]	알제리의 교육 수준별 졸업자(2006-2010) 취업 현황(2011)	36
[그림 2-9]	알제리의 인터넷 보급률	39
[그림 2-10]	아프리카 마그레브 및 사헬지역: 새로운 테러분쟁 지역	41
[그림 2-11]	9.11 사태 이후 마그레브 및 사헬지역의 테러 발생 건수	41
[그림 2-12]	알제리의 공공투자와 국제 유가	44
[그림 2-13]	알제리의 경상수지 및 석유 수출	45
[그림 2-14]	알제리의 외환보유고 및 정부 부채 전망	45
[그림 2-15]	알제리의 사업 환경 및 FDI 유입	46
[그림 2-16]	알제리 기업의 혁신능력	48
[그림 2-17]	알제리의 주식시장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49
[그림 2-18]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	54
[그림 2-19]	국제유가 전망 및 석유·가스의 정부재정수입 기여도	55
[그림 2-20]	알제리의 석유생산 전망	56
[그림 2-21]	알제리 산업분야별 실질 경제성장률 비교 및 GDP 비중	58
[그림 2-22]	알제리 산업성장률 변동 추이	59
[그림 2-23]	알제리의 제조업 상품별 생산 비중	60
[그림 2-24]	알제리의 전체 신용대출 대비 민간부문 신용대출 비중	62
[그림 2-25]	아프리카 국가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순유입 기준)	64
[그림 2-26]	알제리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현황	67
[그림 2-27]	알제리 고등교육 시스템	72
[그림 2-28]	알제리 대학 전공별 학생 등록률	73
[그림 2-29]	세계 곡물가격 동향 및 알제리의 주요 곡물 수입량 변동 추이	75

[그림 2-30]	MENA지역과 알제리 간 국정 관리지수 비교	79
[그림 2-31]	알제리의 2005-2025 철도망 개발 사업	88
[그림 3-1]	알제리의 ODA 수원 추이	95
[그림 3-2]	對 알제리 ODA 분야별 지원 현황	98
[그림 3-3]	AfDB의 對 알제리 차관 지원 분야(2014)	123
[그림 3-4]	KOICA의 對 알제리 분야별 지원 현황	132
[그림 4-1]	알제리 경제의 산업 다각화 정도	147
[그림 4-2]	알제리 경제의 수출 다각화 정도	148
[그림 4-3]	한국의 경제발전(국민소득 변화)	151
[그림 4-4]	산업발전의 기본 전제조건	152
[그림 4-5]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상 알제리의 산업발전 방향	153
[그림 4-6]	한국의 對 알제리 ODA 기본 목표	156
[그림 4-7]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160
[그림 4-8]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164
[그림 4-9]	알제리의 분야별 경쟁력 수준 비교	172
[그림 4-10]	알제리의 민간부문 비중	179
[그림 4-11]	유럽-지중해 지역 경제권 실업률	180
[그림 4-12]	MENA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시장의 기대수익과 위험 포지션	185
[그림 4-13]	북아프리카 3개국의 인프라 발전 정도 비교	187
[그림 4-14]	알제리 인프라 건설시장의 공종별 시장세분화(Segmentation)	190
[그림 4-15]	한국의 對 알제리 개발협력 프레임워크	191

글상자 목차

[글상자 2-1] 알제리 투자에 대한 10가지 진실	50
[글상자 2-2] 알제리의 사회·문화적 특징	51
[글상자 3-1] EU의 알제리 대상 CPS(2007-2013)	117
[글상자 3-2] KOICA의 對 알제리 지원 목표 및 방향(2013-2014) ----	130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163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163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168
[글상자 4-4] 생태산업단지 개요	177
[글상자 4-5] KOICA의 알제리 씨감자 사업 성공 사례	183

주요약어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프랑스 개발협력청)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
CEFEB	Université'entreprise du groupe de l'AfD (프랑스 개발협력청(AfD) 산하의 기업육성대학)
CNI	Conseil National de l'Investissement(알제리 국가투자위원회)
DCP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개발원조 국가전략)
DGDC	Belgian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벨기에 개발협력국)
EDI	EFA Development Index(교육개발지수)
EFA	Education For All(만인교육)
ESMRE	Higher School of Water Management(프랑스 수자원관리학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
FFEM	Le Fonds Français pour l'Environnement Mondial(프랑스 환경기금)
FIS	Islamic Salvation Front(이슬람 구국전선)
GII	Gender Inequality Index(성평등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물류 성과 지수)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 개발목표)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중동·아프리카)
MESRS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알제리 고등교육연구부)
PCPA	Programme Concertépluri-acteurs(프랑스 다자간 운영위원회)
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민간부문개발)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PRAR	Politique de Renouveau Agricole et Rural(알제리 농업농촌개발정책)
SNAT 2050	Schéma National d'Aménagement du Territoir (알제리 국토종합계획 2025)
SNTF	Société Nationale des Transports Ferroviaires(알제리 국영철도회사)
WGI	World Governance Index(국정관리 지수)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요 약



본 연구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ODA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본 협력방향과 중점분야별 협력방안을 찾고자 했다. 알제리는 우리나라의 ‘비중점 ODA 국가’이지만, 국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개발협력이 지향해야 할 좌표의 설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조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어떤 분야에 원조를 집중할 것인지 즉,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방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알제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낙후성이 저개발 문제와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알제리가 직면해 있는 개발협력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제3장에서는 알제리의 개발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분석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인 알제리 개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알제리 개발협력의 국제적 추세나 다른 공여국의 접근방식은 우리의 알제리 ODA 전략수립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기본목표와 함께 중점협력분야 도출 및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발협력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어 어떤 개발협력 수단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협력수단들은, 우리나라가 빈곤 극복이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나 기술 등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는 주로 ‘공여국적 판단’에 근거하여 인프라 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알제리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알제리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본 연구는 KOICA의 알제리에 대한 개발협력 기본방향으로 산업화 지원을 제시했다. 알제리는 ‘산업화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 물질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신흥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화를 위한 역량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알제리는 자원부국으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자원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알제리가 우리의 ODA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자신들이 실패한 산업화를 한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이다. 2000년대 중반 한-알제리 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산업정책자문, 초청연수사업, 전문가 파견 등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외에도 산업생산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산업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이동을 시도하고 있는 알제리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산업생산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OICA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기술공단, 산업기술 관련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이 알제리의 산업분야 ODA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알제리 산업생산기술 협의체’ 등과 같은 협력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알제리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만큼 남-북 형태의 산업협력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알

제리는 석유 및 가스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기술력이 부족하고, 산업개발의 경험이 일천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알제리 측에서는 산업발전 노하우에 대한 전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점분야별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에너지 분야로 ‘석유화학산업 종합컨설팅’, ‘석유화학산업 기술이전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석유화학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지원’을 들었다. 알제리는 세계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알제리 정부는 석유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석유화학산업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알제리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석유화학산업 단지를 조성한 국가로, 관련 정책 및 제도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알제리 석유화학산업 육성전략 개발에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알제리 석유화학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과 함께 핵심 석유화학 기술개발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추진 방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유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 관련 인력의 개발과 그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수한 한국의 석유화학발전 경험 및 기술력을 알제리에 이전하는 차원에서 한국 내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정부 연구기관은 물론 공기업, 민간 대기업 연구소, 국공립 대학 등을 활용하여 알제리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술 인력, 관리인력,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대상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알제리 정부를 통한 민간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인력수급실태 조사,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직무분석과 역량 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관련 국제자격증 획득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된 엔지니어링 대학원 설립 자문을 통해서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울산 생태산업단지(EIP) 조성 및 운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알제리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분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알제리는 방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농업개발이 부진하여 농산물 소비의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알제리의 농업 발전 정도를 가치사슬 범주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농업 R&D 기반 구축, 기술보급체계 정비,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기반 정비, 농업 관련 제도 정비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공여능력 및 사업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영농기술 이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알제리가 속해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이 풍부한데, 한국 농업은 이들 작물의 재배 및 생산에서 나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에서 우량 씨감자 개발과 보급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알제리 농업기술협력의 출발점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씨감자 이외에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채소의 재배 및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재배 작물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는 단위생산량이 한국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품질이 불량하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알제리에 소재해 있는 KOPIA 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생과용 토마토 재배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향후 토마토를 포함한 시설채소에 대한 소비 증가를 고려하여 기술협력 연구를 생산기술과 관리기술로 나누어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알제리 현지 농업전문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공동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품종 개발 등 연구 착수단계부터 시험의 전 과정에 현지 농업 전문가를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이들을 기술보급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프라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를 제시하였다. 알제리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지식공유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 분야(신규 건설/운영/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발경험 전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건설 기술력 및 노하우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을 방문한 알제리 등 개도국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눈부신 인프라 발전수준에 놀라워하며 기술공유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970년대 초반 정부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그 동안 건설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사업이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중요성과 협력 니즈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개발, 상하수도 건설, 교통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신기술 장려제도, SOC 민자 유치제도,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제도 등 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매우 유익한 건설한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인프라 신규 건설은 물론 운영, 유지보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알제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프라 사업은 중장기 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 등을 통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발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 중인 알제리의 동서 간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인프라는 이미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획된 사업들이다. 물론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개발조사(development studies) 사업에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개발조사 사업을 통해 그 동안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비구속성(untied)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KOICA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교통관련분야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와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발조사사업의 주요 대상 분야로는 발전플랜트, 산업플랜트, 신도시 복합개발, 철도, 고속철도, 신항만 등을 꼽을 수 있다. KOICA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매칭 펀드를 통한 개발

조사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회원국으로부터 신탁기금(trust fund)을 수탁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수단으로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외에도, 알제리의 협력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자원부국이자 중소득권 국가인 알제리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의 원조 공여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협력수요는 자금지원보다는 기술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빈곤퇴치에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수단이나 노력은 상대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기반 자체가 없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최빈국에게는 식량 등 물자지원이 급선무이겠지만, 산업발전 잠재력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갖춘 개도국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알제리가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의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협력이 심화되면 사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시장진출이라는 국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민관협력(PPP) 방식의 협력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무상원조 자금만으로는 알제리와 같은 신흥 개도국과 실질적인 협력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세계 주요 공여국들은 PPP 방식의 개발원조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주도의 개발협력 사업을 민관협력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민간부문의 역량(자금, 기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수원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장점과 함께, 공여국의 입장에서 볼 때 PPP 방식의 개발원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개척, 기업의 이미지 구축 등과 같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을 ODA 사업에 결합하여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율성의 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참여기업의 이미지 구축과 시장개척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의 실행에 앞서 우리나라 ODA 실정에 맞는 PPP 협력방식 개발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systematic approach' f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Algeria, exploring general-level cooperation methods and cooperation for key industry sectors. Though Algeria is not a 'priority partner country' to Korea, the country holds value in term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Algeria is viewed by various industries as a market with strong growth potential. In this context, the limited amount of aid allocated for Algeria puts Korea in a situation to make the right choices to maximize outcom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ncludes quantit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s, expert consultation and field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4 main sections. Chapter 2 presents an overview of Algeria's political and economic state in order to provide basic background information. The overview lays out an in-depth analysis on the direct or indirect links between underdevelopment and difficulties faced by each industry sector. Also, this chapter focuses on Algeria'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gar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actors. Understanding the overall environment of Algeria is the first step in identifying way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Chapter 3 dep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overcome the obstacles in Algeria'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ffers an evaluation and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uch efforts.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investigate ho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s perceive and approach Algeria's development problems. The international trend and the methods employed by donor actors can serve as a reference to Korea's ODA plan for Algeria. Chapter 4, the key point of this study, depicts the goal of Korea's ODA to Algeria along with priority sectors and metho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ach sector as well as the overarching framework of cooperation. Prior to discussing sector-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 measures, this chapter suggests the general objectives in a broad context and describes major cooperation areas, followed by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s which may be considered. All methods of cooper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Algeria,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accumulated experience over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Furthermore, this chapter identifies ways to approach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a broad viewpoint based on previous analyses. Chapter 5 concludes this study putting together the results of previous chapters.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priority sectors of cooperation by using the most objective data possible. While Korea's ODA plans for Algeria have been designed from a donor's perspective, over-prioritizing particular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this study focuses on obtaining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of objectivity by conducting a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supply and demand.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a number of relatively detailed cooperation programs tailored to each key sector. Most previous studies focus on development cooperation needs or on the types of cooperation in certain industries at a general level. In this sense, this study is additionally meaningful as it consider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Algeria. This study was aimed to understand Algeria's development demands and identify useful cooperation methods by forming local consultant groups, conducting field surveys and expert consultations. Such approaches clearly differentiate this study from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uggests supporting industrialization as the basic framework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Algeria. Algeria is in the path to redirect itself toward industrialization as an emerging economy with tangible assets accumulated to a certain level. This calls for the need to focus on developing capabilities related to industrialization. Despite abundant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petroleum and natural gas, Algeria has yet to achieve industrial development. The country has put forth natural resources as the driver for its economy, creating various levels

of deman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 diversifying and developing its industries. What Algeria wishes to gain from Korea's ODA is the secret to success in industrializing Korea as well as its industrial technology. Since the advancement of Korean-Alger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mid-2000s, major sectors of cooperation involved industrial policy consulting, invitational training, and expert dispatches. Korea should now provide industrial manufacturing technologies since it may serve as an effective way for Algeria to develop into a diversified and higher value-added economy. In this respect, KOICA should focus on sharing the experience and technology of various institutes including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Industrial Management Corpor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the form of ODA to Algerian industries by creating effective channels such as the Korean-Algerian Industrial Manufacturing Technology Council. As both Korean and Algerian economies have a structure that may serve as a supplement for each other, the room for industrial cooperation is immense. Algeria is a nation with vast natural resources such as gas and petroleum but it lacks experience 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Korea, on the other hand, is a country which successfully propelled industrialization, as it transformed to a leading economy from the poorest nation on the planet.

The cooperation for priority sectors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3 parts. The first is the industry and energy sector. In particular, cooperation can be expected in providing comprehensive consultation on the petrochemical industry, support for training the workforce through sharing petrochemistry technology and support for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waste treatment. Algeria has one of the world's largest petroleum and natural gas deposits and a great potential developing its petrochemical industry. As such, the Algeri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been trying to expand and improve the industry. While the current environment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limited to producing basic petrochemicals, Algeria is putting effort to diversify the

industry by constructing large-scale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es in the future. Korea managed to successfully construct its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lso, the nation developed industry related policies and structures, which makes it a good future partner for Algeria. Korea can share its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develop strategies for expanding and specializing Algeria's petrochemical industry by initiating consultative projects with Algeria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core technologies that are essential in adding value to its industry. The nature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technology-intensive, making it an industry which requires a high level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s characteristic training the workforce exceptionally imperative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In this context, Korea's related enterprises, private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s can be used to offer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Algerian petrochemical technicians, managers, relevant policy makers and public enterprise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If necessary, it may be considered providing greater support in training engineers in the private sector with a support of the Algerian government. In order to successfully execute a systematic program for nurturing engineers, conducting a periodic survey and analysis on the industry's human resource supply, nurtu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technology and management by developing job analysis and competence models,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certificate programs related to engineering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Moreover, providing consultation service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engineering graduate schools may be considered as a measure to enhance training for globalized professionals in the industry. There is also a demand to mitigate pollution and reduce waste processing costs by developing a recycling system that uses industrial waste as a fuel within the complex. Korea's experience in constructing and managing the Ulsan Eco-Industrial Park (EIP) may be useful in providing comprehensive consulting to establish an environment-friendly industrial complex that is suitable for Algeria's industrial environment.

Agricultural sector is suggested as a second priority sector for bilateral cooperation. Increasing productivity would allow Algeria to take full advantage of its vast landscape. However, 50 percent of Algeria's agricultural products are imports because of poor agricultural development. This study determined that a multifaceted support is required according to value chain analyses on the Algerian agricultural development. This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agricultural R&D, reorganization of technological extension systems, technological transfers, reorganization of infrastructure, and policy reviews. But considering Korea's capacity to sustainably provide support to the Algerian agricultural sector, the best form is viewed to be offering Korea's agriculture technology. North Africa boasts an abundance of grains, vegetables, and fruits with its Mediterranean climate, and Korea has expertise in the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these crops. Korea has also successfully developed and distributed high-yield seed potatoes in Algeria in the past, which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a testament to potential cooperation in other areas. Additionally, the demand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cultivating and producing greenhouse vegetables has also risen over the recent years. For instance, tomatoes are low in quality and have low productivity per area (less than 1/4 of Korea's yield) and low marketability, despite the fact that it is one of the most cultivated greenhouse vegetables in Algeria. While the KOPIA office in Algeria has been disseminating relevant technology through demonstration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ondition, taking a phased and systematic approach in implementing a cooperative research on production and management may be positively reviewed considering future increase in greenhouse vegetable demands.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Algerian agriculture experts is the key in successfully delivering agricultural support. One of the ways that this may be achieved is through joint research, which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ensure that the technology is applied to local areas. From the inception sta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cultivars, and throughout the research, local experts must be invited to

participate actively, so that, they may subsequently be act as technological disseminators in the future.

The third area is the infrastructure of Algeria.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s the training of infrastructure professionals, creating a master plan and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for the bilateral cooperation in this sector. Considering Algeria's development needs and Korea's capacity for ODA, knowledge-sharing projects should be focused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specially in areas such as new constru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While Korea's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xpertise have never been in the main agenda for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 visitor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lger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expressed their interests in Korea's highly developed infrastructure. In fact, Korea is a country with world-class expertise in building infrastructure. A good example is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Expressway in the early 1970s. Since then, Korea accumulated a high level of experience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developing infrastructure. Training programs for construction professionals were provided by Korea from time to time. These programs must be sustain and enhanced in quality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and demands for cooperation regard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instance, Korea has wide-reaching experience in construction including city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water and sewage facility developmen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nstruction license policy design, new technology promotion, SOC private investment and construction guarantee systems. This experience can be shared to achieve a meaningful Korea-Algeria cooperation in construction. In addition to construction, Korea's experience in other areas such as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is highly recognized, which is also noted by the Algerian government. Sinc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carried out as medium or long-term projects in general, new businesses should be actively developed from the early planning stages through the process of providing grant aids. Most infrastructure projects in Algeria, including the Algerian

East-West Highway, have been planned as early as the end of 1990s to early 2000s. Undoubtedly, participating in development studie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would be an even more ideal option. Also, private enterprises can use this opportunity to conduct development studies to realize the projects that they had been unable to carry out on in the past. While the overall demand for untied aid has been on the rise following Korea's admission into OECD-DAC in 2010, KOICA should add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rough its transportation-related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n order to jointly search for new areas for Korea-Algeria cooperation. This may contribute to Korean firms in entering the Algerian market. Considering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size of the projects, the major development projects are assumed to be development plants, industrial plants, city and complex development, high-speed railway construction and port development. Development programs made through matching funds between KOICA and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may also be considered. AfDB operates a trust fund gathered from its member states with the goal of financially supporting cooperation projects on technology.

This study emphasizes the technological aspects of Korean ODA to Algeria. This emphasis is based not only on the fact that the amount of ODA to Algeria is limited, but also Algeria's viewpoint toward bilateral cooperation. Being a resource-rich middle-income nation, Algeria's expectation for small-scale donors including Korea is bigger in technological cooperation than financial aid. While development cooperation ultimately aims to eradicate poverty, the actual means or efforts for achieving this goal may diff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recipient. Unlike countries that are suffering from extreme poverty, developing countries that raised their income levels to a certain extent and potential for industrial growth would find support for industrial development helpful and Algeria is a case in point of the latter.

This research emphasizes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builds economic partnerships. Korea should set clear goals for its ODA policies by balancing the universal valu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national interest. In order to realize such objectives, it is important to build trust between the two nation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dd economic partnership based on it. This may eventually be a win-win strategy for both participating nations. Further advances in cooperation may lead to market advance in various areas such as energy and infrastructure. Enhancing cooperation using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can also be a viable option. As grant aids for developing economies alone may fall short in creating a practical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cooperate is vital. Many donor countries are already shifting government led development projects to the private sector knowing the positive effect of PPP. From the viewpoint of ODA recipients, PPP can create innovative and efficient development projects since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 in providing funds, technology and expertise. In turn, private enterprises from donor economies can expect positive outcomes such as raising brand awareness and market entrance in the mid and long term. In this sense, Korea should also integrate private funds, technology, and expertise in its ODA proj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size and efficiency of aid. Furthermore, ODA should be viewed as a way to enhance brand awareness and to discover new markets. Above all, research on the form of PPP in Korea's ODA framework should be conducted beforehand.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Résumé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e déterminer une « approche systématique » pour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APD) destinée à l'Algérie, en explorant des méthodes de coopération au niveau général et dans les industries clés. Bien que l'Algérie, ne soit pas un « pays partenaire prioritaire » pour la Corée, le pays a de la valeur en termes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puisque plusieurs industries le considèrent comme un marché à fort potentiel de croissance. Dans ce contexte, l'aide limitée attribuée à l'Algérie incite la Corée à faire les bons choix pour optimiser les résultats. La méthodologie utilisée dans cette étude inclut l'analyse quantitative, des commentaires littéraires, la consultation d'experts et l'étude de terrain.

L'étude est composée de 4 parties principales. Le chapitre 2 présente une vue d'ensemble de la situation politique et économique de l'Algérie afin de donner quelques informations générales. Il expose une analyse détaillée des liens directs et indirects entre le sous-développement et les difficultés rencontrées par chaque industrie. Ce chapitre se concentre également sur la fondation de l'Algérie pour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concernant les facteurs politiques, sociaux et culturels. Comprendre l'environnement de l'Algérie dans son ensemble constitue la première étape pour déterminer des manières de coopérer efficacement au développement. Le chapitre 3 décrit les efforts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our surmonter les obstacles que rencontr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de l'Algérie et offre une évaluation et une analyse des caractéristiques de ces efforts. L'objectif de ce chapitre est d'enquêter sur la façon dont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les donateurs perçoivent et abordent les problèmes du développement de l'Algérie. La tendance internationale et les méthodes employées par les pays donateurs peuvent servir de référence au plan de l'APD de la Corée destinée à l'Algérie. Le chapitre 4, point clé de cette étude, présente l'objectif de l'APD de la Corée destinée à l'Algérie, ainsi que les secteurs prioritaires et les méthodes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pour chaque secteur, et enfin la structure globale

de la coopération. Avant d'aborder les mesures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spécifiques au secteur, ce chapitre expose les objectifs globaux dans un contexte général et décrit les principaux domaines de coopération, ainsi que les méthodes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qui peuvent être envisagées. Toutes les méthodes de coopération présentées dans cette étude sont basées sur l'hypothèse selon laquelle la Corée possède un avantage comparatif sur l'Algérie, en particulier par rapport à l'expérience accumulée au cours de son développement et de son industrialisation. Par ailleurs, ce chapitre identifie diverses approches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d'un point de vue général, en se basant sur de précédentes analyses. Le chapitre 5 conclut cette étude en rassemblant les résultats des chapitres précédents.

Cette étude vise à déterminer les secteurs prioritaires de la coopération en utilisant les données les plus objectives possibles. Tandis que les plans de l'APD de la Corée destinés à l'Algérie ont été conçus du point de vue d'un pays donateur, en accordant une forte priorité à certains domaines comme l'infrastructure, cette étude vise à obtenir la plus grande objectivité possible en menant une analyse quantitative basée sur l'offre et la demande. En outre, cette étude présente un certain nombre de programmes de coopération relativement détaillés adaptés à chaque secteur clé. La plupart des études précédentes sont axées sur les besoins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ou sur les types de coopération dans certaines industries à un niveau général. En ce sens, cette étude est d'autant plus significative qu'elle considère les caractéristiques géographiques de l'Algérie. Cette analyse était destinée à comprendre les demandes de développement de l'Algérie et à identifier les méthodes de coopération utiles en formant des groupes locaux de consultation et en menant des études de terrain et des consultations d'experts. Ces approches différencient complètement cette étude des précédentes.

Cette étude propose de soutenir l'industrialisation en tant que structure de base à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entr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et l'Algérie. L'Algérie est sur le point de prendre la voie de l'industrialisation en tant qu'économie émergente avec des actifs matériels accumulés jusqu'à un certain point. Par conséquent, elle doit se concentrer sur le développement de capacités liées à l'industrialisation. Malgré ses ressources naturelles abondantes, notamment le pétrole et le gaz naturel, l'Algérie doit encore accomplir son développement industriel. Le pays a mis en avant ses ressources naturelles comme facteur économique, créant ainsi plusieurs niveaux de demande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vers la diversification et le déploiement de ses industries. L'Algérie souhaite obtenir de l'APD de la Corée le secret de la réussite coréenne au niveau de l'industrialisation et de la technologie industrielle. Depuis l'avancement de la coopération économique entre la Corée et l'Algérie au milieu des années 2000, les principaux secteurs de coopération ont impliqué la consultation en matière de politique industrielle, la formation sur invitation et l'envoi d'experts. La Corée devrait à présent fournir des technologies de fabrication industrielle, représentant une manière efficace pour l'Algérie de diversifier et de valoriser son économie. À cet égard, la KOICA doit se concentrer sur le partage de l'expérience et de la technologie de plusieurs instituts, notamment la Coopération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la Coopération à la gestion industrielle, le Service de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et l'Institut coréen pour l'avancement des technologies sous la forme de l'APD aux industries algériennes, en créant des canaux efficaces tels que le Conseil technologique de fabrication industrielle de la Corée et de l'Algérie. Les économies coréennes et algériennes présentant des structures complémentaires, une coopération est tout à fait possible. L'Algérie est une nation possédant d'importantes ressources naturelles, telles que le gaz et le pétrole, mais elle manque d'expérience dans le développement et la technologie industriels. La Corée, quant à elle, est un pays qui a réussi avec brio son industrialisation, étant devenue une puissance économique après avoir été l'une des nations les plus pauvres de la planète.

La coopération destinée aux secteurs prioritaires suggérés dans cette étude se résume en 3 parties. La première est le secteur de l'industrie et de l'énergie. La coopération est notamment attendue sous les formes suivantes : offre de consultation exhaustive sur l'industrie pétrochimique, soutien pour former le personnel en diffusant la technologie pétrochimique et en soutenant le complexe industriel pétrochimique de traitement des déchets. L'Algérie possède l'une des plus grandes réserves au monde de gaz naturel et de pétrole et présente un grand potentiel de développement de son industrie pétrochimique. Ainsi, le gouvernement algérien a toujours essayé d'étendre et d'améliorer l'industrie. Tandis que l'environnement actuel de l'industrie pétrochimique est limité à la production de produits pétrochimiques de base, l'Algérie s'efforce de diversifier l'industrie en construisant des complexes industriels pétrochimiques à grande échelle. La Corée a réussi à construire son complexe industriel pétrochimique plus rapidement que tout autre pays au monde. La nation a également développé des politiques et des structures industrielles, ce qui en fait un bon partenaire pour l'Algérie. La Corée peut partager ses technologies et son expérience pour développer des stratégies afin d'agrandir et de spécialiser l'industrie pétrochimique de l'Algérie. Elle peut initier des projets de consultation avec l'Algérie sur des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des technologies principales qui sont essentielles à la création de valeur ajoutée de son industrie. L'industrie pétrochimique est un secteur à forte utilisation technologique, exigeant par conséquent un haut niveau de maintenance et de gestion. La formation de cette main-d'œuvre est particulièrement cruciale comparée à d'autres industries. Dans ce contexte, les entreprises pertinentes, les instituts de recherche privés, les universités et les institutions gouvernementales de recherche de la Corée peuvent être utilisés pour offrir des programmes de développement des capacités destinés aux techniciens pétrochimiques, managers, décisionnaires, directeurs et personnel algériens. Le cas échéant, il peut être envisagé d'apporter un plus grand soutien à la formation des techniciens dans le secteur privé avec un soutien du gouvernement algérien. Afin de suivre un programme systématique

pour former les techniciens, il est nécessaire d'étudier et d'analyser régulièrement les ressources humaines de l'industrie et de soutenir les ressources humaines professionnelles en matière de technologie et de gestion en développant une analyse des tâches et des modèles de compétences, et en encourageant des programmes de certificats internationaux liés à l'ingénierie. Par ailleurs, il peut être envisagé de fournir des services de consultation pour l'établissement d'écoles de techniciens spécialisés afin de favoriser la formation de professionnels internationaux dans l'industrie. Il existe également une demande de réduction de la pollution et des coûts de traitement des déchets en développant un système de recyclage qui utilise les déchets industriels comme carburant au sein des complexes. L'expérience de la Corée dans la construction et la gestion du Parc éco-industriel (EIP) d'Ulsan peut être utile pour offrir une consultation exhaustive afin d'établir un complexe industriel écologique approprié à l'environnement industriel de l'Algérie.

Le secteur de l'agriculture est proposé comme deuxième secteur prioritaire dans la coopération bilatérale. L'accroissement de la productivité permettrait à l'Algérie de tirer pleinement profit de son vaste paysage. Cependant, 50 % des produits agricoles de l'Algérie sont importés en raison de son faible développement agricole. D'après les analyses de la chaîne de valeur effectuées sur le développement agricole algérien, un soutien sous plusieurs formes est nécessaire. Cela inclut l'établissement d'une base pour la R&D agricole, la réorganisation des systèmes d'extension technologique, les transferts de technologies, la réorganisation de l'infrastructure et les révisions politiques. Cependant, compte tenu de la capacité de la Corée à fournir un soutien durable au secteur agricole algérien, la technologie agricole coréenne est la meilleure offre d'assistance. L'Afrique du Nord produit des céréales, des légumes et des fruits en abondance grâce à son climat méditerranéen, et la Corée possède une expertise dans le développement et la production de ces cultures. Dans le passé, la Corée a également développé et distribué avec succès des plants de pomme

de terre à haut rendement en Algérie, ce qui peut servir de point de départ à la coopération technologique dans l'agriculture et de témoignage à la coopération potentielle dans d'autres domaines. Par ailleurs, la demande de coopération technologique dans la culture et la production de légumes sous serre a également augmenté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Par exemple, les tomates ont une qualité médiocre, une faible productivité par région (moins de 1/4 de la production de la Corée) et une faible qualité marchande, bien que ce soit l'un des légumes les plus cultivés sous serre en Algérie. Tandis que le bureau KOPIA en Algérie a diffusé une technologie pertinente au travers de projets de démonstration afin d'améliorer la situation actuelle, adopter une approche systématique et progressive dans la mise en œuvre d'une recherche coopérative sur la production et la gestion peut être considérée positivement, étant donnée l'augmentation future de la demande en légumes produits sous serre. Travailler en étroite collaboration avec les experts agricoles algériens constitue la clé de la réussite du soutien agricole. La recherche commune est la manière la plus efficace d'assurer l'application de la technologie à des zones locales. Depuis les premières étapes, comme le développement de nouveaux cultivars, et tout au long de la recherche, les experts locaux doivent être invités à participer activement, afin qu'ils puissent ensuite favoriser la dissémination technologique.

Le troisième secteur est celui de l'infrastructure de l'Algérie. Cette étude propose notamment la formation de professionnels de l'infrastructure, en créant un plan directeur et en menant des études de faisabilité pour la coopération bilatérale dans ce secteur. Compte tenu des besoins en développement de l'Algérie et de la capacité de la Corée pour l'APD, les projets de partage des connaissances doivent être axés sur le développement de l'infrastructure dans des domaines comme la construction, la gestion et la maintenance. La technologie et l'expertise coréennes dans le domaine de la construction n'ont jamais été dans les principaux objectifs du partage de l'expérience en

développement. Cependant, les visiteurs d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notamment les fonctionnaires du gouvernement algérien, ont exprimé leur intérêt pour l'infrastructure hautement développée de la Corée. En effet, la Corée est un pays ayant une expertise de classe mondiale dans l'infrastructure de la construction. La construction du Gyeongbu Expressway au début des années 70 en est un bon exemple. Depuis lors, la Corée a accumulé un haut niveau d'expérience et un avancement technologique dans le développement d'infrastructures. Des programmes de formation adressés aux professionnels de la construction ont été fournis de temps à autre par la Corée. Ces programmes doivent être maintenus et améliorés en termes de qualité, compte tenu de leur importance et des demandes de coopération concernant le développement de l'infrastructure. Par exemple, la Corée a une grande expérience en construction : développement urbain et industriel, installations d'adduction d'eau et d'épuration des eaux usées, infrastructure des transports, conception de la politique de permis de construire, promotion de nouvelles technologies, investissement privé SOC et systèmes de garantie de construction. Cette expérience peut être partagée pour obtenir une coopération importante Corée-Algérie dans le domaine de la construction. En plus de la construction, l'expérience de la Corée dans d'autres domaines comme la gestion et la maintenance des infrastructures est hautement reconnue, notamment par le gouvernement algérien. Étant donné que les projets d'infrastructure sont exécutés à moyen et à long terme, de nouvelles entreprises doivent être activement développées dès les premiers stades de la planification et tout au long du processus d'attribution de subventions. La plupart des projets d'infrastructure en Algérie, notamment l'autoroute algérienne Est-Ouest, ont été planifiés dès la fin des années 90, et au début des années 2000. La participation à des études de développement au travers de partenariats public-privé (PPP) serait sans aucun doute une option encore plus idéale. Les entreprises privées peuvent également profiter de cette occasion pour effectuer des études de développement afin de réaliser les projets qu'elles étaient incapables de mener à bien auparavant. Alors que la demande globale d'aide n'a

cessé de croître depuis l'admission de la Corée dans le CAD de l'OCDE en 2010, la KOICA doit ajouter de nouvelles opportunités commerciales par le biais d'agences gouvernementales relatives aux transports, telles que l'Institut des transports coréen, la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et l'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fin de rechercher de nouveaux domaines de coopération entre la Corée et l'Algérie. Les firmes coréennes pourraient ainsi entrer sur le marché algérien. Compte tenu de l'avantage comparatif de la Corée et de la taille des projets, les principaux projets de développement sont les usines de développement, les usines industrielles, le développement urbain, la construction de lignes de chemin de fer à grande vitesse et le développement portuaire. Les programmes de développement effectués par le biais de fonds à contrepartie entre la KOICA et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D) peuvent également être envisagés. La BAD exploite un fond en fiducie collecté auprès de ses états membres avec l'objectif de soutenir financièrement les projets de coopération relatifs à la technologie.

Cette étude met en avant les aspects technologiques de l'APD coréenne destinée à l'Algérie. Elle se fonde non seulement sur la limite de l'APD destinée à l'Algérie, mais également sur la perspective de l'Algérie. Étant une nation aux revenus moyens et riche en ressources, l'Algérie espère davantage une coopération technologique qu'une aide financière de la part des pays donateurs à petite échelle comme la Corée. Tandis qu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vise finalement l'éradication de la pauvreté, les moyens ou efforts réels pour atteindre ce but peuvent différer selon la situation du bénéficiaire. Contrairement aux pays qui souffrent d'extrême pauvreté,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qui ont augmenté le niveau de leurs revenus et leur potentiel de croissance industrielle, trouveraient le développement industriel utile. L'Algérie se trouve dans le second cas.

Cette recherche soulign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qui établit des partenariats économiques. La Corée doit fixer des objectifs précis pour sa politique de l'APD en équilibrant la valeur universelle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et l'intérêt national. Afin de réaliser ces objectifs, il est important de développer la confiance entre les deux nations par le biais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et d'établir un partenariat économique basé sur celle-ci. Les deux nations participantes finiront par y gagner. Des nouveaux progrès dans la coopération peuvent conduire à une avancée sur le marché dans plusieurs domaines tels que l'énergie et l'infrastructure. Favoriser la coopération à l'aide du partenariat privé-public (PPP) peut également constituer une option viable. Les subventions aux économies en voie de développement pouvant s'avérer insuffisantes pour créer une base appropriée à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il est essentiel d'encourager le secteur privé à coopérer activement. De nombreux pays donateurs font déjà passer les projets de développement dirigés par le gouvernement dans le secteur privé, connaissant l'effet positif du PPP. Du point de vue des bénéficiaires de l'APD, le PPP peut créer des projets de développement innovants et efficaces, puisque le secteur privé participe à la fourniture de fonds, de technologies et d'expertise. À leur tour, les entreprises privées des économies des pays donateurs peuvent espérer des résultats positifs, tels que le développement de la notoriété de leurs marques et l'entrée sur le marché à moyen et à court terme. En ce sens, la Corée doit également intégrer des fonds privés, de la technologie et de l'expertise dans ses projets d'APD afin d'augmenter la taille et l'efficacité de l'aide. Par ailleurs, l'APD do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 moyen d'augmenter la notoriété des marques et de découvrir de nouveaux marchés. La recherche sur la forme du PPP dans la structure de l'APD de la Corée doit surtout être effectuée au préalable.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알제리는 아프리카 또는 중동지역의 낙후된 국가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 알제리의 국가적 상황이 극도로 불안했기 때문이다. 알제리는 130여년에 걸친 프랑스의 식민통치로부터 1962년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다른 대부분의 신생독립국들과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 극심한 정치적 변동을 겪어야 했다. 독립 직후 잠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지만, 이슬람세력과 군부 간의 갈등으로 극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독립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알제리는 공산체제의 자유화 물결과 함께 1989년 개헌을 통해 복수정당제 도입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였지만, 1990년대 정치적 내분과 군부 세력의 개입, 극심한 정치테러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퇴보의 길을 걸어야 했다. 특히 1992년 군부의 정치개입과 이에 따른 이슬람원리주의 과격세력의 저항은 극심한 유혈사태를 야기했다. 이로 말미암아 알제리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인 논리를 제공받지 못했다.

알제리의 정치적 혼란 상황은 1999년 부테플리카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집권 직후 군부 장악과 이슬람 세력의 통제를 통해 국정을 장악해 나갔으며, 이런 강압적인 통제정책에 대해 알제리 국민들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장기간의 내전과 혼란 상황을 빠져리게 겪은 알제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알제리가 아프리카의 거대 신흥시장으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알제리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불모지로 방치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협력의 대상에서 늘 떨어져 있었으나, 정치적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원개발 잠재력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경제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최대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알제리는 막대한 양의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국가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기회가 다른 어느 개도국보다 많았다. 알제리는 석유매장량이 세계 14위이며 천연가스 수출이 세계 2위인 자원부국이다.

알제리는 198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 퇴조 분위기 속에서 개방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1990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였으나, 이후 내전에 휩싸이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와 알제리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알제리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서이다.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2003년 12월 한국을 방문했고, 2006년 3월에는 한국 대통령(노무현)이 이집트, 나이지리아와 함께 알제리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알제리와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선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알제리 T/F(Task Force)팀이 산업자원부에 설치(2006년 4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T/F(Task Force)는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모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시의 협력 분위기와 태스크 포스의 구성은 정부와 민간을 망라하는 범정부적인 수준으로 유사한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었다. 당시 한-알제리 경제협력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총괄 감독했으며, 이를 산업자원부(정부 T/F), 외교통상부(현지 공관), 무역협회(민간 T/F)에서 주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알제리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양국의 태스크 포스는 상호 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회의를 개최했으며,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협력기금(matching fund)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협력의 범위도 정책자문에서부터 산업·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농수산·해운, 인프라 및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이러한 ‘협력 붐’을 계기로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우리 기업들의 알제리 진출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SOC를 비롯한 산업기반 건설에 매진함에 따라 알제리는 우리에게 있어 중동 건설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시장으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알제리는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도 건설시장 진출의 또 다른 유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많은 장벽에 부딪치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크게 미흡했다.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정책·제도·규정의 잦은 변경과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지나친 관료주의에서 소위 ‘인살라’로 표현되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했다. 결국 알제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매우 드물게 알제리와의 협력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지만, 하나의 실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국가 간의 협력문제는 단선적으로 평가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철학이나 목표는 빈약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적인 전략이나 비전 또한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더욱이 알제리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유국으로 ODA 중점대상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ODA 파트너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모색되고 있어, 알제리와 같은 ‘신흥 수원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신흥 수원국은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은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사회개발보다는 산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국가를 의미한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경제 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이나, 성장 잠재력과 경제개혁 및 자유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알제리에 대한 ‘체계화’된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이 필요성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알제리에 대한 ODA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조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제고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국제원조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더욱이 알제리는 중소득권 산유국으로 한국으로부터 얻고자하는 부분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한국의 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이다. 알제리가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실패한 산업화를 한국은 어떻

게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등에 대한 노하우와 산업기술 공유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개발수요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분석을 시행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의 크기를 양적으로 측정했고, 여기에 근거하여 후반부에서는 지역전문가로서의 경험 내지 식견을 가지고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아가, 양국 간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의 對알제리 개발협력에 있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과 원칙은 무엇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좌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알제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ODA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본목표 또는 방향, 중점협력분야 도출 및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를 찾고자 했다. 알제리는 자원부국 중 소득국으로 우리의 ‘비 중점 ODA 국가’이지만, 국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우리의 개발협력이 지향해야 할 좌표의 설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중점협력분야 도출, 즉, 어떤 분야에 원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원조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협력유망 분야를 도출하고, 이들 분야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인지를 모색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방식은 해당 국가의 장기적 개발계획에 의거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원조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공급 능력 또는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상대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협력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방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헌자료는 각종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통계 D/B, 신문·잡지 등 다양하며 관련 기관 전문가와 면담도 병행하였다. 알제리는 여전히 폐쇄적인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있고,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자료 입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KOICA 현지사무소, KOTRA 무역관, 현지 컨설턴트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감이 넘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중점 협력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각 요소들을 어떤 비중으로 다룰 것인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협력유망분야 선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것인데,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영호 외(2014)는 벤

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그의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벤치마킹 기법은 해당 국가의 어떤 분야에서 발전정도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국가를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관측 가능한 지수들을 비교하여 부족한 크기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정성연구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양국 관계,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및 분야별 실수요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국제적 정세 변화 및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수요 등 수원국과의 개발협력 추진 시 고려해야하는 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중점 분야별 ODA 추진방안과 협력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및 현지조사, 현지 컨설턴트 및 해당분야 공무원 그룹과의 심층적인 면담 등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알제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낙후성이 저개발 문제와 어떻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알제리가 직면해 있는 개발협력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제3장에서는 알제리의 개발협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분석하였다. 본 장의 목적은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인 알제리 개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알제리 개발협력의 국제적 추세나 다른 공여국의 접근방식은 우리의 알제리 ODA 전략수립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ODA 기본목표와 함께 중점협력분야 도출 및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발협력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어 어떤 개발협력 수단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협력수단들은 우리나라가 빈곤 극복이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나 기술 등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최근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발협력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국이 아닌 알제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알제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ODA 좌표를 설정하고, 중점분야를 찾아 개발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KOICA(2002), 박영호 외(2007),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2), KOICA(2013), KDI(2013) 등이 알제리 개발협력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알제리의 개발 이슈를 다룬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방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학계나 기타 관련 기관 등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담론 수준에 머물러 정책적 함의는 높지 않다. 이들 연구는 개발협력보다는 산업진출 차원에서 알제리의 산업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첫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알제리 ODA는 주로 ‘공여국적 판단’에 근거하여 인프라 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비중점 협력국이지만 21세기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알제리에 대해 큰 틀에서 우리의 ODA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좌표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은 부실했다.

셋째,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인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일반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 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알제리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알제리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기준(정량적 분석)에 의해 중점 협력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성적으로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불가피했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적합한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제2장

알제리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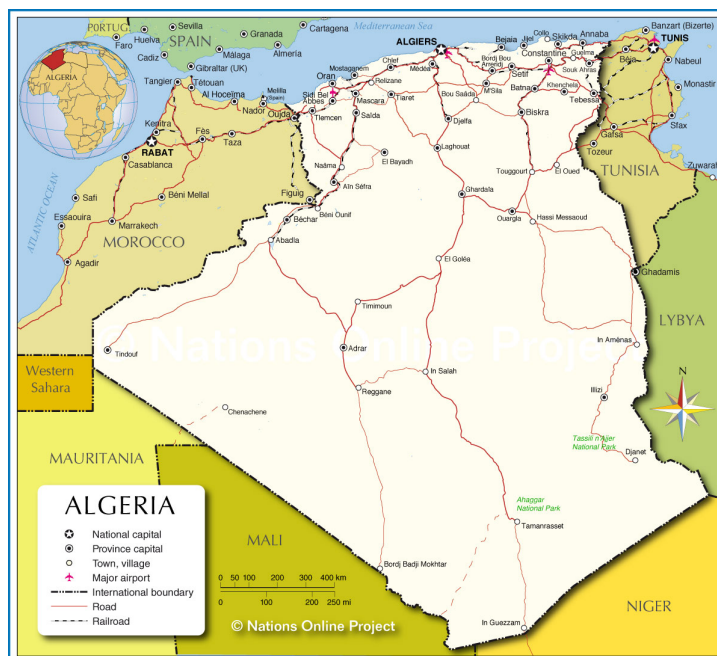


제1절 일반현황

1. 개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의 국토는 총 238만 km²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대면적을 보유한 국가이다.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 유럽대륙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말리, 니제르 등과 국경을 같이하지만, 국토 남쪽으로 거대한 사막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사실상 서아프리카로의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2-1] 알제리 지도



자료: Nations Online Project. 2015. Maps.

<표 2-1> 알제리 개황

면적	2,381,741km ² (한반도의 10배)	위치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국경선 6,343km, 해안선 998km)
인구	38.8백만 명	접경국	모로코, 서사하라,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정치 체제	인민공화제	언어	아랍어(공용), 프랑스어, 베르베르어
수도	알제(2.7백만 명)	기후	지중해성(북부), 대륙성 및 사막(남부)
행정 구역	48개 주(wilaya)	주요 도시	바트나, 베샤르, 비스크라, 시디벨아베스, 안나바, 오랑, 콩스탕틴
건국일	1962년 07월 05일	통화 단위	알제리 디나르(Algeria Dinar, DA)
민족	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99%), 기독교 및 유대교

자료: World Bank. 2015. CIA World Factbook. 및 주 알제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국토 남부지역에 위치한 사막지대는 전체 면적의 4/5규모로, 따라서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 알제 인근의 북부 해안가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로 연간 강수량이 평균 1,000mm 이상인 지역도 있는 등 비교적 습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륙지역의 경우 200-400mm의 연간 강수량으로 북부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조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의 지역별 차이는 국토 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알제리의 경작 가능면적은 전체의 3%로 협소한 편으로, 이 같은 지정학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는 고지대나 사하라 지역에서의 사막, 스텝(Steppe)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작물은 주로 좁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비옥한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은 아랍인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알제리는 종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단일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나,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 집단적 쿠데타 및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에는 다소 민감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2. 정치 현황

가. 정치 역사

〈표 2-2〉 알제리 정치 개황

독립	1962년 7월 5일 독립 (132년 간 프랑스 식민지)	정치 체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4선 연임)	의회	양원제(상원 144석, 하원 462석)
정당 제도	복수 정당제	주요 정당	민족해방전선(FLN), 국민민주당(RND), 이슬람사회평화운동(MSP)
정부 부처	34기관	국제 기구	UN, IMF, ILO, FAO, IBRD, OPEC, WHO, AU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알제리는 1962년 7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함으로써 비로소 자주 국가가 되었다. 1518년부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던 알제리는 프랑스의 영토침공으로 인해 1830년 지배국이 바뀌는 등 약 4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다. 탈 식민지화를 위해 알제리 독립 운동세력이 구축되었고 1954년 이들과 프랑스 정부군과의 전쟁이 시작되어 약 9년 간 지속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알제리 독립의 시발점이 된 ‘알제리 전쟁’이다.

아흐메드 벤 벨라(Ahmed Ben Bella)가 초대 총리로 선정 이후 대통령제 도입에 따라 대통령으로 취임되었지만 1965년 우아리 부메디엔(Houari Boumedienne)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초대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막을 내렸다. 이후 선출된 벤제디드 샤들리(Bendjedid Chadli)하의 정권은 대외적인 상황 악화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마침, 1980년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극심한 디플레이션 및 실업 문제로 국민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해졌고, 이를 반영하듯 80년대 후반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인 이슬람 구국전선(Islamic Salvation Front, FIS)이 빈민가 청년층을 지지기반으로 삼으며 선거에서 압승하는 등 정권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인해 시국이 불안정해 진 틈을 타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슬람 구국전선을 불법화 하는 등 반 체제 인사들을 가압하는데 이슬람 세력이 대응하면서 1991년 내전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상사자 발생하였으며 도심 곳곳이 파괴되는 등 국가발전이 전반적으로 퇴보하였다. 한편 이 같은 내전은 다당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마련의 도화선이 되었다. 내전 중에 모하메드 부디아프(Mohamed Boudiaf) 전 대통령은 암살되었고, 최초의 다당제 선거를 통해 1995년 리아민 제루알(Liamine Zeroual)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군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취임 5년차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고, 뒤이어 국정을 운영하게 된 인사가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현 대통령이다.¹⁾

나. 국제관계 및 대외 정세

알제리는 전통적인 반 식민주의, 비동맹 중립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쿠바,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이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및 국가발전을 위해 전통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온 프랑스와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 및 미국과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지배 국가였던 프랑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알제리에 대하여 우호적인 반면 알제리 국민들은 반 프랑스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식민지사 청산 문제를 두고 정치적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00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알제리의 최대 수입국이자 4대 수출국 중 하나로 대 알제리 교역량은 약 100억(‘11)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는 9.11 테러 이후 극우이슬람주의 세력을 경계하게 됨에 따라 우호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선언을 가장 먼저 지지하였으며, 중동지역의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에 힘을 쓸 것을 약속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또한,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경제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

1)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알제리는 미국의 중동·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지역 교역국가 중 세 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고, 미국 역시 알제리의 상위 수출대상국 중 하나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아프리카 진출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건설 및 제조업 부분의 활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의 알제리 유입과 함께 수도 알제에 MENA지역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등 국가 내 중국의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문화차이, 실업문제 등으로 국가 내 반중(反中)정서가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²⁾

3. 경제 현황

가. 거시 경제

알제리의 GDP 규모는 최근 5년간 상승세로 2013년 기준 총 2,1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규모로는 동일기간 대비 북아프리카 인근 국가³⁾ 중 이집트(2,710억 달러) 다음으로 역내에서 두 번째로 크며, 소득수준으로는 1인당 GDP가 5,606달러로 중고 소득국가에 속한다.⁴⁾

지역 내 국가들의 거시경제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알제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10년 12월 튀니지를 시작으로 일어난 ‘아랍의 봄(Arab Spring)’ 발생 이후인 2011년 지역 평균 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폭락하였으나, 이러한 주변국가의 경제상황 급변에도 불구하고 알제리는 2.8%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왔다. 정부 채무는 2013년 GDP 대비 8.9%로 이중 국내 채무는 5.0%, 해외 채무는 3.9%를 차지하였다.

2)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3)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이용하였으며, GDP Current Price(US Dollar) 기준 비교

4) World Bank 기준으로, \$4,125-12,746에 속하면 중고소득국가로 분류 됨

〈표 2-3〉 알제리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1,994	2,078	2,125	2,278	2,385
	1인당 GDP	달러	5,431	5,542	5,606	5,886	6,041
	경제성장률	%	2.8	3.3	2.8	3.8	4.0
	재정수지/GDP	%	-0.4	-4.1	-0.9	-4.5	-4.6
	소비자물가상승률	%	4.5	8.9	3.3	3.2	4.0
대 외 거 래	환율(달러당, 연중)	AD	72.9	77.5	79.4	79.6	79.7
	경상수지	백만달러	17,766	12,302	543	-2,117	-4,959
	경상수지/ GDP	%	8.9	5.9	0.3	-0.9	-2.2
	상품수지	백만달러	25,961	20,167	9,009	6,744	3,018
	수출	백만달러	72,888	71,736	64,383	62,104	59,270
	수입	백만달러	46,927	51,569	55,374	55,360	56,252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8,805	-7,126	-6,724	-7,159	-7,504
외 채 현 황	외환보유액	십억달러	-	190.7	194.0	187.6	172.6
	정부채무/GDP	%	11.0	9.9	8.9	8.3	-
	국내정부채무/GDP	%	6.1	5.5	5.0	4.6	-
	해외정부채무/GDP	%	4.9	4.4	3.9	3.7	-
	단기외채	백만달러	2,072	1,909	2,753	-	-
	외채상환액/총수출	%	1.7	0.4	0.6	0.6	0.9

주: 2014, 2015년은 예상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5년 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및 IMF Statistics

나. 대외 경제현황

1) 대외무역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알제리의 경제는 국제 유가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알제리의 경상수지는 2012년 약 120억 달러에서 2014년 -22억 달러로 급락하는 등 갑작스레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의 셰일(Shale) 가스 개발 등이 지목되고 있다. 경상수지의 악화는 무역수지 급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유가 및 유럽국가 경제위기에 따라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2011년 259억 달러에 달하던 무역수지가 2015

년 30억 달러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투자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장비 수입으로 인해 수입규모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정유 및 건설 업체에 일정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 서비스 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 가격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해 이들 업체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줄어들어 본원소득 수지의 적자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다.⁵⁾

〈표 2-4〉 알제리 경상수지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환율(달러당, 연중)	AD	72.9	77.5	79.4	79.6	79.7
경상수지	백만달러	17,766	12,302	543	-2,117	-4,959
경상수지/ GDP	%	8.9	5.9	0.3	-0.9	-2.2
무역수지	백만달러	25,961	20,167	9,009	6,744	3,018
수출	백만달러	72,888	71,736	64,383	62,104	59,270
수입	백만달러	46,927	51,569	55,374	55,360	56,252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8,805	-7,126	-6,724	-7,159	-7,504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182,200	190,675	189,765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5년 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알제리의 대외 수출실적은 2013년 6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1% 감소한 반면 수입은 553억 달러로 6.0% 증가하였다. 단연 원유 및 천연가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2014년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전년대비 -4.4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도 기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품목 중 가장 많은 수출량을 차지하는 것은 설탕으로 2억 7,200만 달러를 달성, 전년 실적 2억 800만 달러보다 증가하였다. 동일기간 내 최대 수출국은 스페인으로 97억 1,300만 달러(15.43%)를 달성하였으며, 이탈리아(13.29%), 프랑스(10.71%), 영국(8.71%) 등 유럽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64.63%를 차지하였다.

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Country Report: Algeria".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표 2-5> 알제리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원유·천연가스	62,960	96.90	60,146	95.54	-4.47
반제품	1,458	2.24	2,350	3.73	61.18
식료품	402	0.62	323	0.51	-19.65
천연제품	109	0.17	110	0.18	0.92
산업장비	28	0.04	15	0.02	-46.43
소비재	17	0.03	10	0.02	-41.18
농업장비	-	-	2	-	-

자료: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알제리의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장비 관련 수입은 전년 대비 16.75% 증가하여 2014년 약 189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 중 3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3년 기준, 최대 수입 품목은 승용차로 37억 2,800만 달러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화물 수송차량은 약 22억 달러로, 전체 수입실적에서 차량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알제리 정부는 가전 및 전기제품, 식품에 중점을 맞추어 국산품 애용 캠페인(Consommons algérien)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무역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과잉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해당 캠페인을 확장할 계획이다.⁶⁾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으로 수입실적이 전년 대비 19.93% 증가하여 2013년도 약 81억 달러(14.05%)를 기록하였다. 알제리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43.55% 증가하는 등 중국 외에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는 기조이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기존에 교역이 활발했던 유럽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44%, -12.26%, -2.68%로 대부분 축소되거나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6)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및 UN Comtrade, UN Service Trade, 2014. "Country Profile: Algeria".

<표 2-6> 알제리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산업장비	16,194	29.43	18,906	32.41	16.75
반제품	11,310	20.55	12,740	21.84	12.64
식료품	9,580	17.41	11,005	18.87	14.87
소비재	11,210	20.37	10,287	17.63	-8.23
에너지·운활유	4,385	7.97	2,851	4.89	-34.98
천연제품	1,841	3.35	1,884	3.23	2.34
농업장비	508	0.92	657	1.13	2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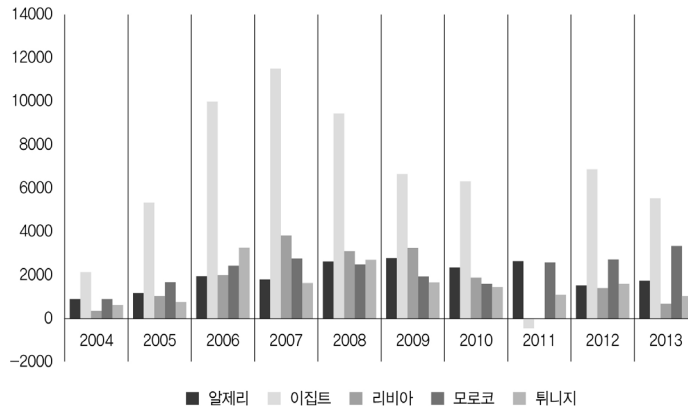
자료: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 외국인 직접투자

알제리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ement, FDI) 규모는 2013년 16억 9,100만 달러이며, 이를 반영한 알제리의 FDI 총계는 약 2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 당시 투자유입액은 역내 3위에 해당하지만, 인근 국가인 이집트(850억), 모로코(502억), 튀니지(335억)의 총액과 비교해보면 역내 4위로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2013년 FDI 유입액은 전체 GDP 대비 1%를 밑도는 수준으로 알제리의 국가 경제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이 또한 2009년 27억 달러 달성을 이후로 하향 기조에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및 민간기업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림 2-2] 북아프리카 국가별 FDI 유입 추세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연구진 재구성

투자의 49.9%는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에 공공시설 건설(15.0%), 관광(11.0%), 교통(9.0%), 서비스(8.2%) 및 통신(4.3%)에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분야 투자 중 대부분은 석유화학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데, 기술 이전 및 민간부문 육성이 어려워 기술과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관광, 통신 분야로의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인프라, 통신, 에너지, 수자원 분야의 경제 자유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주요 투자처는 쿠웨이트(23%), 스페인(17%), 이집트(17%), 미국(13%)이며 이외에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⁷⁾

다. 산업 부문

1) 산업 구조

알제리는 중동·아프리카·유럽 3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들 국가에 석유·천연가스를 수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는 모노컬처(Monoculture)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석유·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광업의 GDP 비중은 2012년 36.0%로 단일분야로의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2008년 49.1%였던 수치 대비 13.1%p 낮아져

7) Santander 홈페이지

차츰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향추세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되는데, 일례로 계획경제 시절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제한으로 인해 원유 생산 및 정유부분에 대한 신규투자가 부진했고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른 생산량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⁸⁾

<표 2-7> 알제리의 산업별 GDP 비중 비교

(단위: %)

산업 부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농수산업	7.0	9.7	26.7	29.2	8.6	9.4
광업	49.1	36.0	7.6	4.6	8.5	8.1
석유	48.9	35.9	-	-	7.3	7.5
석유 외	0.2	0.1	7.6	4.6	1.2	0.6
제조업	3.9	4.0	12.9	13.0	19.5	17.0
전기, 가스 및 수자원 산업	0.9	0.8	2.5	2.8	1.4	1.4
건설업	8.4	9.6	5.0	7.5	4.4	4.6
유통업	10.5	12.2	14.7	15.0	13.8	13.1
운송·통신업	8.0	7.4	4.3	3.7	13.2	13.2
금융·부동산업	1.0	1.2	12.0	11.0	14.7	14.8
공공행정	10.2	18.1	13.9	12.9	15.4	17.8
기타	1.0	1.0	0.3	0.3	0.5	0.5
총 계	100.0	100.0	100	100	100	100

자료: Tarik Benbahmed 외. 2014. "Algeria 2014".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연구진 재구성

이러한 산업 개발의 쏠림 현상은 자연스레 타 산업분야의 개발 저하현상을 야기했다. 제조업 부문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데, 인근 국가인 모로코와 튀니지의 제조업 분야와 비교하면, 이들 국가의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도 기준 각각 13.0%, 17.0%이나, 알제리의 경우는 4.0%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상태를 보여준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유통, 금융 분야에서도 두 국가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2차 및 3차 산업의 개발이 더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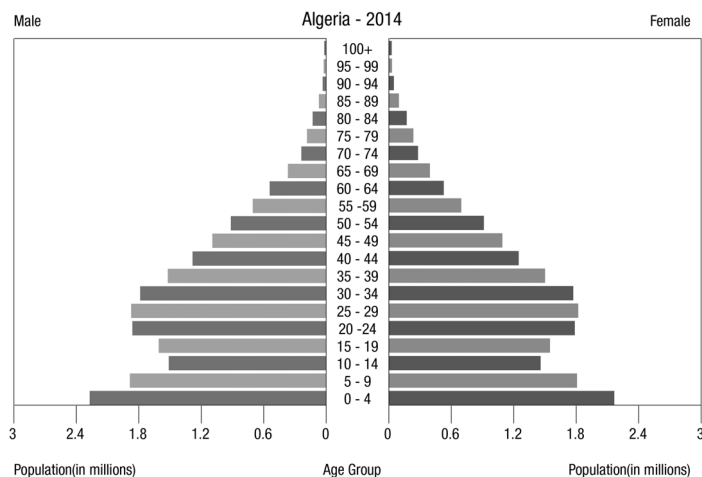
8) BP Global. 2014.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하지만 알제리는 지난 13년 간 사회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62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건설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14년 제 2차 경제개발 계획상에서 도로·고속도로 확장, 공항·항만시설 개선을 핵심 목표로 지정하여 90% 이상 이행하였으며 주택난 해소를 위해 245만 호의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등 건설업 분야로의 자금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12년 건설업의 GDP 비중이 1.2%p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⁹⁾

4. 사회문화 현황

가. 인구 및 고용

[그림 2-3] 알제리의 인구구조



자료: World Bank, 2015. CIA World Factbook,

알제리는 인구구조 면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충분한 노동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알제리 내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비율은 전체의 42.5%로, 농업 주도형 국가인 에티오피아¹⁰⁾가 29.2%, 말리가 26.7%임을 감안할 때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¹¹⁾

9) KOTRA 알제 무역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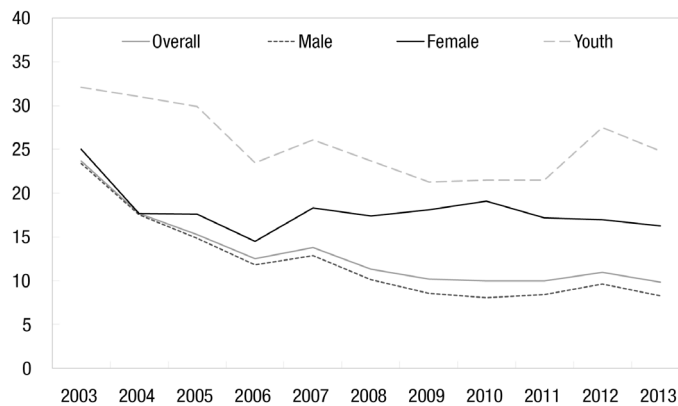
10) 에티오피아의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이며, 말리의 농업은 42.8%이다.

11) World Bank, CIA World Factbook, 홈페이지

알제리의 전반적인 실업문제를 살펴보면, 알제리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 2000년대 29.5%대에 달하던 실업률이 2013년 9.8%까지 하락하며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민간부문,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일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청년층(24.8%)의 실업률은 최근까지도 전체 실업률 대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변국인 모로코의 청년층(18.6%) 실업률과 대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²⁾

[그림 2-4] 알제리의 성별 및 연령별 실업률

(단위: %)



자료: IMF. 2014. IMF Country Report For Algeria. Report No.14/32

또한 석유화학 일변도의 경제구조는 청년층 대상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알제리의 광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대규모의 자본이 밀집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이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1.7%로 타 업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흥 경제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다각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층의 고용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표 2-8> 알제리의 산업별 노동인구 분포도

(기준: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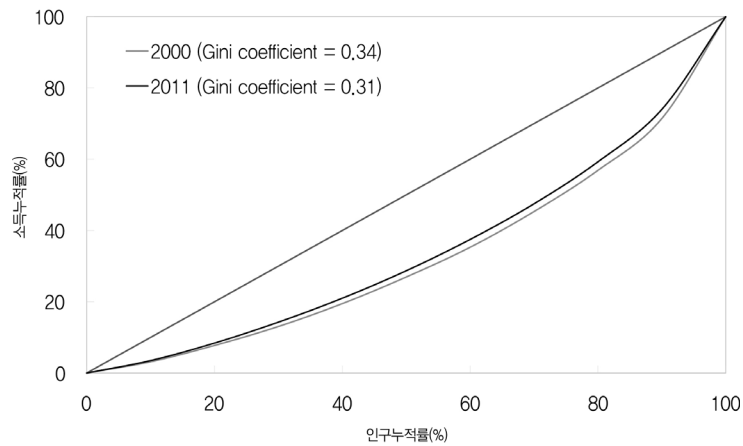
산업구분	업종	노동인구(%)
1차 산업	농업	10.6
2차 산업	제조업	11.4
	건설업	16.6
	광업	1.7
3차 산업	유통업	10.1
	공공행정	34.4
미 분류		15.3

자료: ILO. ILOSTAT Database. 연구진 재구성

나. 지역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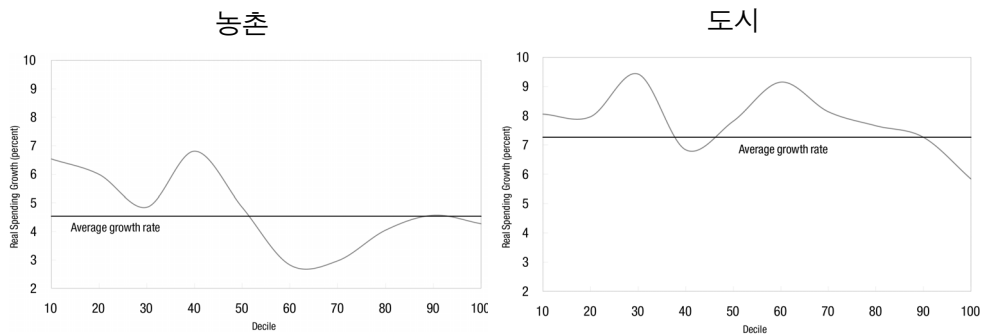
알제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가시적이지는 않다. [그림 2-5]은 알제리 전체가구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 0.34에서 2011년 0.31로 소폭 하락하여 10년간 소득불평등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을 수치로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를 지니계수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농촌가구의 지니계수는 0.37로 도시가구의 0.18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도시가구 보다 농촌가구 간 소득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장곡선(Growth Incidence Curve)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농촌가구 소비가 평균 4.5% 증가한 반면, 도시가구 소비는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 소득불균형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의료 및 교육 관련 국민 1인당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편성한 것을 상기해볼 때, 정부 투자확대의 최종 수혜자가 농촌가구 보다는 도시가구에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2-5] 알제리의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경제 전체 기준)



자료: IMF. 2014. IMF Country Report For Algeria. Report No.14/32

[그림 2-6] 알제리의 성장 곡선(Growth Incidence Curve)(2000-2011)



자료: IMF. 2014. IMF Country Report For Algeria. Report No.14/32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1. 개발환경

가. 사회개발 측면

알제리의 기초사회 개발환경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나타낸다.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통해 알아본 결과, 빈곤선 이하 인구 및 기아 인구비율이 5% 이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률은 99.1%로 대부분의 학년의 아동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 평등과 관련한 지수별 값도 북아프리카 평균값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평균값 대비 상당히 앞서고 있다. 모성 및 아동 사망률과 같은 보건 관련 지표도 상당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완화된 것과는 달리 안전한 식수로의 접근 가능인구가 93.9%(‘90)에서 83.9%(‘12)로 줄어들었고 전체 토지 대비 산림면적 비율이 소폭 하락하는 등 환경보전과 관련한 움직임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표 2-9> 알제리 MDG 달성 현황

지표	목표	진행상황			변동 (%)	북아프리카
		기준	최근	목표		평균값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50% 감축	6.8 (1995)			-	1.4 (2010)
기아 비율	50% 감축	7.7 (1991)	<5 (2013)		-	<5 (2011-13)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초등학교 취학률	초등학교 순취학률 증대	83.4 (1990)	99.1 (2012)	100.0	19	99.0 (2012)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초등학교 등록 남/여 비율	초등(1학년) 남/여 등록률 불평등 감소	0.84 (1990)	0.94 (2012)	1.00	12	0.96 (2012)

지표	목표	진행상황			변동 (%)	북아프리카 평균값
		기준	최근	목표		
여성고용률	비농업분야 임금노동 중 여성 비율 확대	13.4 (2001)	15.1 (2010)	50.0	13	19.5 (2012)
여성 국회의원 비율	단일 또는 하원 의석 점유율 확대	2.4 (1990)	31.6 (2014)		1217	24.1 (2014)
목표 4: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유아(영아) 사망률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3로 감소	41.1 (1990)	25.2 (2013)	27.4	-46	24 (2013)
목표 5: 산모건강의 증진						
모성사망률	출산 10만 건당 산모 사망률 3/4로 감소	160 (1990)	89 (2013)	120	-44	69 (2013)
피임법 실천률	피임법을 실천하는 15-49세 여성 비율 확대	50.9 (1992)	61.4 (2006)		21	62.8 (2012)
산전관리율	4회 이상 산전 관리를 받은 15-49세 여성 비율 확대	-	-		-	11.8 (2012)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HIV/AIDS 발병률	15-49세 감염률 감소	-	-		-	0.01 (2012)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산림면적 비율	산림 손실 복원하여 산림면적 비율 확대	0.7 (1990)	0.6 (2010)		-10	1.4 (2010)
안전식수 접근율	식수 접근권이 없는 인구 비율 50% 감축	93.9 (1990)	83.9 (2012)	96.95	-11	92.0 (2012)
위생시설 접근율	위생시설 접근권 없는 인구 비율 50% 감축	88.6 (1990)	95.2 (2012)	94.3	8	91.0 (2012)
빈민가 거주율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감축	-	-		-	13.3 (2012)

주: 진행상황의 목표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 숫자는 년도를 말함

자료: UN Statistics Division. 2014.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Algeria".

UNDP가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서 알제리는 전체 187개국 중 93위(13)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평균 HDI는 0.509점이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세로 2013년에는 0.717점을 기록하는 등 발전을 보였다.

북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알제리는 튀니지와 함께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국가(High Human Development)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평균 교육연수 및 기대교육연수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대교육연수의 경우, HDI 상위 50개국 평균인 13.4년보다 0.6년 높은 14년으로 기초교육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0> 알제리 및 역내 국가평균 인간개발지수(HDI)

국가	발전 정도*	HDI	순위 (전년대비 변동)	기대수명 (2012)	기대 교육연수 (2012)	평균 교육연수 (2012)	1인당 GNI (2012)
튀니지	HHD	0.721	90(+2)	75.9	14.6	6.5	10,440
알제리	HHD	0.717	93(0)	71	14	7.6	12,555
모로코	MHD	0.617	129(0)	70.9	11.6	4.4	6,905
아랍국가	MHD	0.682	-	-	11.8	6.3	15,817

주: HDI Index는 발전정도에 따라 VHD(Very High Human Development), HHD(High Human Development), MHD(Medium Human Development), LHD(Low Human Development)로 분류

자료: UNDP. 2014.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 Sustaining Human Progress: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1) 교육

알제리의 기초교육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MDGs의 교육관련 목표인 초등학교 순취학률은 기준대비 19% 향상하여 2012년 99.1%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등록률이 2%(‘99)에서 79%(‘12)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는 등 알제리는 유아 및 아동 대부분이 기초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교육지수(EFA¹³⁾ Development Index, EDI)로 본 알제리의 교육현황은 전체 209개국 중 84위로 모로코 보다는 근소하게 앞서있으나 튀니지 보다는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3개 국가 비교 시, 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성인 문해율 부분으로 15세 이상 성인 문해율이 튀니지의 경우 8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알제리 73%, 모로코

13) EFA(만인교육)는 Education For All의 약자로 2015년까지 어린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까지 교육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 국제적 운동이다.

67%로 나타났다. 알제리와 튀니지의 15-24세 문해율이 92%로 같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24세 이상의 성인 문자 해독능력이 알제리의 경우 근소하게 뒤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모로코와 비교할 때 초등학교 순 입학률은 근소하게 높으나 5학년까지의 유지비율은 낮으므로, 초등교육 입학에서부터 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학습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의 교육능력 향상이 일어날 것이라 보인다.

〈표 2-11〉 알제리의 UNESCO 교육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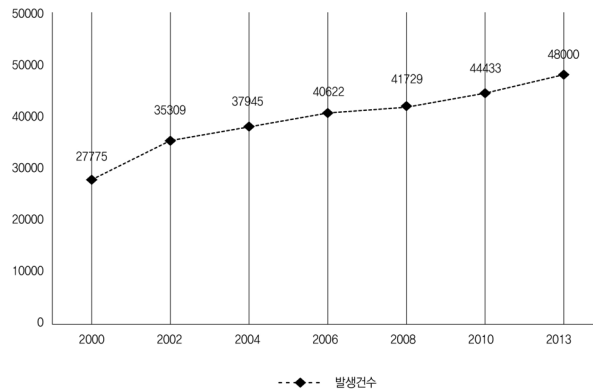
국가	EDI 순위	EDI 점수	초등학교 순 입학률(ANER)	성인 문해율	성평등지수(GEI)	초등학생 중 5학년까지의 유지비율
튀니지	75	0.919	0.999	0.979	0.916	0.962
알제리	84	0.886	0.991	0.726	0.897	0.928
모로코	86	0.864	0.987	0.671	0.856	0.941

자료: UNESCO. 2015. "UNESCO Global Monitoring Reports 2015"

2) 보건 및 식수·위생

MDGs 지표로 본 알제리의 기초보건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25.2%(‘13)으로 북아프리카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낮았지만, 애초 목표하였던 27.4%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사망률의 경우도 10만 건당 89건으로 목표인 120건을 달성하며 상당부분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15-49세 여성의 피임 실천비율은 기준점보다 21% 높아진 61.4%를 나타냄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그림 2-7] 알제리 최근 암 발생 추이



자료: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2014. "Plan National Cancer 2015-2019". Alger: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학적 변천이 일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문제가 알제리 안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 10만 명당 80건에 불과했던 암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 동일 기준 대비 120건으로 총 48,000건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은 폐암이 18%, 직장암 15.7%으로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주로 유방암과(40.45%) 자궁경부암(1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알제리 보건부에서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매년 5월 31일로 제정된 세계 담배의 날(World No Tobacco Day)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

<표 2-12> 알제리 공공 보건·의료시설 현황

(기준: 2011년)

	구분	개수	보유 병상	의사	약사
1차	지역보건소(EPSP)	272	-	15,300	19,349
	의원	1,616			
	진료소	5,810			
2차	공공병원(EPH, EH)	198	45,000	16,950	38,620
3차	종합병원(CHU)	14	14,000	15,000	15,609

자료: 알제리 보건부 홈페이지

알제리의 보건·의료 인프라 및 인력 현황을 보면, 지역 보건소를 포함한 1차 의료 시설이 7,698개, 2차 공공병원 198개, 3차 종합병원이 14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은 약 230개, 의료 인력은 약 27,000명이 종사 중이다. 이로써 알제리 전역에서 의사 1명 당 600명 이내 환자를 담당하고 각 지역 주민은 15분 이내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지역간 병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행 중이다.¹⁴⁾

3) 성 평등

알제리는 여성을 위한 정치·사회활동 환경이 아랍국가 대비 양호한 편이다. 성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로 살펴본 결과, 알제리는 0.425를 기록하여 아랍국가 평균인 0.545 대비 높게 나타나, 여권 신장 면에서 여타 중동국가에 비해 알제리가 나은 환경을 갖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여성 국회의석 수가 아랍국가 평균인 13.8%보다 높은 25.8%를 기록하여 알제리 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상당히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 2-8]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듯이 알제리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타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들보다 불어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이 활발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 전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조하고,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30.8%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공식경제(지하경제)에서 활동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이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겨냥한 노동시장정책 개선, 신용대출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4)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2014. "Plan National Cancer 2015-2019". Alger: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표 2-13〉 아랍 주요국가의 GII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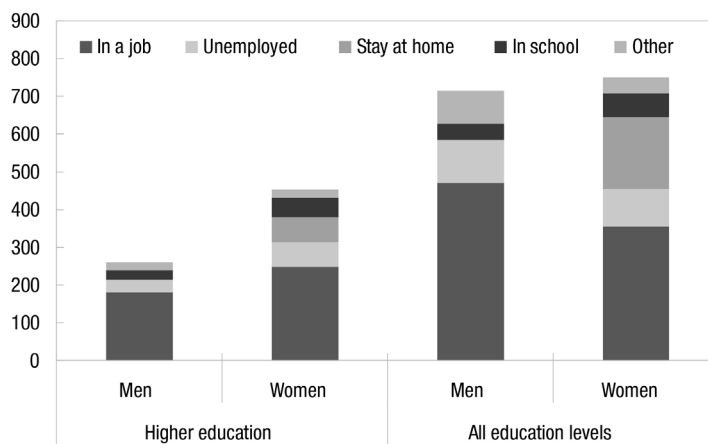
(단위: %)

국가	GII 지수 (순위)	모성 사망률	조산율	여성의 국회의석수	중등교육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알제리	0.425(81)	97.0	10.0	25.8	20.9	27.3	15.0	71.9
아랍국가	0.545	164.0	43.9	13.8	33.9	46.7	24.7	73.2

자료: UNDP. 2014.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 Sustaining Human Progress: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그림 2-8] 알제리의 교육 수준별 졸업자(2006-2010) 취업 현황(2011)

(단위: 천명)



자료: IMF. 2014. IMF Country Report For Algeria. Report No.14/32

나. 정치적 측면

개발협력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일 것이다. 대상지역이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최대 주범은 정정불안으로, 독립(1950년대 말 또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던 해(연도)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정치 혼란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한번 권력을 잡은 세력은 부패한 독재정권으로 변모했고, 이에 불

만을 품은 다른 세력은 독재정권 타도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원조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이다.

알제리는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인근 국가인 튀니지와 리비아, 이집트에서는 민주화 열풍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정권이 붕괴되며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했지만, 알제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튀니지 노점상의 분신이 기폭제가 되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아랍의 봄’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알제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¹⁵⁾

돌이켜 보면,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의 132년간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군부 쿠데타, 사회주의 체제 경험, 자본주의로의 전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등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다가 1999년 부테플리카 대통령(현)의 집권을 계기로 안정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군부 장악과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 국정을 공고하게 다져나갔다.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겸임하면서 지역 사령관들을 젊은 세대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기득권 군부세력을 제압했다. 또한 종교에 기반한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활동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이슬람 종교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막았다. 반대 세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 역시 국가적 안정이었기 때문에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강압적 통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고유가에 따른 알제리 경제의 호황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호재로 작용했다.

집권 10년차인 2009년 실시된 대선에서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예상대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함으로써 2014년까지 권좌를 지켰다. 이는 전통적 여당인 '민족

15) 알제리와 인접해 있는 모로코는 ‘아랍의 봄’ 이후 국민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2011.7) 했다.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999년 즉위 이후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아랍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민주체제를 갖추었으나,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의 영향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권력 분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방전선(NLF)'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알제리 의회가 2008년 11월 헌법의 대통령 연임제한 조항을 폐지하면서 부테플리카에게 3선 연임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국내 정치세력을 규합하는데 성공했고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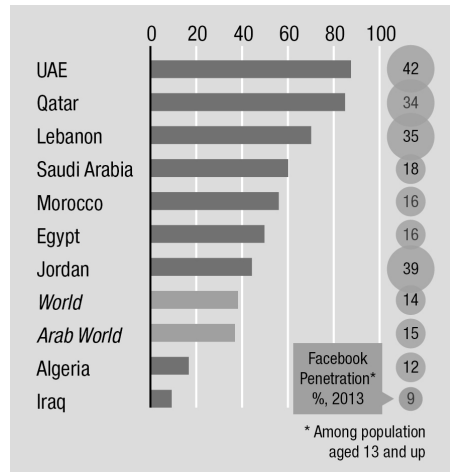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릴 수 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 개헌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였다는 점은 비민주적인 태도로 정치발전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발전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당분간 지속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2014년 4월 실시된 대선에서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80%가 넘는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함으로써 2019년까지 권좌를 지키게 되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에게 맞설만한 거물급 야권 인물이 없는데다가 유권자 대다수가 개혁보다는 안정을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아랍의 봄’이라는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유독 알제리에서 장기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내전¹⁶⁾의 상흔(trauma)이 아물지 않은 알제리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성을 들 수 있다. 아래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제리의 인터넷 보급률은 17% 정도로 MENA(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하위이며, 페이스북 북 사용인구 비율 역시 1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16) 1992년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인 이슬람구국전선(FIS)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군부가 나서 선거를 무효화 시켰는데, 이로 인해 군부와 이슬람 반군 간의 내전이 발생하여 15만~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내전은 이슬람 세력이 항복하면서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소규모의 싸움이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림 2-9] 알제리의 인터넷 보급률

(단위: %, 기준: 2013년)



자료: The Economist. 2015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정치적 안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안정적 모습의 이면에는 잠재적 불안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과거 고위급 군(軍) 인사들이 지방에서는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알제리 정치에 있어 가장 큰 변수인 이슬람 근본주의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의 정국 상황에서는 군부와 이슬람 세력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세력화할 수 있다. 알제리의 강경 무장조직인 '살라피스트 선교전투그룹(GSPC)'은 2006년 '이슬람 북아프리카 알카에다(AQIM)'를 출범시킨 이후 알제리 등지에서 여러 차례 테러를 감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1월 알제리 동남부 인아메나스(In Amenas)에서는 이슬람 무장 세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여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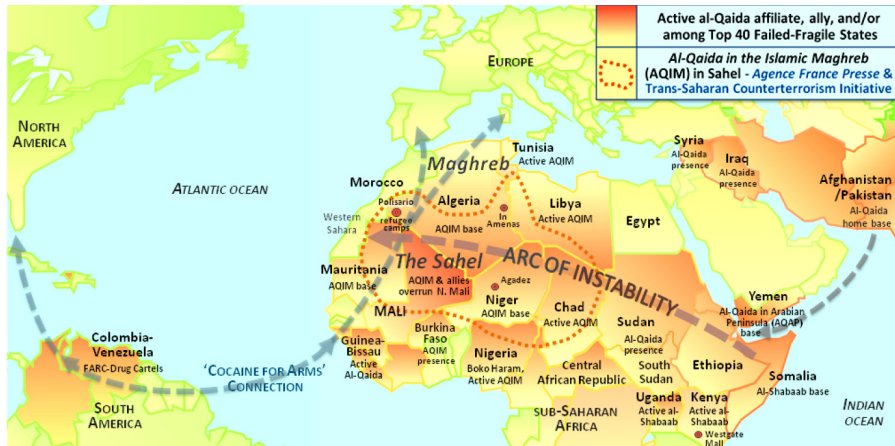
2001년 9.11 사태 이후 마그레브와 사헬지역이 새로운 테러지역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알제리에서 가장 많은 테러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14〉 알제리의 정치 상황

정치적 특성	☐ '개방적' 사회주의 체제(알제리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 '국민국가' 형성 미진 ☐ 장기 집권(부테플리카 대통령) - 1999년-현재 - 5년 임기의 대통령 중심제 - 측근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미혼)의 '청렴도' 각인 - 고유가에 따른 경제호황이 현 정권에 대한 높은 지지로 연결 - 국민들의 정치안정 추구 성향이 강함 ☐ 대통령 직선제, 복수 정당제 등으로 '절차상' 민주주의 실현 ☐ 양원제 - 5년 임기의 하원 462명, 6년 임기의 상원 144명 ☐ 주요 정당(2012.5 하원 선거 기준) - 국민해방전선(FLN, 208석), 국민민주당(RND, 68석), - 녹색알제리동맹(AAV, 46석) ☐ 의회 여성의원 31%(145명) 이상으로 아랍권 최고 ☐ 사회주의 잔재에 의한 경직된 관료주의 만연
불안정성	☐ 물가인상, 주택난, 고실업 등 민생고로 산발적인 시위 발생 ☐ 장기 독재체제(1999년-현재)에 대한 불만 고조 - 2008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 부정선거 논란 ☐ 77세의 노쇠한 대통령으로 건강 악화 - 2013년 4월 뇌졸중으로 프랑스 병원에 입원 ☐ 인구 20%의 베르베르족(아마지그)의 반정부 성향 ☐ 석유 중심 공공부문 주도의 비효율적인 경제구조 ☐ 고실업 및 부의 편중 - 실질 실업률 20%대(인구 70%가 30세 이하) - 1인당 GDP는 7,800달러(PPP 기준, 명목기준으로는 5,670달러)이나 빈부격차 심화 ☐ 테러리즘 - 2013년 1월 인아메나스(In Amenas) 가스복합시설에 대한 테러 - 테러의 새로운 거점지역인 사헬지역과 접경해 있어 테러 세력 침투 가능성 ☐ 서사하라 분리 독립을 둘러싼 모로코와의 갈등 관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10] 아프리카 마그레브 및 사헬지역: 새로운 테러분쟁 지역



자료: Yonah Alexander. 2014. "Terrorism in North Africa and the Sahel in 2013" Virginia: Inter-University Center for Terrorism Studies

[그림 2-11] 9.11 사태 이후 마그레브 및 사헬지역의 테러 발생 건수

TIMELINE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NORTH & WEST/CENTRAL AFRICA NATIONS	Totals: 1,662 attacks	21 attacks	55 attacks	31 attacks	44 attacks	104 attacks	153 attacks	161 attacks	152 attacks	204 attacks	178 attacks	185 attacks	144 attacks	230 attacks
ALGERIA	1,285 attacks	20	54	28	39	93	120	110	121	185	168	164	132	51
CHAD	58 attacks				3	6	28	14	6		1			
LIBYA	152 attack						1						6	145
MALI	70 attacks			1	1	2	3	10	11	9	4	8	5	16
MAURITANIA	27 attacks				1	3		4	4	6	2	7		
MOROCCO	9 attacks			2				5				2		
NIGER	40 attacks						1	18	9	4	3	3	1	1
TUNISIA	21 attacks	1	1						1			1		17

자료: Yonah Alexander. 2014. "Terrorism in North Africa and the Sahel in 2013" Virginia: Inter-University Center for Terrorism Studies

건강도 주요 변수이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고령(77세)에다가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어서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05년 출혈성 궤장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프랑스 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병원에서 퇴원하여 귀국은 했지만, 노동절 및 알제리 FA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는 등 국정 수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4월 실시된 대선 직후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베르베르족의 카빌리, 오레스, 음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대도시 지역의 대학생, 경찰 및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까지도 가세했다.

그러나 현재의 알제리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정부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경제적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알제리의 정치변동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이나 투자 활동에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권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집권세력이 바뀌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적 혼란이나 무력적 방식을 통한 정권변동이라면 개발협력이든 투자든 활동 그 자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다. 경제 · 산업적 측면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살펴본 알제리 경제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1990년대 말부터 내전 종식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산업생산과 국민소득이 꾸준히 늘어났고, 환율 및 인플레이션도 정부의 적절한 통제 하에 안정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고유가 속에서 석유 부문의 수출호조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크게 늘면서 외환보유고도 크게 증가하였다¹⁷⁾. 또한 늘어난 외환을 통해 대외부채 상황도 잘 이루어져 2013년 말 기준 대외부채가 GDP의 3.9% 밖에 안 되는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안정의 배경에는 고유가가 큰 몫을 했다.

17)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2000년 당시 10개월 치 수입분에서 2013년에는 34개월 치 수입분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2-15〉 알제리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특징

경제 지표	평가	주요 내용
재정 수지	양호	□ 재정지출확대 정책(2011-2012년)에서 2013년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전환(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축소) □ 이에 따라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폭이 감소(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2012년 5% → 2013년 1.5%) □ 2014년에는 다시 재정지출 확대로 전환 - 석유수출 감소로 세수 증가가 미진한 가운데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2014년 7.0% → 2015년 9.5%) □ 석유 안정 기금 - GDP의 31.6%(2013년 말)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기 시작(2015년에는 20% 수준으로 감소 전망) □ 정부 부채(GDP 대비 %) - 2012년 9.9% → 2013년 8.9% → 2014년 8.3%
통화	양호	□ 대외순외화자산(NFA) 증가율 둔화(2012년 7.4%→2013년 1.9%)로 통화(broad money) 증가율이 둔화(2012년 10.9% → 2013년 8.4%) □ 2014년에는 신용확대 및 정부의 중앙은행 예치금 감소로 통화량 증가(14.5%)
인플레이	양호	□ 재정지출 축소, 긴축통화 정책, 수입 식료품 가격하락 등에 힘입어 중앙정부의 목표치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 유지 - 2012년 8.9%, 2013년 3.3%, 2014년 3.2%
실업	심각	□ 높은 수준의 실업률 - 정부공식 실업률은 9.8%이나 실제로는 이를 크게 상회(20-30%) - 젊은이 및 여성의 높은 실업률 □ 사회불안의 잠재적 요인 - 전체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인 알제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외로 불법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대외 부문	양호	□ 유가 하락 및 석유 수출물량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 경상수지(GDP 대비 %): 2012년 5.9% → 2013년 0.3% → 2014년 -0.9% □ FDI는 GDP의 1% 미만으로 미약 □ 외환보유고: 2013년 말 기준 1,940억 달러(34개월 수입분) □ 대외부채: 2013년 말 기준 GDP의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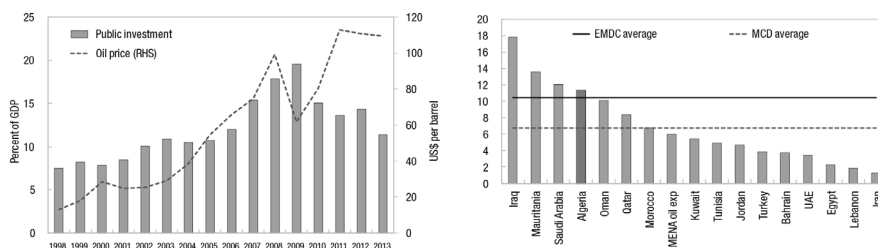
자료: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진 작성

그러나 알제리 경제는 아래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투자(hydrocarbon-financed large public spending)’¹⁸⁾에 기반을 두고 있

18) 석유와 천연가스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자원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자원수출에 따른 수입(收入)이 알제리 정부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어,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석유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노컬처(monoculture)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알제리 경제는 그 동안 고유가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2000년 당시 GDP 대비 공공투자 비중이 7.8%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고유가 기조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그 비중이 19.5%에 달했다. 이후 경상지출 확대로 자본지출(공공투자)이 줄어들었으나, 신흥 및 개도국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알제리의 열악한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지속적인 공공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림 2-12] 알제리의 공공투자와 국제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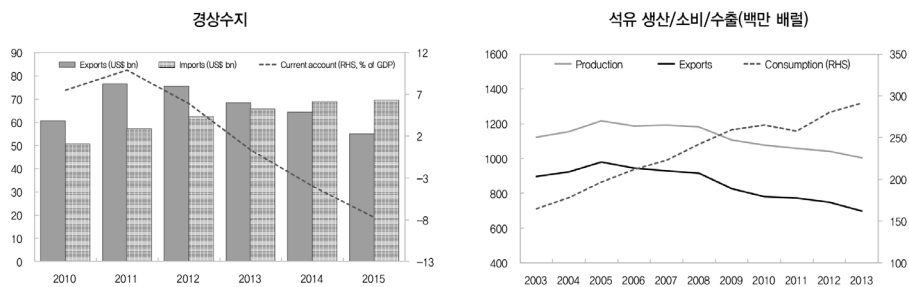
자료: IMF. 2014.12. Algeria: 2014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14/341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알제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알제리는 다른 개도국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자원 이외에는 내세울만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유가하락에 따른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알제리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주지한 바와 같이,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침체(특히 유럽),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셰일(shale) 가스 개발 붐 등 대외 여건변화로 향후 알제리 경제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적으로 경상수지 악화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알제리는 석유 수출호조에 힘입어 줄곧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국내 석유생산 감소, 국내 석유수요 확대, 석유수출물량 감소 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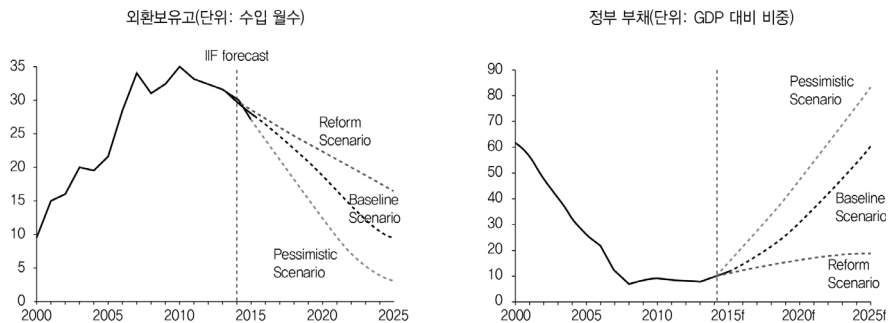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고도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 당시 10개월분에 해당하던 외환보유액이 2013년에는 34개월분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¹⁹⁾,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²⁰⁾을 흡수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 부채의 급격한 확대도 예상되고 있는데, 2000년 당시 GDP 대비 60%를 상회했던 정부 부채 규모가 2012년 9.9%, 2013년 8.9%로 떨어졌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 알제리의 경상수지 및 석유 수출



자료: IMF. 2014.12. Algeria: 2014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14/341

[그림 2-14] 알제리의 외환보유고 및 정부 부채 전망



자료: Audiguier, Cindy, and Garbis Iradian. 2014. "Algeria: Time for Change". Washington D.C.: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19) 2013년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1,94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단기외채 대비 4,5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 2008년 9월 발생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경제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을 모색하고 있는 알제리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육성 등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많으며 많은 세월이 걸릴 공산이 크다. 현재로서는 에너지 산업 이외에 외국자본의 투자실적은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 관료주의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알제리 투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알제리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금융 환경 등 수많은 요인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데에만 평균 6개월(다른 많은 개도국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 소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알제리 투자청에서 사업허가권을 발급받기까지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계약체결 양식 또한 국제표준 양식이 아닌 알제리 자체 양식을 사용하여 사업허가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²¹⁾ 물론 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알제리 관료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낙후성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알제리의 인허가, 비즈니스 관련 행정 시스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15] 알제리의 사업 환경 및 FDI 유입



자료: Audiguier, Cindy. and Garbis Iradian. 2014. "Algeria: Time for Change". Washington D.C.: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21) 국영기업인 소나트راك만 영문 서류를 허용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불문 서류만을 허용하여 사업허가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한다.

<표 2-16> 마그레브 3국간의 투자환경 비교

주제	세부항목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비고
기업 설립	필요 절차 수	13	5	10	사우디의 경우 4일
	설립 절차 당 소요시간(일)	22 ²²⁾	11	11	
	설립 절차 비용 (1인당 국민소득 대비, %)	11	9.2	4.2	
	설립 최소 비용 (1인당 국민소득 대비, %)	24.1 ²³⁾	0	0	
부동산 등기 관련	필요 절차 수	10	8	4	
	소요 시간(일)	55	40	39	
	부동산가격 대비 등기비용 (%, 수치가 클수록 고비용)	7.1	5.9	6.1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 지수(0-10) (수치가 클수록 투자자 보호 충실)	4.5	4.6	5.5	사우디의 경우 5.8
계약 이행 (법)	필요 절차 수	45	40	39	
	소요 시간(일) ²⁴⁾	630	510	565	
	절차 이행 비용 (소송비용 대비, %)	21.9	25.2	21.8	
파산	파산 시 신용회복 기간(년)	2.5	3.5	1.3	

자료: World Bank. 2013. "Doing Business 2014: Country Profile Algeria". Washington DC: World Bank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또 다른 문제점이자 외국 투자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및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주의(1965-1989년) 유산으로 현재 알제리 기업 중 국영기업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정부의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더욱이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층과 노조의 반발이 커서 민영화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

22) 알제리는 절차 당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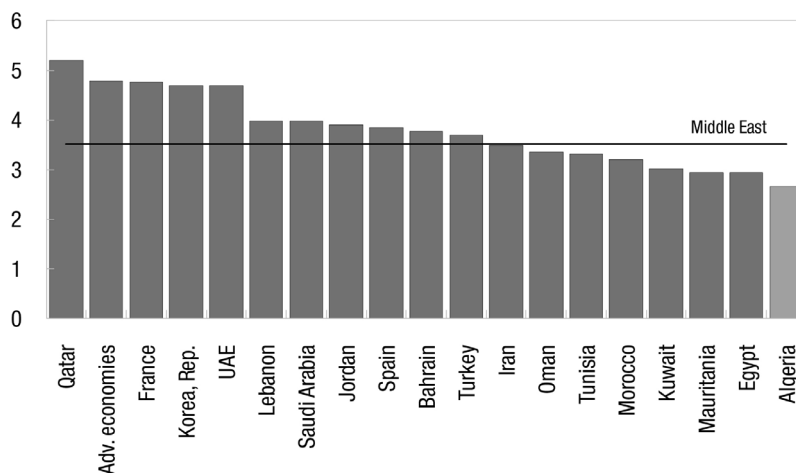
23) 마그레브 3국 중 유일하게 알제리에 기업 설립 시 최소 비용이 존재한다.

24) 알제리에서 계약이행을 위한 법정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고 있다. 비효율적인 생산성, 열악한 금융시스템 등과 같은 점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알제리 기업들의 혁신능력(capacity for innovation)은 MENA 지역 내에서도 가장 뒤쳐져 있다는 평가이다. 민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열악한 금융환경 등 제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제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경제여건이 비슷한 다른 개도국들에게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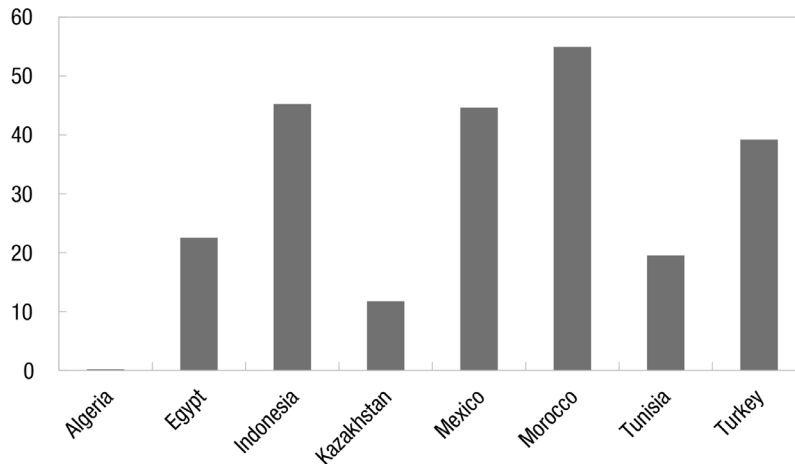
[그림 2-16] 알제리 기업의 혁신능력



자료: Collyns, Charles et al. 2014. "After the Fall: Consequences of Lower Oil Prices". Washington D.C.: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그림 2-17] 알제리의 주식시장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단위: GDP 대비 비중, 기준: 2012년)



자료: Collyns, Charles et al. 2014. "After the Fall: Consequences of Lower Oil Prices". Washington D.C.: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인프라 환경 역시 열악하다. 기본적으로 알제리는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위주가 아닌 원유·가스를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의 수출을 위한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에 대해서는 큰 투자가 이루어지 못했다. 다만, 최근 들어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고,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인프라 개발 붐이 광범위하게 불고 있다.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외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 부정부패²⁵⁾, 숙련 노동자의 절대적 부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산인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등이 투자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알제리 일간지(Liberté)는 “알제리 투자에 대한 10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외국인이 알제리 투자를 가로 막는 10가지의 장애요인을 정리하여 보도한 바 있다.

25) 알제리의 부패수준은 MENA 평균은 물론 인근 모로코와 튀니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상자 2-1] 알제리 투자에 대한 10가지 진실

- ① 투자여건의 미비: 알제리는 투자대상 시장으로서의 매력력이 적어 외국 기업들은 직접투자가 아닌 단순 교역을 통해 알제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② 알제리는 임금수준, 노동의 질, 시장 규모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나 인도에 뒤지고 있어 투자의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음.
- ③ 산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외국기업은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④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주의 관료체제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⑤ 알제리 시장의 불투명성: 무서류 거래, 불공정경쟁, 비공식 경제의 존재, 뇌물 등의 요소가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⑥ 가시성(visibility)의 부재: 부실한 통계자료 등으로 인해 알제리 시장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⑦ 협소한 알제리 시장규모: 신흥 개도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협소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그레브 통합이나 아프리카 주변국과의 FTA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⑧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재: 현지 사업파트너에 대한 정보입수가 용이하지 않고, 국내기업 수도 절대적으로 적어 외국기업이 현지 파트너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⑨ 금융시스템의 낙후
- ⑩ 해외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활동의 미흡

자료: 박영호 외, 2007, 「알제리의 주요 산업: 석유/가스/IT/석유화학/플랜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7-05

라. 문화적 측면

알제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이슬람 문화, 프랑스 식민지 경험, 사회주의 관습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알제리를 두고 흔히 3개의 정체성(identity)이 있다고 한다. 즉, 육체에 비유하며 두 다리(지리적 위치)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가슴(정신세계)은 이슬람에 묻혀 있고, 머리(이상)는 프랑스(구 식민종국) 등 유럽을 꿈꾸고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필자는 한국대표 사절단에 포함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알제리를 방문한 바 있는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알제리의 특수성(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바 있다.

알제리에서 한국과 같은 외국인이 겪게 되는 일차적인 사회, 문화적 어려움은 역시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라마단 기간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업무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문화에 대한 많은 차이로 튼튼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쉽지 않다.

[글상자 2-2] 알제리의 사회·문화적 특징

- 프랑스, 이슬람, 지중해 3개 문화의 융합과 사회주의 유산
-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
 - ※ 다리(육체): 아프리카
 - ※ 가슴(정서): 중동(이슬람)
 - ※ 머리(정신, 이상): 유럽
- 132년간의 식민지 관계로 프랑스와 애증관계
 - ※ 알제리 대부분의 우수인력: 프랑스를 포함하여 해외활동(프랑스에만 200만 명)
- 지중해성의 혼화한 기후 영향으로 남부 유럽 문화 형성
 - ※ 와인, 평등의식, 여유, 친절성
- 인살라 문화 팽배
 - *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려있다는 인살라 관습으로 매사에 느긋
 - * 대부분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 정부 관료의 사업관리와 기획능력이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행정처리

자료: 연구진 작성

또 다른 문제는 언어소통이다. 알제리는 아랍어와 불어를 사용하고 있어 영어로의 의사소통은 사실상 어렵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사용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는 있지만, 관공서 공무원들의 영어구사 능력은 다른 중동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편 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문서는 물론 각종 법률들이 모두 불어와 아랍어로 되어 있어 외국기업이 느끼는 언어장벽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영어 구사자가 그리 많지 않다보니 현지 파트너 및 유력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 킹 형성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정보는 통역을 통한 간접방식으로 접 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투자자가 아랍어, 불어 구사 자를 육성 또는 확보하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한국 기업에는 이러한 인 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언어적 문제는 또 다른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사회, 문화적 부분의 또 다른 걸림돌은 사회주의적 사고방식 및 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중심의 운영체제로 인해 노동시장 및 기업 운영 자유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4년 기준 알제리의 국가 경제자유도 지

수²⁶⁾는 100점 만점 가운데 50.8점으로 MENA지역의 평균(61.5)은 물론 인근 국가인 모로코(58.3), 튀니지(57.3)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표 2-17> 알제리의 경제자유지수

(1996-2014년)

법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열린 시장	
재산권	30.0	재정 자율	38.7	비즈니스의 자유	66.6	무역의 자유	60.8
부패로부터의 자유	36.0	정부 지출	80.0	노동시장의 자유	50.5	투자의 자유	25.0
				화폐정책의 자유	71.2	금융의 자유	30.0

자료: Miller, Terry. and Anthony B. Kim. 2015.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또한 제도적으로 볼 때 알제리는 고용주에 대해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도 높은 사회보장 관련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의 색채가 그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권리보호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여 근로자 해고 시 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집단 해고 시에는 노조와 반드시 협상을 거쳐야만 하는 등 근로자 고용 및 해고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상에서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들에 살펴보았는데, 이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비즈니스 리스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제리의 고유성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여건이 짧은 기간 내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 러시아나 동구 유럽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알제리의 사회적 관행이 서서히 바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알제리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중간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 경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자체적으로 강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6) 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경제자유도 지수는 비즈니스, 교역, 통화 거래, 노동, 정부 관여 수준 등 총 10개 항목의 자유도 수준을 가중 평균하여 지수화 하였다.

27) Miller, Terry. Anthony B. Kim. and R. Holmes. Kim. 2014.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마. 소결

지금까지 알제리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개발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잠재력에 버금가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알제리의 발전 역량은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은 물론 일반 신흥 개도국의 기준에서도 한참 뒤쳐져 있어,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만, 알제리는 한국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발전 잠재력이 다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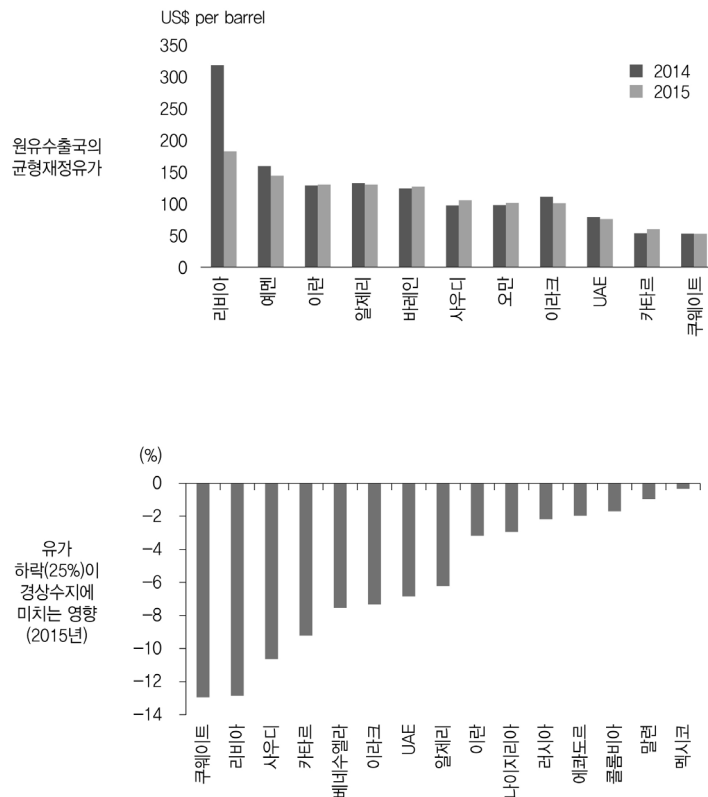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난 2006년 한국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을 계기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시장진출 역사가 짧고 경험이 일천한 우리 기업에게 있어 알제리의 낙후된 국가경영(행정)시스템이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했다. 정책 및 제도의 잦은 변경, 자의적인 법 해석 등 정책의 불투명성애다가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나친 관료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투자진출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2005년에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석유법을 개정하더니, 그 다음해인 2006년에는 이를 무효화하면서 기존 계약 분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은 알제리의 낙후성을 잘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알제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 중 상당부분은 이 나라 고유의 문화내지는 우리의 경험 또는 이해의 부족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지난 1970-80년대 우리기업이 중동 붐을 일으켰던 점을 상기하면, 알제리 또는 이슬람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효과를 축적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알제리 특유의 사고방식과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경험을 쌓아 간다면 리스크의 많은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알제리의 경제 상황에 급변하고 있어 경제협력 또는 개발협력에 있어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유가 급락으로 석유수출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알제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알제리는 산유국 중에서도 석유의 수출 의존도와 재정수입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석유가 알제리 총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하락은 그 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IMF(2014.12)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수지(GDP 대비 비중)가 2012년

5.9%(흑자)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7%, -8.2%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약 60%)이 석유와 연계되어 있어 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IMF(2014.12) 보고서는 알제리의 재정적자(GDP 대비 비중) 폭이 2013년 1.5%, 2014년 7.0%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9.5%, 8.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제리는 2014년 ‘균형재정유가’(Fiscal Break-even Prices of Oil)²⁸⁾를 배럴당 130달러로 높게 설정했는데,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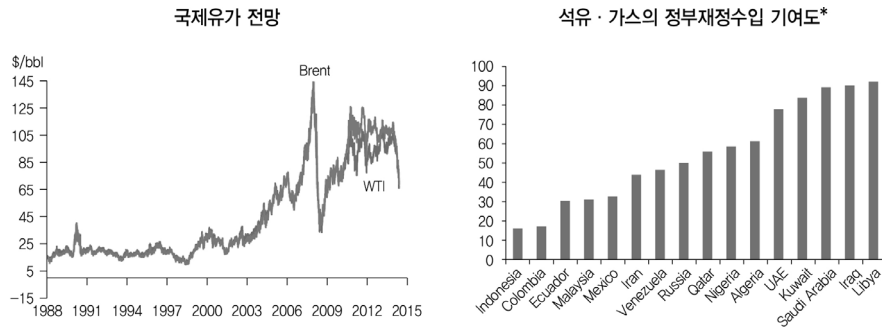
[그림 2-18]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



자료: Collyns(2014) 및 World Bank Group(2015) 바탕으로 연
구진 재구성

28) 균형재정유가는 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유가 수준을 말한다.

[그림 2-19] 국제유가 전망 및 석유·가스의 정부재정수입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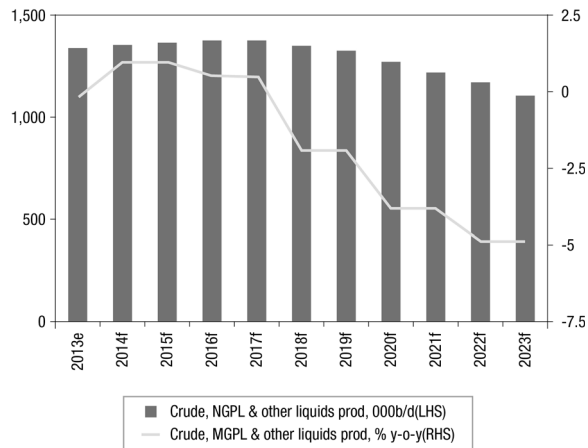
주: 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Audiguier, Cindy. and Garbis Iradian. 2014. "Algeria: Time for Change".
Washington D.C.: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한편, 이처럼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보니 유가하락으로 인한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알제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해 놓고 있고, 외채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1,940억 달러로 현재(2015년 초) 디폴트가 우려되고 있는 베네수엘라(215억 달러)의 9배를 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알제리의 총 외채 규모는 34억 달러로 베네수엘라(1,245억 달러)의 1/37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알제리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공공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투자 및 소비) 침체와 저성장 기조로 돌입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투자 여력의 위축으로 신도시 및 SOC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며, 석유생산 역시 유가 하락과 함께 맞물리면서 [그림 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한 위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알제리는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기초경제여건이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디폴트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0] 알제리의 석유생산 전망



자료: BMI Research. 2015. "Middle East & Africa Oil and Gas". London: BMI Research.

<표 2-18> 알제리의 외환보유고 및 외채 규모

	2012	2013	2014	2015	2016
외환보유고 (10억 달러)	190.7	194.0	187.6	172.6	157.1
외환보유고 (수입 월수)	34.8	33.7	32.3	28.3	25.4
총외채 (10억 달러)	3.6	3.4	4.0	3.2	2.5

자료: IMF. 2014.12. Algeria: 2014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14/341

2. 분야별 개발과제

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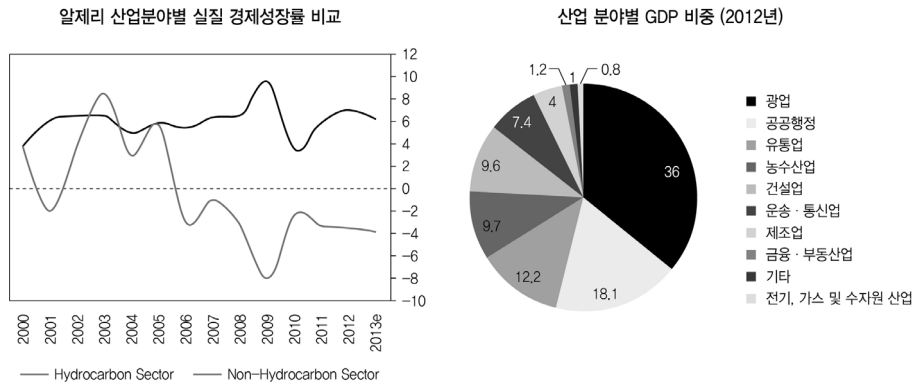
알제리의 산업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사업구조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 부문의 발전이 미진한 상황이다. 1990년대 내전 이후 정부는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민간 부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사실 알제리는 정부 주도로 1962년 독립 이후 산업다각화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고수해왔다. 석유 수출로 인한 재정수입을 대부분 건설 기자재 및 기계와 같은 중공업 발전에 투자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1980년 석유 파동 이후 주요 국영기업들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관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 부문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다수의 국영기업들이 해체되거나 민영화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농산물, 전자, 기계와 같은 비석유 상품 수입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인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산업다각화가 정부의 주요 현안과제로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탈석유 산업 활성화 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²⁹⁾ 또한 그 동안 고수해온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에서 탈피하여 제조업을 통한 수출산업 진흥에 역점을 두고자 외국인투자법을 정비하게 된다.³⁰⁾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와 비교(GDP 대비 18%)하여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13년, 약 5%). 이와 같이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다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탈석유 산업 발전, 민간 부문 육성, 산업인력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9) EU Commission이 진행한 MEDA II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00만 유로가 알제리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시장 개척에 투입되었으며, 새로운 5개년 개발계획에 중소기업 육성이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가족소유 경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를 모델로 삼아 2014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배출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이다.

30)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그림 2-21] 알제리 산업분야별 실질 경제성장률 비교 및 GDP 비중



자료: BMI Research. 2014. "Algeria Agribusiness Report". London: BMI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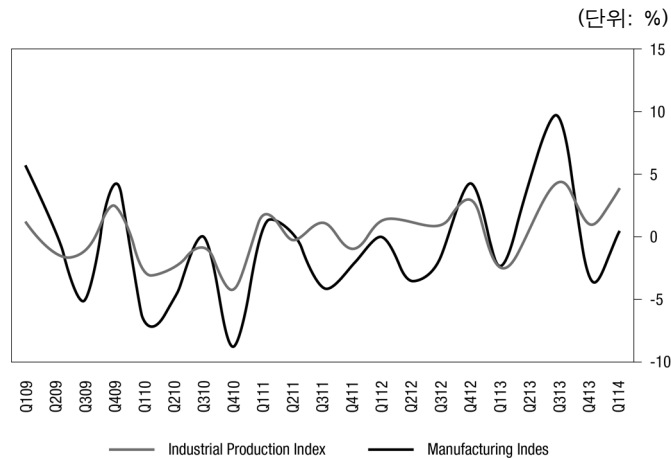
1) 탈석유 산업 발전

우선 제조업 부문을 보면 주변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³¹⁾ 원유에 의존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발달은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며, 그 성장세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평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전체 산업성장률 대비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³²⁾ 알제리의 주요 제조 품목은 식음료, 담배, 섬유, 의류 등으로 경공업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자동차, 의약품 산업의 국내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아직 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농공업의 경우 생산량 증진을 위한 농시설, 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와 제약 산업의 경우 수입억제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1)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알제리는 4%인 반면, 모로코는 13%, 튀니지는 17%를 차지하고 있다.

32) Trading Economics. Algeria Industrial Production

[그림 2-22] 알제리 산업성장률 변동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Algeria Industrial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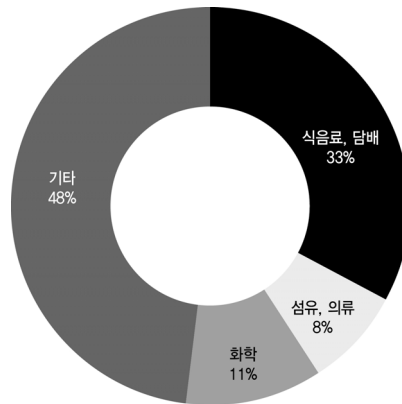
한편 철강, 기계 등 중공업부문은 정부의 집중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독립 이후 석유 판매수익이 급증하자 알제리 정부는 중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철강 산업은 알제리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라 하여 1970년대 철강국영회사인 El Hadjar 설립과 함께 막대한 정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경영부실과 설비관리 미비로 인해 현재 알제리의 철강공장들의 설비가동률은 20%에 머물고 있다.³³⁾ 반면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지속적인 시설 확장에 따라 석유 정제능력이 2008년 320만 bpd에서 2009년 326만 bpd까지 증가하여 2.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이 분야의 아프리카 평균 성장속도를 웃도는 수치이다.³⁴⁾ 가공 터미널 및 플랜트 확장에 따라 석유화학의 하류부문(Downstream)에서 LNG, LPG와 그 외 석유 합성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Arzew 산업단지를 통해 연간 12,000 톤의 인산과 80만 톤의 암모니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잠재성을 활용하여 95%에 달하는 높은 원자재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 상품 생산³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3) Mesteel 홈페이지

34) Oxford Business Group. 2011. "The Report: Algeria 2011".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35)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비석유 부문 수출의 약 2/3(Solvents, naphtha, methanol, helium, fertilizer 등)을 차지한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으로 9.85억 유로 상당을 수출하였다.

[그림 2-23] 알제리의 제조업 상품별 생산 비중



주: 생산금액으로 분류

자료: 알제리 국립통계청 홈페이지.
연구진 재구성

2) 민간부문 육성

알제리 독립 이후 채택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그 중 중소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보다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 시작된 공공부문 개혁 바람과 함께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나, 신용대출 제한 및 투자횟수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1988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알제리 정부는 민간부문 투자제한 조치들을 완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수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발표된 투자 활성화 법안³⁶⁾과 중소기업 육성 법안³⁷⁾에 따라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담당하는 신용보증펀드와 국가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vestissement, CNI)가 개설되게 된다.

민간부문 육성 법안이 통과된 이후 중소기업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그 수가 약 71만 개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180만 개

36) Ordonnance N° 01/03 du 20/08/2001

37) Loi N° 01/18 du 12/12/2001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수치 증가와 함께 인구 1,000명당 중소기업 수를 보여주는 중소기업 집적도도 증가하였다. 2011년 알제리 인구 1,000명 당 중소기업 수는 18.2개이며, 이는 전체 고용율의 약 13.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주변국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현저히 낮아 여전히 발전 여지가 많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아래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바논을 제외한 MENA 지역 내 타 국가들의 중소기업 집적도는 모두 25 이상이며, 주변국 모로코도 알제리보다 17.2가 더 높은 2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업 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아직까지 영세기업(Micro enterprises)이 전체 중소기업의 약 96%를 차지하며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19> MENA 지역 내 국가 간 중소기업 집적도 및 고용률 비교

(기준: 2012년)

구분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인구 1,000명당 중소기업 수	18.2	31.2	30.3	25.6	3.4	25.4	-
중소기업 고용률(%) (전체 고용률 대비)	13.9	31.2	57.8	31	12	21.6	59

주: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마다 다름

자료: OECD. 2014. SME Policy Index: The Mediterranea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14: Implementation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Paris: OECD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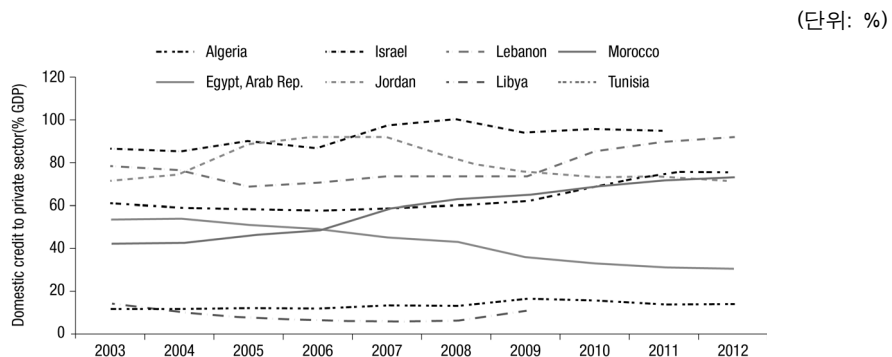
알제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민간 기업 활성화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청년창업가와 영세기업 등 사업대상별로 특화된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20만 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에 지원된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총 비석유 부문에 대한 지원금 대비 44.2%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이 크다. 알제리 기업 중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나, 그 절반이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림 2-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DP 대비 중소기업 대상 국가 담보대출 비율이 알제리는 20% 미만으로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뚜렷한 증가

추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출을 위해 필요한 기업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렵고, 대부분의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낮아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2015년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 내 대출자의 법적 권리가 아랍권 국가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알제리의 청년 사업가들은 개인 연줄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1,000개의 가구당 48개 가구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치인 539개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³⁸⁾

둘째, 열악한 경영환경이다. 공공기관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인해 기관 간 경쟁이 부재하여 경영정보 제공 등 지원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법률·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원화된 포털(Portal)이 부재하여 관련 정보 수집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2-24] 알제리의 전체 신용대출 대비 민간부문 신용대출 비중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8) OECD,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TF, 2014, "SME Policy Index: The Mediterranea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14", Paris: OECD Publishing.

3) 외국인투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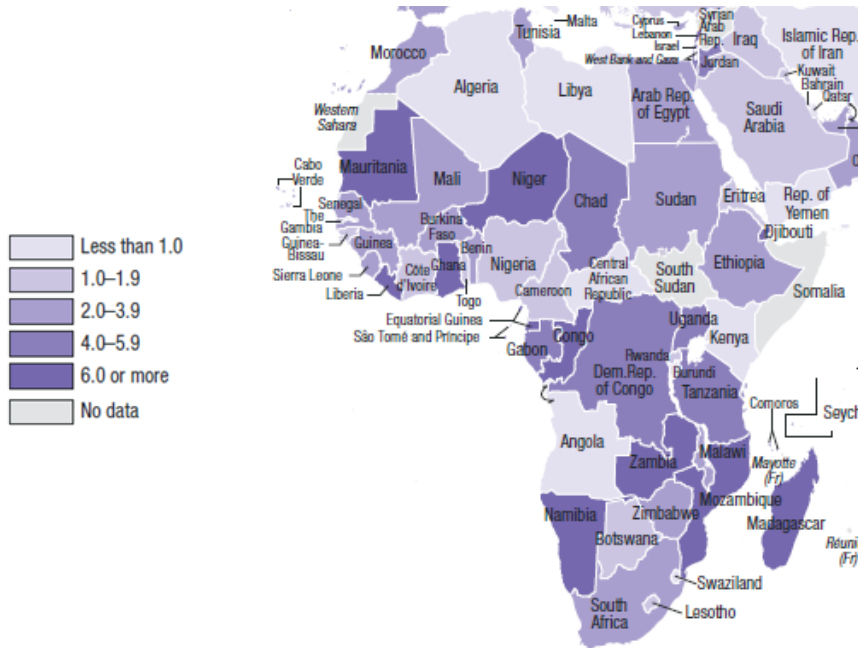
알제리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규모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림 2-25]에서 나타나듯이 아프리카 국가 중 GDP 대비 1% 미만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국가 중 하나가 알제리이다. 물론 알제리 역시 여타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실업난 해소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요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투자 법령 개정, 상호투자협정 체결, 외국기업의 본국송금 자유화, 민영화,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정비를 통해 각종 유인정책을 2000년대 후반까지 발표해왔다. 아울러 그 동안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에서 탈피,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진흥에 역점을 두고 투자 대상 분야도 확대해 왔다. 알제리 정부는 특히, 농공업, 석유화학, 제조업 등과 같이 국영기업 주도로 발전해온 분야의 성장 한계를 인식하고 외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성장을 유도하고자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소개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국내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온 해외투자자들이 그 사업 수익을 국외로 반출시키고 있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비난에 따라 합작투자 시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제한하는 법령을 2009년 발표³⁹⁾하였다. ⁴⁰⁾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줄어들자 정부는 2014년 중반부터 외국인투자유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39)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40) 알제리는 합작투자 법인 설립 시에 외국인은 최대 49%, 현지인은 최소 51%를 갖게 하는 등 외국인 단독으로 알제리에 법인 설립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여 투자에 따른 이익 발생 시 외국인의 과실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받은 혜택만큼의 비율로 수익금에서 재투자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세금혜택 회수 및 과징금이 부과됨으로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2-25] 아프리카 국가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순유입 기준)

(단위: %, 기준: 2013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이와 같은 직접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 외에도 각종 행정 규제와 취약한 금융환경 등 수많은 요인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데만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알제리 투자청에서 사업허가권을 발급받기까지는 서류 제출 후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물론 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알제리 관료제에 따른 것이나 이러한 낙후성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 되어 있는 현상이다.

나. 수송인프라

알제리의 도로, 철도 등 수송인프라는 1990년대 내전을 겪으며 상당수 파괴되었고 남아 있는 인프라마저도 재정상의 이유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2000년대에 지속된 유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인해 인프라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석유 수출 관련 인프라로 물리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 기초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는 한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대비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기초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경제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기초인프라 발전과 연계성이 깊은 광업 및 관광업과 같은 주요 산업분야의 발전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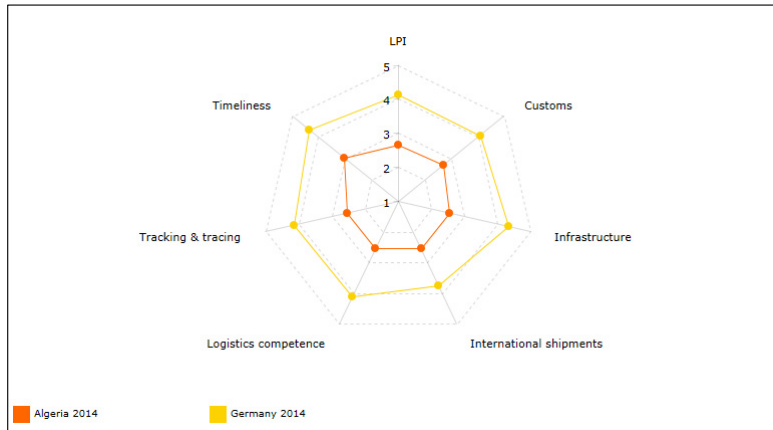
지리적 요인도 수송인프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 면적 대비 대다수의 인구가 해안지대를 따라 펼쳐진 북부 산간지역에 밀집되면서 주요 도시의 도로 연결망 상의 교통 혼잡이 점차 심화되었다. 이 같은 교통 혼잡은 알제리 내 수출입업자들의 항구 접근성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거래 비용도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물리적·금전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극심한 병목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정부의 오랜 해결 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를 위해 알제리 정부는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5년간 약 59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을 수송인프라 부문에 투자하였다.⁴¹⁾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비교하였을 때 알제리의 수송인프라 발전 정도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물류 성과 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제리의 물류인프라 여건은 취약한 기초인프라 수준과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MENA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LPI 점수를 보인 이집트와 비교해보아도 정시성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지표에서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항목별로 비교해봤을 때, ‘인프라’ 항목에서 1위인 독일이 4.32, 알제리가 2.54를 기록해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만큼 상대적으로 알제리의 기초인프라 발전이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41) 도로, 항만 확장 및 유지보수에 301억 유로, 철도 및 항공인프라에 272억 유로를 투자하였다(OBG(2014))

<표 2-20> 알제리의 물류 성과 지수(2014)



구분	LPI 순위	LPI 점수	관세	인프라	국제 운송	서비스 역량	화물 추적	적시성
독일	1	4.12	4.10	4.32	3.74	4.12	4.17	4.36
이집트	62	2.97	2.85	2.86	2.87	2.99	3.23	2.99
알제리	96	2.65	2.71	2.54	2.54	2.54	2.54	3.04

자료: Jean-François Arvis 외. 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도로는 알제리의 주요 수송인프라로 전체 여객 및 화물 운송의 85%를 담당하고 있다.⁴²⁾ 현재까지 구축된 도로 길이는 약 115,471km에 달하며, 도로 포장률도 80%에 달하여⁴³⁾ 아프리카에서 도로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중심지인 북부 해안지역 중심의 국토개발로 인해 그 외 지역의 도로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이다. 남부지역의 경우도 Trans-Sahara 등 일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마저도 사막모래의 유입으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거나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앞서 거론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알제리는 도로 증설 및 현대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2014 도로공사 프로그램'에 의해 총 5,399km의 도로공사가 진행⁴⁴⁾ 중이며 일부는 완공되었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인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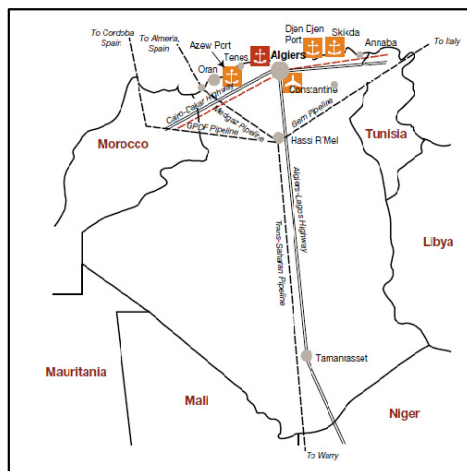
42) PwC. 2013. "Africa Gearing Up". Johannesburg: PwC

43) BMI Research. 2014. "Algeria Agribusiness Report". London: BMI Research

44) 도로공사 구간은 증설 구간이 3,061km, 도로 현대화 구간이 2,338km에 달하며, 해안도로 공사도 진행 중에

서 고속도로(East-west highway)’ 사업을 통해 주변국인 튀니지, 모로코뿐만 아니라 개발 소외지역인 동-서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약 110억 달러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El Tarf 지역과 Tlemcen 지역을 중심으로 20개의 율라야⁴⁵⁾를 통과하는 총 길이 1,216km의 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 사하라 사막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사하라 횡단 고속도로(Trans-saharienne)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알제리, 튀니지, 니제르, 말리, 나이지리아, 차드를 지나는 초대형 고속도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약 30억 불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완공 이후 주변 6개국과의 경제·사회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하라 횡단 고속도로까지 진입하기 위해 알제리 남-북 고속도로가 현재 건설 중인데,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Blida, Médéa, Djelfa, Laghouat, Ghardaia 지방을 관통하여 소외된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⁴⁶⁾

[그림 2-26] 알제리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현황



자료: PwC. 2013. "Africa Gearing Up".
Johannesburg: PwC

철도인프라는 기초인프라 중 1990년대 발생한 내전의 영향으로 가장 발달이 미진한 부분 중 하나이다. 철도밀집도(Railway density)도 2012년 기준으로 0.2km로, 주변

있다.

45) 우리나라의 행정자치 구역 '도'에 해당한다.

46) KOTRA 알제 무역관 홈페이지

국인 모로코의 0.4km, 튀니지의 1.2km와 비교해볼 때 그 발달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⁴⁷⁾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알제리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철도 확장과 현대화 작업에 32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최근에는 도로 차량 증가⁴⁸⁾에 따른 정체현상을 완화시키고, 화물 운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철도 확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573km의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여객 및 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12,500km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국영철도회사인 SNTF(Société Nationale des Transports Ferroviaires) 조사에 따르면 여객 철도의 수요량이 2011년 기준으로 3,000만 명에서 2015년에 8,000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철도 현대화 사업에 의한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향후 철도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모로코와 튀니지를 잇는 1,385km의 동-서 고속철도 공사가 완료되고, SNTF에 의해 진행 중인 철로 및 철도장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여객 수요의 상당 부분을 철도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1> 알제리 철도인프라 현황

구분	총 철도 길이(km)	철도 길이 (실제 활용도 기준, km)	철도 전력 공급선(km)	기차역 수	정류장 수
알제리	4,573	3,854	323.71	217	177

자료: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Algeria 2014".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해양 운송수단은 알제리 대외 교역의 95%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교통수단이다. 현재 총 10개의 항구⁴⁹⁾가 있는데, 석유 수출에 특화된 Arzew 항과 국내 컨테이너 수송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Algiers 항이 주요 항구로 꼽힌다. 2011년부터는 Tenes, Bejaia, Oran에 위치한 항구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Algiers와 Tenes 사이의 Bejaia 항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최근 건설자재 수입 증가로 인해 2014년 1/4분기 기준으로 알제리 내 항만에서 취급한 화

47) FAO. Food Security Data에서 발췌(2014.09 자료)

48) 알제리 교통부는 매년 차량이 60만 대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대략 200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9) 현재 Algiers, Annaba, Arzew, Bejaia, Skikda, Oran, Mers el Kebir, Mostaganem, Jijel, Ghazaouet 항이 있다.

물량이 총 270만 톤에 이르렀으며, 이는 이전 분기 대비 17.8% 상승한 수치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품 및 식료품 관련 화물이 약 50만 톤, 석유 관련 화물이 약 49만 톤, 건설자재 관련 화물이 약 11만 톤 취급 되었다.⁵⁰⁾

하지만 이와 같은 교역 증가에 따른 물류량 증가를 감당하기엔 몇 가지 제약요인들이 존재한다. 첫째 물류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다. <표 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아프리카 3개국과 비교하였을 때 2013년 기준으로 항만인프라 지수가 2.7로 튀니지, 5.0인 모로코보다 낮으며, 해상물동량도 알제리의 경우 343,026 TEU 정도로, 2,500,000 TEU인 모로코, 571,823인 튀니지에 비해 수치가 현저히 낮다. 둘째, 알제리 정부의 입항 선박크기 제한 및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항만거래비용이 발생한다. <표 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아프리카 3개국 중 알제리는 관세효율성도 2.7로 가장 낮다. 또한 기존 항구의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

<표 2-22> 북아프리카 항만인프라 환경 비교

(기준: 2013년)

구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항만 인프라(7점 척도)	2.7	5.0	4.0
해상 물동량(TEU: 20 foot equivalent units)	343,028	2,500,000	571,823
관세 효율성(7점 척도)	2.7	4.3	3.8

자료: World Bank. Indicators

다. 인력양성

주시하다시피 높은 실업률은 알제리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상위 과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지나친 관료주의와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의해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서 2000년 당시 공식적인 실업률 수치가 29.5%에 달할 정도로 알제리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안고 있었다.⁵¹⁾ 이후 시행된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013년 기준으로 실업률이 9.8% 대로 떨어졌지만, 알제리 내 청년인구

50)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Algeria 2014".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51)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Algeria 2014".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의 증가로 인한 청년실업률이 최근 24.8%에 달하고⁵²⁾ 2011년 발생한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⁵³⁾ 실업률 문제가 정부의 주요과제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방안으로 정부는 시장수요 기반의 직업기술교육 활성화를 꼽고 있다.

알제리는 정부 주도로⁵⁴⁾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전국에 약 1,200개의 국·공립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을 통해 총 400여개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알제리의 주요 산업 분야인 석유화학, 농업, 건설업 분야 중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알제리 교육부와 국영 석유회사인 소나트라크(Sonatrach)의 자회사 소믹(SOMIK)은 양 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 직업훈련 이수자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에 초점을 맞춰 해당 분야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Mascara 지역의 농업기술교육학교와 Oued Tlelat 지역의 자동차기술교육학교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⁵⁵⁾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인력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해 그에 따른 기술인력 수요가 여전히 적고, 기술인력 양성 과목 자체가 전통 산업 분야로 편중되어 민간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⁵⁶⁾ 기술훈련기관과 산업체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만 협력이 있어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이루기까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2) 위와 상동

53) 2013년 알제리 남부 Ouargla 지역에 거주하는 약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남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부 부패적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http://www.aljazeera.com/news/africa/2013/03/201331415371252748.html>

54) 알제리 교육부(Ministère de la Formation et de l'Enseignement Professionnels, MFEP) 산하의 전문교육기관(les Instituts d'Enseignement Professionnel, IEP), 직업훈련기관(l'Institut national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INFP), 직업능력개발원(l'Office national de développement et de promotion de la formation continue) 등이 직업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55) 알제리 교육부 홈페이지

56) Furceri, Davide. 2012.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Issues in Algeria By Davide Furceri" Washington D.C.: IMF

〈표 2-23〉 북아프리카 국가 간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 정도 비교

구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중등교육 등록률(%)	97.6(46)	68.9(105)	91.1(67)
고등교육 등록률(%)	31.5(78)	16.2(100)	35.2(73)
교육시스템 발전 정도	3.0(114)	3.2(102)	3.7(68)
경영교육기관 역량	3.5(115)	4.5(54)	4.4(61)
전문분야 서비스 활용도 ⁵⁷⁾	3.1(126)	4.1(72)	3.8(89)
사내 직업훈련 정도	3.4(118)	3.6(106)	3.7(99)
총점	3.69(98)	3.92(78)	3.74(94)

주: 중등 및 고등교육 등록률을 제외한 나머지는 7점 척도 기준

자료: Klaus Schwab 외.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된 산업인력들이 산업다각화를 위한 인적 기반에 해당한다면,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고급인력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알제리는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알제리 독립 이후 현재까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알제리 내 대학교육 이수자는 독립 직후인 1962년 2,275명에서 1990년에는 221,000명으로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알제리인 기준으로만 1,20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는 고등교육에 할당하는 예산을 2014년 2,700억 디나르에서 2015년 3,000억 디나르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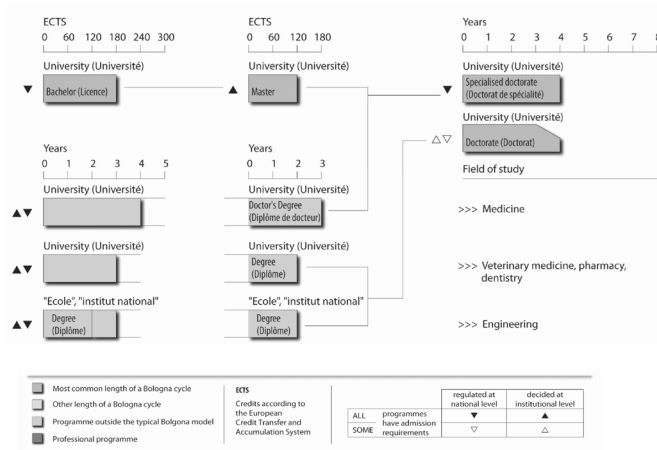
현재 알제리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RS)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국내 약 90여개의 대학이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 MESRS는 증가하는 고등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을 고등교육분야 핵심과제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는 EU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교육 및 연구 정책 프로그램'⁵⁸⁾을 시행해오고 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알제리 정부는 고등교육의

57) 의미: to what extent are high-quality, specialized training services available?

58) 원제는 Programme d'Appui à la Politique Sectoriel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PAPS-ESRS) 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해외 대학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2004년부터 채택된 License-Master-Doctorate(LMD)⁵⁹⁾ 시스템을 산업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⁶⁰⁾

[그림 2-27] 알제리 고등교육 시스템



자료: EU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12. "Higher Education in Algeria" Alger: The Tempus

하지만 알제리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일부 전공으로만 수요가 몰려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문학 분야 전공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 수가 전체 대학생 수의 5.9%를 차지하였고, 그 수치는 2010년 26,075명에서 2011년 14,639명으로 감소하였다.⁶¹⁾ 또한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우수 인재 자체를 연구 분야로 불러 모으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대비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4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 분석 결과, 알제리의 전문분야 서비스 활용도는 7점 만점에 3.1점(144개국 중 126위)으로 3.8인 튀니지(172위), 4.1인 모로코(72위)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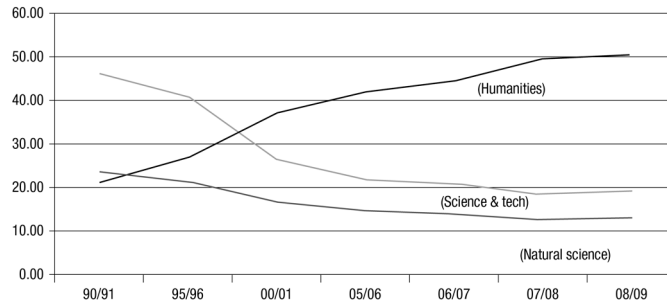
59) LMD는 학제를 3년, 5년, 8년제와 같이 3단계로 진행하는 교육 시스템이다(출처: University world news)

60)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Algeria 2014".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61)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Algeria 2014".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그림 2-28] 알제리 대학 전공별 학생 등록률

(단위: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2013.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서울: KDI

라. 농업

알제리에 있어 농업은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이에 앞서 심각한 식량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석유산업 편중적인 알제리 경제구조에서 농업은 석유산업을 제외한 분야 중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또한 큰 분야이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에서 9.7%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국가 전체 고용의 약 20%인 약 2.4백만 명⁶²⁾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산업이 알제리 경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 고용창출에 약 2% 미만으로 기여하는 점과 비교할 때 알제리 경제발전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유부문을 제외한 국가 전체 수출의 약 17%('13년)를 차지하며 경상수지 증가에도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 및 인구증가로 인해 밀, 옥수수, 보리와 같은 작물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으나 열악한 자연환경 조건과 농촌인프라 미비로 인해 자체 생산능력으로는 그 소비증가분을 뒷받침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알제리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2009년 43억 유로에서 2013년 70억 유로로 5년간 약 65%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국내 총 수입의 약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³⁾

62) 상동

63) 위와 상동

〈표 2-24〉 알제리 농산물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연간 증가율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수입	전체	9022.0	17.91	9580.0	17.47	6.18
	시리얼 및 밀가루	3295.0	6.54	3310.3	6.04	0.46
	우유 및 기타 낙농제품	1269.7	2.52	1261.8	2.30	-0.54
	설탕	1010.9	2.00	944.7	1.72	-6.55
	커피 및 차	392.1	0.78	374.7	0.68	-4.42
	육류	256.9	0.51	253.7	0.46	-1.23
	농기계	330.0	0.66	506	0.92	53.33
수출	전체	315.0	0.44	402	0.61	27.62
	정제 설탕	207.9	0.29	272.2	0.41	30.86
	생수	31.1	0	33.7	0	8.16
	대추야자	24.7	0	29.5	0	19.34
	채소	7.7	0	18.2	0	136.58

주: 비중은 전체 수출입량 대비 차지하는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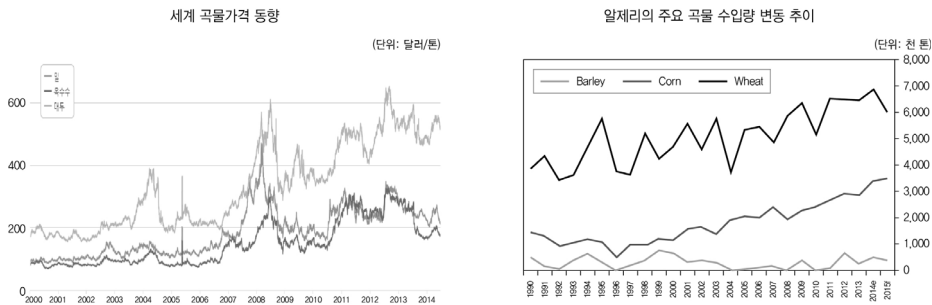
자료: 알제리 재무부 산하 Algeria Customs' National Centre of Data Processing and Statistics(CNIS) 홈페이지

이와 같은 알제리의 낮은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들 수 있다. 한때 알제리는 유럽 대상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였으나, 1962년 독립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정부의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석유산업 위주의 발전으로 인해 농업 발전은 등한시 되었다.⁶⁴⁾ 그 결과 알제리는 유럽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알제리의 농산물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 곡물가격 변동 증가와 유가 하락에 따른 경장수지 하락 등은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고자 알제리 정부는 식량자급도 수준을 70%까지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시리얼, 밀과 같은 주요 작물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⁶⁵⁾

64) BMI Research. 2014. "Algeria Agrivusiness Report". London: BMI Research

65) 알제리의 시리얼 수입의존도는 2011년 기준으로 67.8%로 인접국가 튀니지의 60% 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며, 곡물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의 2.7%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 FAO Statistics)

[그림 2-29] 세계 곡물가격 동향 및 알제리의 주요 곡물 수입량 변동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홈페이지

자료: BMI Research. 2014. "Algeria Agribusiness Report". London: BMI Research

알제리의 주요 소비 작물별 생산 및 소비 현황을 비교해보면, 밀은 알제리 주식인 쿠스쿠스(Couscous) 및 바게트의 주원료로 그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산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밀 생산성은 1990년대 후반 정부의 농업생산성 증진 정책에 따른 신품종개발 및 비료사용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초반 헥타르 당 840kg 생산에서 2010년대 초반에는 헥타르 당 1600kg에 달하였다. 하지만 밀의 주요 소비국인 이집트, 잠비아의 해당 수치가 헥타르 당 6.0톤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⁶⁶⁾ 또한 <표 2-25>를 통해 주지하다시피 밀의 소비량이 생산량을 압도하여 상당부분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⁶⁷⁾인데, 앞으로도 소득증가와 인구증가 따른 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리 및 옥수수는 알제리 내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축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이에 대한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생산능력으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옥수수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외에 최근 들어 토마토, 마늘, 양파, 고추와 같은 시설채소(Garden vegetables)의 재배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감자를 제외한 시설채소 생산량이 720만 톤⁶⁸⁾에 달하며 과일, 시트러스와 함께 정부의 주요 투자 작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토마토는 최근 플랜테이션 확장에 따라 생산량이 2012년 420만 톤에서 2013년 480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66) BMI Research. 2014. "Algeria Agribusiness Report". London: BMI Research

67) 알제리는 세계에서 6번째로 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BMI, 2014)

68)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Algeria 2014".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표 2-25> 알제리의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밀(소맥) 생산량(천 톤)	2,730	1,600	3,560	2,900.0	2,800.0	3,400.0
밀(소맥) 소비량(천 톤)	8,050.0	8,300.0	8,550.0	8,750.0	8,950.0	9,400.0
보리 생산량(천 톤)	950.0	560.0	2,400.0	1,500.0	1,350.0	1,500.0
보리 소비량(천 톤)	1,100.0	1,050.0	1,350.0	1,600.0	1,800.0	1,990.0
옥수수 생산량(천 톤)	1.0	1.0	1.0	1.0	1.0	1.0
옥수수 소비량(천 톤)	2,100.0	2,100.0	2,400.0	2,700.0	2,900.0	2,980.0

자료: BMI Research. 2014. "Algeria Agribusiness Report". London: BMI Research

이와 같은 알제리의 농업 생산성 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 보리, 옥수수와 같은 주요 작물은 여전히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며, 감자 및 시설채소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은 그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주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생산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표 2-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종묘생산기술 및 육묘관리기술이 부족하고, 시설재배 시 필요한 토양 및 온도 관리, 병충해방지 등의 전반적인 관리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멀칭(Mulching) 기법도 현지에서 그 활용도가 낮아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는 단순한 기술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6> 알제리의 주요 작목별 생산 현황 및 기술적 장애요인

분야	생산 현황	기술적 장애요인
씨감자	- 알제리 국민의 주식으로 매년 평균 31만 톤가량 생산 그 중 10만 톤은 수입, 나머지는 기존 씨감자 재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충해에 취약 - 씨감자 종묘 자체도 이병율이 높은 씨감자 사용으로 수확량이 낮음	(무병)종묘생산기술 부족 - 병충해, 바이러스 검정기술 부족 - 시설(양액온실, 실험실, 기자재 등), 관리기술 부족 - 저장/유통기술 부족
(생과용) 토마토	- 최근 소비수준 향상과 함께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 - 생산성도 최근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2008년 559,249톤에서 2012년 796,963톤으로 약 42% 상승) - 단위생산량은 한국의 1/4 수준인 헥타르 당 11.5톤(한국은 헥타르 당 50톤)	- 육묘관리기술 부족 - 시설재배 관리기술 부족(시설 내 토양, 온도, 양액/수분관리, 병충해방지 기술 부족) - 수확 후 관리기술 부족(수확 후 선도유지에 대한 인식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수확 후 손실이 매우 높음)

분야	생산 현황	기술적 장애요인
	대부분 시설에서 재배되며, 전체 시설재배 작물 중 가장 많이 재배 (3,678.9 헥타르 차지)	
시설 채소	- 재배면적이 37,735 헥타르에 달하고, 그 중 시설재배면적은 20,628 헥타르 - 주요 작물은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이 있고 농가의 고소득 작물임	- 육묘관리기술 부족(불량한 묘 이용으로 생산성 낮음) - 시설재배 관리기술 부족(토양, 멀칭, 병충해방지 기술 부족) - 수경재배기술 활용은 전무한 상태

자료: FAO(2015)의 FAOSTAT 및 KOPIA(2015), KOICA(2015)의 내부자료 등으로 연구진 구성

이와 같은 영농기술이 부족한 원인으로 영농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미흡과 농민들 대상의 생산 및 경영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업 기술 교육 및 훈련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⁶⁹⁾ 알제리가 당면한 심각한 식량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농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그 시급성을 깨닫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09년에는 GDP의 약 0.18%(1,418 디나르)에서 2012년에는 GDP의 0.21%(1,689 디나르)로 약 0.03% 증가하였으나, 2012년 기준으로 국제 평균인 GDP 대비 1% 기준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주변국인 튀니지의 0.64%, 모로코의 0.49%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⁷⁰⁾

부족한 영농기술력 외에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농업 인프라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우선 알제리의 방대한 토지 면적 대비 경작가능 농지 면적이 3%에 불과한데, 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경작 가능한 농지 중에서도 단 12%인 0.92백만 헥타르만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과거 엄격한 임대조건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거래에 대한 제약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⁷¹⁾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생산농지 비중은 전체의 약 7.5%이며, 곡물

69)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2년 농림·수산분야 ODA 평가' 보고서에서 동 분야 사업범주를 가치사슬에 따라 분류한 결과 기술 부문에 기술연구개발과 기술교육 및 훈련을 포함시켰다.

70) Stads, Gert-Jan, M'hamed Alt-Oubelli, and Raed Badwan. 2014. "Algeria: Agricultural R&D Indicators Factshee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71)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고자 알제리 정부는 2008년 개정된 새로운 토지법에 따라 최장 40년까지 정부소유 토지의 임대가 가능하며, 2010년에 국가차원의 농지관리사무소를 개설하여 토지소유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Oxford Business Group, 2014)

생산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의 약 2% 정도⁷²⁾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농업용수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알제리의 건조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 연간 강수량 100mm 이하 지역이 국토의 약 89%에 해당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한다. 이런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강수량 등 기후여건에 따라 농업 생산이 크게 좌우되고 있어 농산물 작황이 해마다 일정치 않다.⁷³⁾

〈표 2-27〉 알제리의 토지 활용 현황

구분	면적(백만 ha)				연평균 증가율(%)		
	1997	2002	2007	2012	'97-'02	'02-'07	'07-'12
전체 면적	238.17	238.17	238.17	238.17	0	0	0
경작가능 토지 면적	7.65	7.55	7.47	7.54	-0.26	-0.21	0.19
작물재배 토지 면적	0.51	0.66	0.92	0.92	5.29	6.87	0
산림지역 면적	1.61	1.56	1.52	1.47	-0.63	-0.52	-0.67

자료: FAO, FAOSTAT

〈표 2-28〉 알제리 생물기후권역 분류에 따른 강수 면적

생물기후권역 분류	연간 강수량(mm)	면적(ha)	면적 비중(%)
Per-humid	1,200-1,800	185,275	0.08
Humid	900-1,200	773,433	0.32
Sub-humid	800-900	3,401,128	1.42
Semi-arid	600-300	9,814,985	4.12
Arid	300-100	11,232,270	4.78
Saharan	<100	212,766,944	89.5

자료: FAO, Country Pasture/Forage Resource Profiles

마. 공공행정(거버넌스)

거버넌스를 지배·통치의 개념보다 ‘국가경영’ 혹은 ‘공공경영’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⁷⁴⁾, 알제리의 거버넌스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3년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국정관리 지수(World Governance Index, WGI)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알제리의 언론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부정부패 통제 등 전 영역에 걸

72) BMI Research. 2014. “Algeria Agribusiness Report”. London: BMI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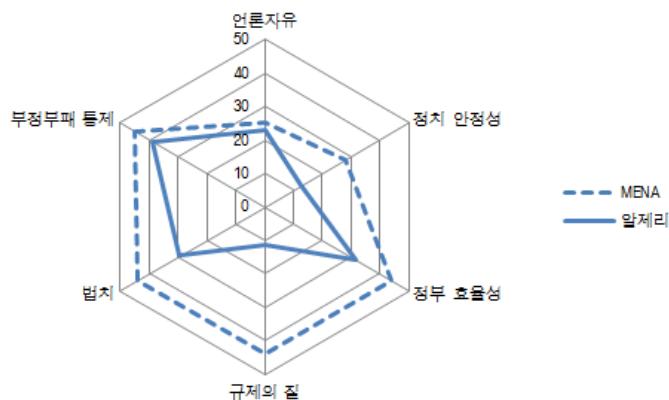
73) 상동

74) 김규정. 1999.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쳐 백분위 수 50% 미만으로 나타나 알제리의 거버넌스가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규제 질, 정치적 안정성, 법치, 정부 효율성 등은 MENA 지역 평균값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 그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알제리 정부의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움직임이 적은 이유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반정부 시위의 부정적 여파로 정치적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림 2-30] MENA지역과 알제리 간 국정 관리지수 비교

(기준: 백분위 수, 2013년)



주: 정부 데이터, 시민·기업인 대상 서베이 결과 및 전문가 참여 등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를 측정된 값의 백분위 수를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알제리의 거버넌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비효율성이다. 국가 행정 관리 및 처리 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인데, 이를 반증하듯 국정관리 지수 상 알제리의 ‘규제의 질’은 여타 지수 대비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MENA지역 평균보다도 한참 뒤 떨어져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먼저 내수시장 및 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알제리 정부는 국부의 원천인 석유화학분야의 독점권을 얻기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시장가격 책정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석유화학 주력상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 및 가격 상한제를 실행하여 초과수요를 생산하고, 곡물에 매겨지는 수입세와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 규제는 대외경제 활동에도 적용되었는데, 합작투자 설립 시 지분 제한, 과실송금 규제 등 외국인 투자 및 민간기업 활동을 유치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잔존하고 있다.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신용장, 외환 차입 및 대리인 문제 등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외환청(Office de Changes)에서는 직접 내국인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방송통신을 직접 통제하고 있어, 언론을 통한 자유로운 정부 비판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⁷⁵⁾

이러한 규제 및 개입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은 이미 알제리 내부의 여러 부문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투자이다. 알제리 정부는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 탓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UN 무역개발회의 통계에 따르면, 약 2조 달러가 유입된 2007년을 기점으로 하향세를 지속하던 알제리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3년도 1조 4천 달러로 줄어들어 드는 등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⁷⁶⁾ 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비공식 경제가 점차 활성화 되는 추세이며 정규 산업과의 반목도 심화되고 있다.⁷⁷⁾ 덧붙여, 정부의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처사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저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 공급되고 있는 주택의 품질 및 실업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이 청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⁷⁸⁾

이와 같이, 알제리의 거버넌스 상 개발의 필요성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사회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거버넌스 문제가 대통령 및 특정계급으로 편중된 국가 정치·경제 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알제리와 정치·경제면에서 상호협력 관계가 깊은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알제리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잔재인 행정 폐쇄성으로 인해 원활한 협력이 힘든 실정이다.

75) Bertelsmann Stiftung. 2014. "BTI 2014-Algeria Country Repor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및 KOTRA 홈페이지

76) UNCTAD 통계

77)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78) Bertelsmann Stiftung. 2014. "BTI 2014-Algeria Country Repor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제3절 국가개발정책

1. 국가개발전략(NDS)

2014년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의 그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는 이미 2000년부터 15년간 경제개발 정책과 경제개발 계획 및 사회적 수요에 기반을 둔 생산적인 투자에 힘입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⁷⁹⁾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주변국들의 정세 불안과 경제 악화 속에서도 알제리만이 여전히 경제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가 집권한 기간 동안 세 번의 경제정책을 수립되었는데, 첫 번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발전의 디딤돌을 놓은 단계라고 평가받는다. 내전으로 암울했던 1990년대의 테러리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시기로 평가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두 번의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통해 향후 경제개발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4년까지 알제리는 고속도로 건설, 주택 건설, 전기와 식수 공급 시설, 도심 정비 등 사회 주요 기반 시설물이 대폭 확충되었고, 정보통신, 농수산, 보건 등의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2015년부터 5년간 시행될 3차 개발계획(Algérie-Plan quinquennal 2015-2019)에서는 경제·사회 분야의 다변화(다각화)가 주요 과제이다. 지난 2014년 5월 이와 같은 과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실행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우선 비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집중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육성 분야로는 농업과 관광업 등 기존에 투자가 이루어지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사회개발 측면에서는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 이해관계자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참여적 민주주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가 기본법개정

79) 대전충남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을 통해 문제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사회악을 근절하는 등 정치사회를 총망라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외에 인적자원 개발 및 주택과 같은 기초인프라지원을 유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확보에도 신경 쓰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표 2-29> 알제리의 2015-2019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

1. 국정담화 강화 및 법치주의 구현
- 평화유지 및 민족화합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이행 - 참여적 민주주의 및 지방분권 활성화 - 정부 및 의회간 협력적 관계 수립 - 공공서비스의 활성화 - 사법부 개혁 및 독립성 강화 - 경제 및 사회부문 개발을 위한 소통 강화
2. 국가 정치경제의 공고화
- 거시경제 여건 개선 - 2015-19 경제개발 계획 실행 - 금융시스템의 현대화 - 보험부문의 현대화 - 조세행정의 현대화를 통한 개혁 추진 - 국가재정 시스템의 현대화 - 행정부문의 현대화 - 세관시스템의 현대화 - 외국인투자 및 경제적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 부패 척결 및 자금세탁, 테러자금원 차단 - 기업활동 환경 개선 - 투자 재구성 - 산업단지 조성
3. 생산 활동의 다양화
- 산업부문 확장 및 현대화 - 가공과정 개선을 통한 광업 개발 - 농업생산성 향상 - 수산업(어업/양식업) 강화 - 에너지 부문으로의 투자 유지 - 국제적 수준의 관광업 개발 - 공예분야 육성
4. 경제사회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속적 관리 및 확대
- 지방간 연결도로 건설 - 철도시설의 현대화 - 항만 인프라 현대화 및 확대 - 민간항공 산업 육성 - 인프라 관리시설 개선 - 수자원 보호 및 취수, 관리, 배수를 위한 정책 수립 - ICT 사용 활성화를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지식기반의 사회 형성 - 우편서비스 활성화 및 우주산업 육성

5. 영토개발 및 환경간의 조화
6. 국민필요 충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지원
- 교육의 질 향상 및 민주주의 교육 강화
-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기관역량 강화
- 직업훈련 지원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 프로그램 지원
- 실업문제 개선 및 안정적 고용의 확대 지원
- 의료시스템의 질적/양적 발전
- 의약품 공급 강화
- 사회 빈민층 지원시스템 강화
- 여성인권 증진
- 무자헤딘(Mojahedin)조직을 위한 적절수준의 지원
- 유소년층 육성 지원
- 체육활동 개선
- 문화활동 증진
7. 외국인관련 정책 및 계획 실행
8. 국가 방위 정책

자료: Republique Algerienne Democratique et Populaire. 2014. "Plan D'action du Gouvernement pour la Mise en Oeuvre du Programme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2. 분야별 전략

가. 산업 관련 정책

알제리 정부는 2000년부터 시작된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석유 일변도의 생산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 1단계로 2000-2004년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2단계로 2005-2009년 5개년 계획을 통해 FDI 유치를 통한 생산시스템 구조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2010-2014년 5개년 계획을 통해서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높은 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생산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탈석유산업 육성을 위해 알제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석유화학 하류 부문, 철강, 시멘트, 농공업, 자동차제조, 제약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발달된 석유 상류부문(Upstream) 역량을 기반으로 석유 하류부문(Downstream) 개발을 중점지원해오고 있다. 정유산업 설비확장을

위해 2013-2017년 간 5개의 신규 정제소(refineries)를 건립하여 매년 통합 원유처리능력을 현재의 2.2천만 톤에서 연간 3천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개발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비료생산발전소(Sorfert: 화학비료, Fertial: 인산비료)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총 5개의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석유하류부문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Skikda, Béjaïa, Arzew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철강과 시멘트는 정부 계획에 따른 주택,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장 공사로 인해 급증한 수요를 국내생산능력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분야이다. 철강은 최근 투자 저하 및 노사분규로 인해 그 생산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정부는 현재의 60만 톤에서 2.2백만 톤까지 생산량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멘트도 매년 400-500만 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여서 이로 인한 정부의 경상수지 타격이 큰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국영 기업인 GICA(Groupe Industriel des Ciments d'Algérie)를 통해 14억 유로를 투자하여 현재 1,200만 tpa에서 2017년 2,600만 tpa까지 생산량을 늘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 생산라인 6개는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4개는 신규공사를 통해 총 10개의 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공업은 대표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정부는 생산성 증진을 위해 작목별 무역위원회(Trade Commission)를 창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자재 구입 및 비료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해오고 있다.

자동차제조와 제약은 최근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량 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발전을 위해 관련 소비재수입을 위한 신용대출을 5년간 법적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2014년에 철회하였다. 대신에 정부는 자동차거래업자 또는 회사가 관련 산업 및 서비스업에 재투자하는 조항을 만들어 2014-2017년까지 적용하고자 하며, 외국자동차 수입 시 해외달러를 통한 직접거래만 허용하여 제 3자를 대신한 거래는 제한하였다. 제약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입량으로 인해 정부가 나서서 2008년 800가지의 알약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내 생산 증진을 목적으로 제약 분야 국영기업인 SAIDAL을 통해 3개의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특정산업 분야 지원과 동시에, 국영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2001년에 ‘신 투자법’⁸⁰⁾과 중소기업 육성 법안⁸¹⁾을 발표하여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담당하는 신용보증펀드와 국가투자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00개의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민간 기업 활성화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 2-30>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청년창업가와 영세기업 등 사업대상에 특화된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20만 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3억 불의 예산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

<표 2-30> 알제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기관 및 프로그램	세부 내용
청년취업지원센터 (Agence Nationale de Soutien à l'Emploi des Jeunes, ANSEJ)	• 청년 19세 이상 35세 이하 창업가에게 저리로 대출 • 초기 사업자금의 29%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70%를 위한 금융대출을 지원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략 30만개의 프로젝트 시행 • (약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가소규모대출센터 (Agence Nationale de Gestion du Micro Crédit, ANGEM)	• 영세기업 대상으로 경영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소규모 대출을 제공 • 대상은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시민 • 지원 규모는 무이자로 약 백만 디나르까지 대출 가능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64만 명에게 대출 제공
중소기업개발청 (Agenc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e la PME, ANDPME) ⁸²⁾	•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프로그램(La mise à niveau des PME) 시행 • 총 3,860억 디나르를 투입하여 총 2만 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개발청 산하 8개의 지점과 15개 지역사무소를 통해 시행 • 고용인원 10명 이상(BTPH는 예외) 250명 규모 이하 이며, 최소 경영기간 2년 이상의 제조업, BTPH, 수산업, 관광산업, 서비스, 교통, ICT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원

자료: 알제리 중소기업개발청 홈페이지 기반으로 연구진 재구성

80) Ordonnance N° 01/03 du 20/08/2001

81) Loi N° 01/18 du 12/12/2001

82) 2005년에 설립되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발전 정책 및 분야별 정책 실행, 전문가 양성 및 협의체 구성, 클러스터 관련 연구 수행, 중소기업 관련 정보 수집·조사·전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공공투자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금 확보 및 기술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1년 ‘신 투자법’ 제정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와 투자유치 창구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의 사업 수익 해외반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조성되어 2009년 외국인투자제한조치가 시행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작투자 법인 설립 시 외국인은 최대 49%, 현지인은 최소 51%로 지분이 제한되며, 외국인 단독 법인설립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재판매를 위한 알제리로의 수입은 불가능하나, 단 현지기업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외로 하여 투자를 승인한다.

〈표 2-31〉 알제리의 외국인투자법

투자법	세부 내용
신투자법 (New Investment Code/2001.3)	2001 년 8 월, 기존 투자유치 관계법률 및 공기업 민영화 법률 재정비 하고,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단일 창구인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을 설립 2001 년 재정비된 투자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투자는 투자자의 국적, 법인 또는 자연인 및 국내 거주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는 기간산업(통신, 전기, 가스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가능 -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은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는 동등한 대우 보장, ANDI 결정에 대한 이의시 지방법원 항소나 중재 가능,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전액 환전가능 등
2009년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 시행	2008 년 7 월 Bouteflika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재무에 대한 추가법에서 제정 및 시행중(단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 - 주요 추진 예정 정책내용은 외국자금을 동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제리 측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과 면제받은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4 년간에 걸친 알제리 내 재투자 의무화, 판매법인의 알제리 지분 최소 30% 의무화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나. 수송인프라 관련 정책

알제리 정부는 기초인프라시설 부족을 만회하고자 지난 10년간 인프라 부문 개발을 상위 정책 목표로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5년까지 국토개발의 불균형 시정 및 지역 간 연결망 강화를 목표로 2008년에 국토개발 관련 장기 개발계획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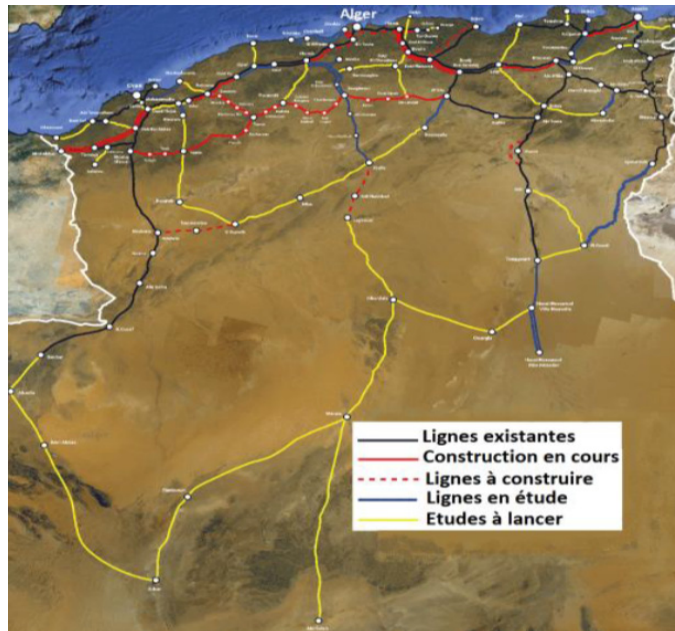
토종합계획 2025(Schéma National d'Aménagement du Territoir, SNAT 2050,)⁸³⁾을 수립하였으며, 그 하위 계획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Schéma Directeur Routier et Autoroutier 2005-2025)’을 통해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의 확장 및 현대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9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작될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도 약 37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교통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증진은 수출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개발격차를 완화시키고, 제조업과 같은 도시 밖에 위치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분야별 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도로인프라의 경우 도로 확장 및 현대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 진행 중인 ‘동-서 간 고속도로 (1,216km 상당) 사업’을 완료하고, 북쪽 산간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High-plateaux 도로 (1,020km)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불균형 개발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남-북 지역 연결 차원에서 ‘남-북 간 고속도로 사업’ 및 ‘Trans-sahara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알제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약 469억 유로를 이 분야에 투자하였고, 2015년부터 시작될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도 그러한 기초를 유지하여 372억 유로(4조 디나르) 상당의 금액이 도로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에 지속된 유가 하락세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승용차 구매율이 급증하여 현재 800만 대에서 2025년에는 2,000만 대까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개발 및 확장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인프라의 경우는 남부 지역까지 철도망 확장을 목표로 국가철도교통공사(Société Nationale des Transports Ferroviaires, SNTF)에 의해 기존 철도망 위에 6,000km의 철도망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요 도시 간에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철도통신시스템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83) SNAT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정된 국가자원의 균형적 배치를 최상위 목표로 하는 발전계획이다.

[그림 2-31] 알제리의 2005-2025 철도망 개발 사업



자료: KOTRA 홈페이지

항만인프라의 경우 늘어나는 항만물동량(2007년 기준으로 200,050 TEU에서 2013년 343,028 TEU로 70% 가량 상승)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Djen Djen항 내 부대시설 신축 사업과 Oran항 내 선박 보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Tenes, Begaia, Oran 사이에 발생하는 극심한 화물 정체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Agiers와 Tenes 사이에 새로운 항구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얕은 항만 수심으로 인한 정박의 어려움을 시정하고자 항만 수심을 깊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항만관리시스템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알제리 정부는 Bejaia, Djen Djen, Oran항의 물류 터미널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Private Public Partnership, PPP)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교육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알제리도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개발과제의 핵심 축으로 선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높은 관심과 투자로 인해 MDGs 평가 지표 중 보편적 초등교육은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중등교육 등록률도 95%를 달성할 정도로 기초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제사회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알제리 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부문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2008년 직업훈련 관련 법안⁸⁴⁾을 도입하여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기술기반 접근(Skill-based approach, APC)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주로 노동시장 분석, 훈련 방법 및 교수법 개발 지원 등의 활동들을 지원한다.⁸⁵⁾

이와 같은 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알제리 정부는 2010-2014년 5개년 계획 하에 1,780억 디나르를 해당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금은 기관 220개, 기숙학교 58개 및 훈련센터 82개의 신축공사 및 기존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직업훈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도 세계화 흐름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기존에 채택한 LMD 시스템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우선 필요한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법적으로 완화하고, 관련기관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⁸⁶⁾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알제리 정부는 2010년부터 고등교육 부문에 8,680억 알제리 디나르를 할당하여 관련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이다.

라. 농업 관련 정책

알제리 정부는 2008년 ‘농업농촌개발정책(Politique de Renouveau Agricole et Rural, PRAR)’을 발표하여 곡물 생산량 증가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식량자급률 70% 달성을

84) Loi n° 08-07 du 23 février 2008

85) Tizi Ouzou. “Les réformes en Algérie: formation professionnelle, enseignement supérieur, insertion professionnelle 1. Présentation liminaire”. Université Mouloud Mammeri

86) 상동

목적으로 매년 2천억 디나르(약 26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였다. 농업개발, 농촌 개발, 인적역량 강화를 농업 전략의 3대의 축으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로는 소맥과 우유의 생산성 향상, 종자개량 등의 농가 기술력 향상, 농작물 마케팅 및 농업서비스 현대화, 농경지 관개시설의 확대, 지역균형 개발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대비 농업 생산성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성과⁸⁷⁾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국인 이집트, 잠비아의 생산성이 6.0톤/ha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생산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변국과의 생산성 차이를 인지하고 알제리 정부는 기존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농업 시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2014년에 지난 5개년 개발계획의 후속 계획⁸⁸⁾을 발표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000억 디나르(약 18.6억 달러)를 농업 부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13%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에 대한 FDI를 증가시켜 농업 기술력 및 자본 확보, 시장구조 개선, 농산품 수준 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차원에서의 사막화 및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상대적으로 개발 격차가 심한 고원 지역과 남부 지역 개발 차원에서 경제 활동 및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세부 달성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2-32> 알제리의 2015-2019년 5개년 개발계획을 위한 농업분야 액션플랜

분야	세부내용
농업 생산성	• 주요 작물인 시리얼 생산 증대를 위한 토양 비옥화 및 관개기술 습득 • 분유 원자재 수입 감소를 위한 우유 생산량 증대 및 우유 제조 민간협력체 구성 • 주요 소비 작물인 감자의 생산량 증대 • 채소의 통합 생산 차원에서 경작 기술 습득
농지	• 농민 이익 관련 규정 처리 완료, 경작지의 효율적 활용
수자원	• 2019년까지 관개 가능한 2백만 ha의 농지 확보 • 관개 보조설비를 활용하여 시리얼 종자생산을 위한 600,000ha의 농지 확보 • 새로운 농업 용수 개발을 위해 수자원부와 협력 •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개혁 운동 활성화 • 정부의 수자원 계획 준수를 위한 지역협의체 활동 제기

87) 1990-1995년간 0.84톤/ha에서 2008-2012년간 1.6톤/ha으로 증가

88) 2014년-2015년 농업분야 액션플랜(Plan d'actions pour la Campagne Agricole 2014-2015)

분야	세부내용
시범포	• 2015년 1/4분기 말까지 시범포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 시범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Government Management Participations Companies(GSP)의 협력을 통한 액션플랜 수립
산림 자원	• 해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 재조림(Reforestation)을 위한 법적 제재수단 강화
농촌 개발	• Rural Development Proximity Integrated Projects(PPDRI) 관련 체계적인 수행 및 역량강화 • 농촌개발 차원에서 성과측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기타	• 협동조합 결성 관련 처리절차 완성 • 비료 및 농기계 관련 서비스 활성화 • SILOS 및 냉장시설 구축 • 병충해 방지 위한 커뮤니티 그룹 창설 • 가축건강프로그램 관련 역량강화

자료: 알제리 농업농촌개발부. 2014. “2014년-2015년 농업분야 액션플랜(Plan d'actions pour la Campagne Agricole 2014-2015)”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제3장

국제사회의 알제리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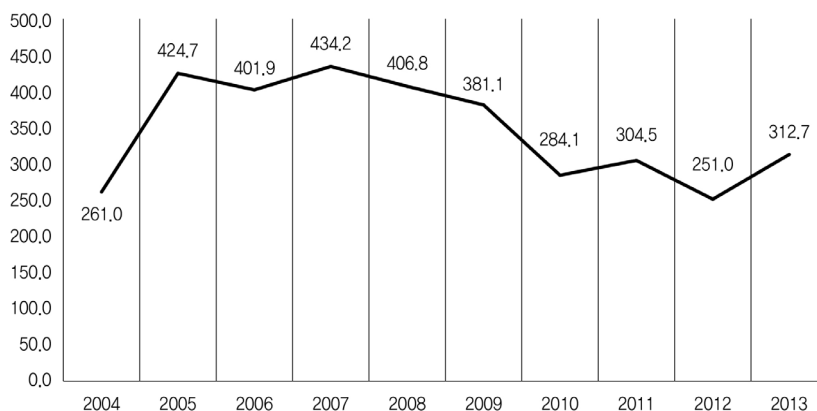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알제리는 1980년대 초반까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차관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그 이후 원유 수출로 인한 외화보유고의 증가에 따라 해외 차관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엔 무상원조 중심으로 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 알제리 ODA 규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⁸⁹⁾로 따른 원조 수혜국으로서의 지위변화와 함께 축소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총 규모가 2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대 알제리 ODA의 최근 수치가 낮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유입된 ODA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알제리는 4.1%인 2억 8900만 달러를 차지하여 2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모로코와 12억 달러를 기록한 튀니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 3-1] 알제리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총 지출액 기준)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89) 2006년 알제리 1인당 국민소득은 3,517달러였으나, 2008년 4,952달러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통상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 미만인 경우 ODA 수혜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표 3-1> 북아프리카의 국가별 ODA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총 지출액 기준)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1	이집트	1,221	2,121	5,908	3,083	43.7%
2	모로코	1,885	2,019	2,615	2,173	30.9%
3	튀니지	1,264	1,323	1,039	1,209	17.2%
4	알제리	305	251	313	289	4.1%
5	리비아	581	144	140	288	4.1%
북아프리카 지역합계		5,256	5,858	10,015	7,042	100.0

자료: OECD,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알제리의 주요 공여파트너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과 같은 OECD DAC에 가입된 유럽 국가들이다. 공여국 별 대 알제리 ODA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국가는 알제리의 오랜 공여파트너인 프랑스로, 최근 3년간 1억 3,9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알제리로 유입된 총 ODA 지원액의 48%로, 양자원조 규모 2위인 독일의 지원금액보다 약 14배 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와 미국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941만 달러와 821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였고, 한국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357만 달러를 지원하여 규모면에서 DAC 회원국 중 6위에 머물렀으나 그 지원규모가 전체 ODA 대비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공여국으로서 알제리에 대한 그 기여도는 아직 낮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인근 국가로서 대 알제리 ODA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던 스페인이 최근 경기악화에 따라 그 지원 규모를 대폭 줄여 자체 ODA 지원 노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DAC 회원국 외에 다자기구들도 최근 3년간 7,3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원 규모면에서 EU가 전체 다자기구 지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기관들의 활동은 저조한 실정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와 같은 다자은행의 경우 무상원조보다는 차관 지원 중심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ODA의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약 63%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에 쓰였는데, 그 중 교육에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뒤를 이어 정부·시민사회와 식수위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약 13%가 농수산업 및 산업을 포함한 생산 부문에, 10%가 인도적 지원에, 7%가 교통, 통신, 건설 등의 경제 인프라 부문에 쓰인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3-2> ODA 공여주체별 알제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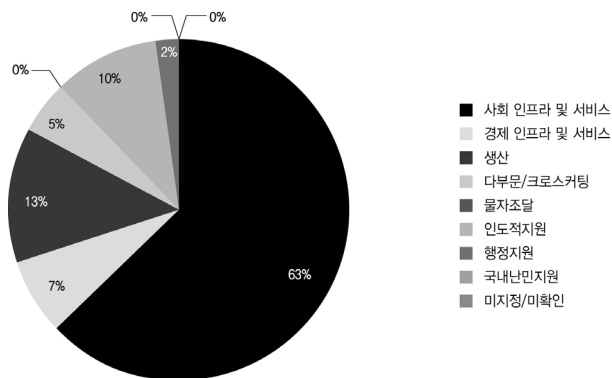
		국가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DAC 회원국	1	프랑스	146.85	134.89	138.03	139.92	48.34
	2	독일	12.42	9.56	8.05	10.01	3.46
	3	벨기에	10.60	7.28	10.35	9.41	3.25
	4	미국	9.14	10.74	8.04	9.31	3.22
	5	스페인	14.96	2.01	7.65	8.21	2.84
	6	한국	3.87	2.44	4.39	3.57	1.23
	7	영국	1.50	3.77	5.22	3.50	1.21
	8	스위스	2.68	2.56	2.64	2.63	0.91
	9	이탈리아	6.12	0.85	0.42	2.46	0.85
	10	일본	1.43	3.00	2.41	2.28	0.79
	기타 DAC 회원국		4.63	4.91	2.65	4.06	1.40
	DAC회원국 합계		214.19	182.02	189.85	195.35	67.50
	DAC 비회원국	1	아랍에미리트	7.06	5.43	50.29	20.93
DAC비회원국 합계		7.06	5.43	50.29	20.93	7.23	
다자 기구	1	EU Institutions	79.74	60.39	67.53	69.22	23.92
	2	UNICEF	1.27	0.72	1.34	1.11	0.38
	3	UNDP	0.43	0.72	1.26	0.80	0.28
	4	WHO	0.60	0.05	0.80	0.48	0.17
	5	UNFPA	0.39	0.46	0.56	0.47	0.16
	6	WFP	0.39	0.45	-	0.28	0.10
	7	UNAIDS	0.38	0.23	0.22	0.28	0.10
	8	AfDB	0.07	0.22	0.47	0.25	0.09
	9	GEF	0.03	0.16	0.35	0.18	0.06
	10	Arab Fund(AFESD)	-	0.19	0.02	0.07	0.02
	다자기구 합계		83.30	63.60	72.55	73.15	25.27
	ODA 총액			304.56	251.03	312.69	289.43

자료: OECD, DAC Statistics 재구성

이외에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공여주체별 지원 형태(modality)를 비교해본 결과, 프랑스는 알제리 장학생의 자국 초청연수(교육) 방식의 원조를 가장 많이 진행하였으며 교육 기자재 지원 등 기술지원 방식으로도 다수 지원해왔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EU는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를 지원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와 별도로 공여주체 중 EU만이 알제리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對 알제리 ODA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2011-2013년 3년 평균)



자료: OECD,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3> 공여주체별 對 알제리 지원형태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11-13년 평균)

구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미국	스페인	EU
총계	139.92	10.01	9.41	9.31	8.21	69.22
예산지원	-	-	-	-	-	4.88
일반섹터지원	-	-	-	-	-	0.06
섹터예산지원	-	-	-	-	-	4.82
주요기금 및 특정목적 프로그램기금	0.10	0.01	0.19	5.54	0.02	-
NGO, 기타 민간단체, 민관협력 및 연구기관 앞	-	0.01	0.19	-	-	-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목적 프로그램/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	-	-	5.50	0.02	-
공동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0.10	-	-	0.03	-	-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	3.48	7.09	7.52	2.69	5.81	49.33

구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미국	스페인	EU
전문가 및 기타 기술지원	13.59	0.94	0.36	1.08	1.80	15.01
공여국 인력지원	0.95	0.13	0.22	0.95	0.51	1.30
기타 기술지원	12.64	0.82	0.13	0.13	1.29	13.71
공여국 내 장학금 및 교육비용	119.90	1.97	0.78	-	0.01	-
장학금 및 직접연수비용	7.39	0.47	0.78	-	0.01	-
간접 연수생비용	112.51	1.50	-	-	0.00	-
채무구제	-	-	-	-	-	-
행정비용	2.75	-	0.56	-	0.01	-
기타 공여국 내 비용	0.10	-	-	-	0.54	0.00
개발인식증진	0.10	-	-	-	0.03	0.00
공여국내 난민지원	-	-	-	-	0.51	0.00

주: 스페인이 집행한 간접 연수생 비용은 3년 평균 174 달러이며, EU가 집행한 기타 공여국 내 비용은 3년 평균 1381 달러(개발인식증진: 797 달러, 공여국내 난민지원: 584 달러임)

자료: OECD/DAC Statistics

<표 3-4> 對 알제리 주요 공여국 · 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단위: 백만 유로, 기준: 2011-13년 평균, 총 지출액 기준)

		ODA 지원 총액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다부문 · 크로스 커팅
			총계	교육	보건	인구 생식	식수 위생	정부 시민 사회	기타	총계	교통 수송	통신	에너지	은행 금융	사업 기타	총계	농수산 임업	산업 광업 건설업	무역 정책 규정	관광업	
1	프랑스	139.92	133.51	125.58	0.07	0.04	-	4.18	3.65	0.01	-	-	-	-	0.01	0.40	0.21	0.12	0.04	0.03	2.98
2	독일	10.01	3.77	2.64	-	-	0.95	0.06	0.12	4.65	-	-	0.05	-	4.61	-	-	-	-	-	1.58
3	벨기에	9.41	4.97	0.36	0.69	0.22	2.28	0.28	1.14	2.69	2.58	0.12	-	0.00	-	0.12	-	0.12	-	-	1.04
4	미국	9.31	0.90	-	-	0.01	0.05	0.78	0.07	0.19	-	-	-	0.19	-	0.08	-	-	0.08	-	-
5	스페인	8.21	2.98	1.66	0.15	-	0.01	0.41	0.75	1.76	1.74	-	0.01	0.01	-	2.02	0.67	1.35	-	-	0.61
6	한국	3.57	0.78	0.23	0.01	-	0.18	0.36	0.00	0.32	0.13	0.14	0.05	-	-	2.23	1.93	0.19	0.11	-	0.12
7	영국	3.50	2.28	1.42	-	-	-	0.80	0.06	0.53	-	-	0.02	0.30	0.20	0.02	0.01	-	0.01	-	0.01
8	스위스	2.63	0.17	0.13	-	-	-	0.04	-	-	-	-	-	-	-	-	-	-	-	-	0.05
9	이탈리아	2.46	0.26	0.22	0.02	0.01	0.01	0.01	0.00	1.86	1.85	-	0.01	-	-	0.24	0.24	-	-	-	0.01
10	일본	2.28	0.75	0.39	0.00	-	0.04	0.22	0.10	0.90	0.15	0.01	0.74	-	-	0.08	0.05	0.00	0.02	0.00	0.55
	DAC 회원국	195.35	151.93	133.73	1.00	0.27	3.51	7.44	5.98	12.90	6.45	0.27	0.87	0.49	4.82	5.29	3.22	1.78	0.26	0.03	7.07
1	EU	69.22	27.62	3.42	2.99	-	7.70	12.01	1.50	6.39	4.34	0.05	-	0.15	1.85	14.30	1.04	11.45	1.80	-	3.49
2	UNICEF	1.11	0.38	0.00	0.02	0.02	0.01	0.07	0.28	0.00	-	0.00	-	-	-	-	-	-	-	-	0.66
3	UNDP	0.80	0.35	-	-	0.00	-	0.35	0.00	0.12	-	-	-	0.12	-	0.05	0.00	0.05	-	-	0.19
4	WHO	0.48	0.48	-	0.46	0.02	-	-	-	-	-	-	-	-	-	-	-	-	-	-	-
5	UNFPA	0.47	0.47	-	-	0.47	-	-	-	-	-	-	-	-	-	-	-	-	-	-	-
	다자기구	73.15	29.65	3.49	3.47	0.78	7.70	12.43	1.78	6.60	4.35	0.14	0.00	0.27	1.85	14.35	1.05	11.50	1.80	0.00	4.69
	총계	2351.4	182.56	137.22	5.44	1.06	11.22	19.87	7.76	19.50	10.80	0.41	0.87	0.76	6.66	36.39	4.27	30.03	2.06	0.03	14.94

주 1) 각 국가는 ODA 지원 총액 순에 따라 정렬하였으며 분야는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및 생산 분야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음

주 2) 총계는 DAC 회원국, DAC 비회원국, 다자기구의 지원액을 총합하여 산출된 것이나, 위 분석에서 DAC 비회원국의 세부분야 지원현황은 생략함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프랑스

2003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이래, 양국 간 관계는 ODA를 통해 상호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 같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최근까지 프랑스는 다른 선진 공여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ODA 금액을 알제리에 지원해왔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3년간 알제리에 평균 1억 3,992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이는 알제리로 유입되는 전체 지원 금액의 48.3%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중점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시민사회, 수자원을 포함한 사회 인프라로의 지원이 전체의 95%(2011-2013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공여국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대 알제리 지원 규모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총 원조 대비 대 알제리 원조는 1.5%를 차지하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인 모로코(8억 7,648만 달러, 9.5%), 튀니지(1억 6,916만 달러, 1.8%)와 비교해볼 때도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⁹⁰⁾

<표 3-5> 프랑스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9442.76	8227.58	9874.65	9347.08	10724.19	9490.29	11303.23	8948.55
알제리	219.19	228.35	177.51	159.15	138.06	146.85	134.89	138.03
비율	2.3%	2.8%	1.8%	1.7%	1.3%	1.5%	1.2%	1.5%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현재 프랑스는 프랑스개발협력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을 중심으로 원조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 알제리와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부(MHESR)는 매년 주요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지원 가능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알제리-프랑스 간 부처 차원에서의 협정 작성을 통해 원조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⁹¹⁾

90) OECD, DAC Statistics

프랑스의 원조 활동은 ‘2000-2012 협력 전략(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2000-2012)’과 2007년과 2013년에 각각 수립된 프랑스의 '1, 2차 5개년 개발원조 국가전략(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DCP)'을 기반으로⁹²⁾ 이루어지고 있다. 양 전략 모두 알제리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 및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춰 민관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 지원 방식은 크게 차관을 통한 재정지원 및 무상원조를 통한 기술협력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알제리 정부의 차관지원 중단 선언에 따라 현재는 기술훈련 및 기술이전 중심으로 지원 중이다.

〈표 3-6〉 프랑스의 對 알제리 제 1, 2차 원조계획

	대 알제리 제 1차 5개년 원조 계획 ⁹³⁾	대 알제리 제 2차 5개년 원조 계획 ⁹⁴⁾
경제·사회 발전 및 산업발전 지원	•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마련 • 생산 부문 발전 • 기술 이동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경제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환경의 현대화 • 양자협력 증진 및 경제주체 간의 이니셔티브 확립 지원, • 지원 우선 분야 선정(농업, 에너지, 교통 및 인프라)
인적자원의 개발	• 알제리 교육 시스템 지원 • 프랑스어 교육 지원 • 관리자 양성 지원 • 협력교수법(Co-Teaching) • 다양성 관점의 문화 관계발전 지원	• 고등교육 및 연구 등 교육 시스템 지원 • 프랑스어 교육 지원 • 문화 교류 확대, • 보건 및 건강
민주주의 강화 및 행정의 현대화	• 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 • 법제도 개혁 지원 • 안보 및 시민 보호 협력 • 국토 개혁 협력 • 분산화 협력	• 행정의 현대화를 통한 정부 역량 강화 •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 경찰 및 헌병대의 치안강화 • 시민 보호 • 도시 환경 계획 • 시민사회의 분산화

자료: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Algeria. and Ministry of Finance of Algeria 2007.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France-Algérie 2007-2012”

91) EU Commission의 ERAWATCH 홈페이지

92)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Algeria. and Ministry of Finance of Algeria 2007.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France-Algérie 2007-2012”

93)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Algeria. and Ministry of Finance of Algeria 2007.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France-Algérie 2007-2012”

94) 주 알제리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랑스 원조는 크게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지원, 인적자원개발 지원, 민주주의 강화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알제리 민간부문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 대상의 신용대출 및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송인프라 및 수자원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그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차관 형태로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철도 화물과 여객수송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철도운영시스템 개선 사업(2006년부터 시행, 8,000만 유로) 및 19개 도의 43개 낙후지역 재건사업(2005년부터 시행, 2,500만 유로)을 지원하였으며, Taksebt 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댐 수자원 전 송, El Kala Annaba 지역의 식수 진단사업, Oran 지역의 수자원 개발조사 사업과 같은 특정 지역의 수자원 관련 사업도 차관 형태로 지원하였다.⁹⁵⁾

<표 3-7>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1)

사업명	알제리 중소기업 육성 사업 CDZ 3007
사업기간	2005.12 체결- 2010.31 완료
사업예산	2,500,000 유로 지원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무역진흥위원회(l' Agence Nationale de Promotion du Commerce Extérieur, ALGEX)), 알제리 상공회의소(la Chambre Algérienne de Commerce et d'Industrie, CACI)
사업의 목적	- 알제리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인터넷 사이트 관련 컨설팅, 세미나 참석 등) - 수출관계자(기업, 은행, 중개무역상 등) 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참여 증진
기대효과	- 기업의 정보접근성 개선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진단 강화

자료: AfD 홈페이지

95) AfD 홈페이지

〈표 3-8〉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2)

사업명	알제 외곽 철도(여객)운송서비스 개선 사업 CDZ 3005
사업기간	2005.5 체결- 2009.12 완료
사업예산	794,000,000 유로 지원(차관 지원)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국영철도회사(la Société Nationale des Transports Ferroviaires, SNTF), 알제리 철도투자청(l'Agence Nationale d'Etudes et de Suivi de la Réalisation des Investissements Ferroviaires, ANESRIF)
사업의 목적	- 기차의 수송역량 개선(화물과 여객 서비스 기능 분리) - 민간 운영방식을 차용하여 철도운영시스템의 간소화 및 효율화
기대효과	- 철도운영비용 절감 - 알제 내 교통체증 완화 및 오염 감소

자료: AfD 홈페이지

인적자원개발⁹⁶⁾ 관련해서는 프랑스 개발청 산하의 기업육성대학인 CEFEB(Université d'entreprise du groupe de l'AFD)가 알제리의 민관 관계자들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학위프로그램 및 기술훈련을 제공해오고 있다.⁹⁷⁾ 또한 각 분야별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수자원관리학교(Higher School of Water Manangement, ESMRE) 개설을 통한 수자원 관리 및 기술 역량 강화 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알제리 재정부, 중소기업신용기금, 중앙 및 지방 은행, 도시개발환경부 관계자들 대상의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표 3-9〉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3)

사업명	수자원 관리 학교 CDZ 1040
사업기간	2009.12 체결 - 2015.12 완료(예정)
사업예산	500,000 유로 지원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수자원부(Ministère des Ressources en Eau), 수자원 경영 대학원(l'Ecole supérieure de managent des ressources en eau)
사업의 목적	수자원 관련 관리 및 기술역량 강화
기대효과	알제리의 수자원 기술·관리 역량 증진

자료: AfD 홈페이지

96) 프랑스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알제리 학생 대상의 프랑스 학위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그 금액이 OD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1억 100만 달러가 쓰였으며, 이는 전체 ODA 금액 대비 74%에 해당한다.

97) CEFEB는 2006년부터 알제리의 Auvergne 경제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알제리 민관 관계자 대상으로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알제리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결 및 세대 통합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통합에서 배제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회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양국 간 120개의 연합회들이 참여한 다자간 운영위원회(Programme Concerté pluri-acteurs, PCPA)를 조직·운영하였다.

〈표 3-10〉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4)

사업명	알제리 JOSSOUR 다자간 운영위원회 CDZ 1053
사업기간	2010.07 체결 - 2014.12 완료(예정)
사업예산	3,160,518 유로 지원(AfD가 2,370,389 유로 지원)
사업수행기관	국제연대 프랑스 위원회 (Comité Français pour la Solidarité Internationale)
사업의 목적	알제리의 시민사회 조직 강화 프로그램
기대효과	알제리 시민사회 조직 활동 강화 사회통합에서 배제된 유아와 청소년 처우 개선

자료: AfD 홈페이지

이 외에도 프랑스는 환경 관련기금인 FFEM(Le Fonds Français pour l'Environnement Mondial)을 통해 알제리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환경문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해 프랑스는 환경적 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보존 및 지중해 연안 6개 국가 대상의 산림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프랑스개발청 산하의 개발금융기관 Proparco⁹⁸⁾를 통해 기업 및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일례로 2009년 약 200만 유로를 알제리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반 강화차원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다.

98) Proparco는 개발도상국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1977년 설립된 프랑스 개발금융기관으로 주로 중장기 상업금융 조달이 어려운 개도국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대출 및 채무보증, 지분 투자 형식으로 현지 금융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국 수출과 관련 없는 언타이드(Untied) 조건으로 상업금융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규모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총 7억 40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표 3-11〉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5)

사업명	연안지대 국가위원회 개발사업 지원 CDZ 1034
사업기간	2006.05 체결- 2013.06 완료
사업예산	3,000,000 유로 지원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연안지대 국가위원회(Commissariat National du Littoral), 국토개발환경부(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environnement)
사업의 목적	알제리 정부의 연안 지역 보존과 운영 정책 이행 과제 지원 (Littoraux-Habibas 섬, Tipaza 내 생태지역 등)
기대효과	- 생물 다양성과 천연자원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관련 법과 행정 규제 개혁·개선

자료: AfD 홈페이지

〈표 3-12〉 프랑스의 알제리 지원 사례(6)

사업명	지중해 생태계 보호(알제리 포함 6개 국가 대상) CZZ1695
사업기간	2011.12 체결- 2015.06 완료(예정)
사업예산	8,500,000 유로 지원
사업수행기관	FAO, BLUE PLAN
사업의 목적	알제리,레바논,모로코,시리아,튀니지,터키 지역의 지중해 환경 보호
기대효과	- 지중해 산림지역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구축에 기여

자료: AfD 홈페이지

〈표 3-13〉 프랑스 Proparco의 알제리 지원 사례

사업명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법 개발
사업기간	2009년 착수
사업예산	2,000,000 유로(주식 투자(Equity Investment))
사업수행기관	Maghreb Leasing Algerie(알제리 시장 내 25% 점유율 보유, 중기 자금 임대 사업 추진)
사업의 목적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반 강화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금융자금에 대한 접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자금 임대 시장 경쟁 증진 - 남-남 투자 활성화를 통한 북부 아프리카의 자금조달력 증진

자료: Prpparco 홈페이지

나. 독일

독일은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1,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원조 규모에 있어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알제리에 지원해오고 있다. 분야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경영 서비스 및 제도 구축 지원과 같은 경제인프라 지원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46.8%로 다른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해당분야로의 지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전체 26%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국 간 기술협력 차원에서 독일-알제리 간 학위 교환 프로그램 및 알제리 강사양성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된 결과에서 기인한다. 한편, 독일의 ODA 총액 중 알제리 지원 비중은 0.1%에 해당하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원조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표 3-14〉 독일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8649.15	9347.15	11043.06	8359.52	9436.61	10239.55	10214.18	11443.70
알제리	9.81	11.38	14.58	15.14	12.17	12.42	9.56	8.05
비율	0.1%	0.1%	0.1%	0.2%	0.1%	0.1%	0.1%	0.1%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독일의 ODA는 독립부처인 독일연방 경제개발협력부(BMZ)에서 정책수립 및 재정 집행을 관할하고 있지만, 원조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은 독일기술협력공사(GTZ)와 개발은행(KfW)이 관장해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분절된 개발원조 집행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국제협력공사(GIZ)를 설립하여 원조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⁹⁹⁾

독일은 알제리 대상의 무상원조 사업 지원에 있어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접근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우선, 지원 분야 및 사업선정에 있어 알제리 정부 측 수요보다는 경제개발협력부(BMZ)의 대외 정책에 따라 원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분야는 독일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녹색 산업(Green Industry)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수원국 상황을 고

99) 김종섭 외. 201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서울: KIEP

려하여 비용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전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제리에 진출한 약 200여개 독일 기업의 비즈니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독일은 주로 통합적 환경정책 구축을 위한 산업분야 공동계획 수립 및 조정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로는 환경보호, 천연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적응, 녹색기술혁신 촉진 중심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과 참여적 환경 거버넌스 구축 지원 사업 등은 알제리 환경 분야의 핵심 사안과 연계된 과제이기도 하다.¹⁰⁰⁾ 이 같은 양자 간 사업 외에 독일은 수자원분야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마그레브 및 MENA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관련하여, 독일은 주력 분야인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알제리 정부와 2년에 한 번씩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된 내용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유연하게 책정하여 집행해오고 있다.

<표 3-15>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1)

사업명	환경 거버넌스 및 식물 다양성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biodiversity)
사업기간	2014.8 착수 - 2018.1 완료(예정)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Environnement(MATE))
사업의 목적	환경 보전을 위한 참여적 환경 거버넌스 방법론 제시 - 다양한 정책 부문에서 환경 주류화 및 대중 인식 제고 -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관계자 역량강화
기대효과	- 식물다양성 및 환경 이슈의 정책 과제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및 영향력 증대

자료: GIZ 홈페이지

100) 알제리 정부는 ‘도시 폐기물 종량 관리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개발(PROGDEM)’ 사업 하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20억 DA 상당을 투자하였으며, 기술매립센터(CET) 설립을 통해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방법개발에 힘썼으나, 효율적인 관리조직 및 절차 부재로 인해 관련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표 3-16>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2)

사업명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사업기간	2014.8 착수 - 2017.7 완료(예정)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Environnement(MATE))
사업의 목적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부 관계자의 행정적인 역량강화
기대효과	-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확보를 통한 행정능력 강화 - 폐기물 관리 센터 운영을 통한 운영 모델(Model) 제시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고용과 연계된 재활용 법령 개발 촉진

자료: GIZ 홈페이지

<표 3-17>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3)

사업명	국가 기후 계획(Plan National Climat-PNC) 수행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limate plan)
사업기간	2014.8 착수 - 2017.7 완료(예정)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Environnement(MATE))
사업의 목적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의 반영
기대효과	- 알제리 국가 기후 계획 수행을 위한 국가 관계자 전문성 강화

자료: GIZ 홈페이지

<표 3-18> 독일의 알제리 지원 사례(4)

사업명	지속가능한 혁신 및 고용 (Sustainable innovation and employment)
사업기간	2013.12 착수 - 2016.3 완료(예정)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산업부(Ministère de l'Industrie et des Mines)
사업의 목적	지역혁신 및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녹색 관련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국가혁신전략 취득 - 선별된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 - 비즈니스 스타트업 지원

자료: GIZ 홈페이지

〈표 3-19〉 독일의 환경 분야 지역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명	사업기간
마그레브 수자원 분야 지역 협력	2013.9 - 2015.6
MENA 지역 수자원 분야 기후변화 대응 사업	2011.1 - 2015.12
MENA 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정책 도입 사업	2009.12 - 2015.12
MENA 지역의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형성 사업	2012.9 - 2015.8
수자원 및 에너지 과학기술원 설립(기후변화연구 포함)	2011-2016

자료: GIZ 홈페이지

다. 벨기에

2013년 기준으로 벨기에의 알제리 원조 지원은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약 1,0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벨기에의 ODA 총액 대비 알제리에 대한 지원액은 2008년을 기점으로 1% 미만으로 감소한 것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분야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교통·수송과 같은 기초인프라 비중이 최근 3년 기준으로 27%를 차지하여 타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식수위생과 같은 사회개발 분야도 24%를 나타내며 상당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단위로 보았을 때, MENA 지역에 대한 공적원조 비중은 벨기에의 ODA 총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의 난민지원 및 모로코 지원에 집중되어 역내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알제리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 ODA 예산의 0.8%에 그치고 있다.

벨기에는 개발협력국(Belgian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DGDC)이 공적원조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청(Belgium Development Agency)이 사업수행을 전담하고 있다.

〈표 3-20〉 벨기에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1418.22	1317.03	1482.66	1663.39	2126.41	1990.65	1476.97	1364.17
알제리	16.00	16.00	11.79	12.22	12.89	10.60	7.28	10.35
비율	1.128%	1.215%	0.795%	0.735%	0.606%	0.532%	0.493%	0.758%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벨기에는 지난 2013년 수립된 ‘벨기에-알제리 협력 프로그램 2014-2017(Cooperation Programme Between Belgium and Algeria 2014-2017)’에 기반하여 원조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목적은 알제리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이며, 이를 위해 통합 폐기물관리 및 환경기술 전수 관련 프로젝트와 정부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¹⁰¹⁾ 사실 기존 벨기에의 원조가 보건과 같은 기초사회개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지원 전략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기초사회 개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알제리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자국 내 선진 환경 기술 이전을 통해 벨기에 토착기업의 알제리 시장 진출기반 마련이 고려된 결과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사업은 양자지원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다만 가정폐기물 처리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양국 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다자지원은 2013년도 UNDP 프로그램을 통해¹⁰²⁾ 소규모로 지원된 바 있다.

벨기에가 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마스카라(Mascara) 지역 폐기물 관리 사업과 Kouba 지역의 병원폐기물 관리 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Algiers 시내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00대의 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알제리 내 3개의 소외지역(Sidi Fredj, Quillen, Merahna)에 대한 중기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식수위생 및 의료와 같은 기초서비스부터 창업을 위한 소액대출시스템 구축 등 타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¹⁰³⁾

101) BTC, 2014, “Cooperation Programme Between Belgium and Algeria 2014-2017”

102) UNDP Junior Professional Officer-Analyst Coordination

103) BTC 홈페이지

<표 3-21> 벨기에의 알제리 지원 사례(1)

사업명	마스카라지역 폐기물 관리 사업 (Gestion intégrée des déchets ménagers dans la wilaya de Mascara)
사업기간	2009-2014
사업예산	16,335,000 유로 - 벨기에 부담금: 9,000,000 유로 - 알제리 부담금: 7,335,000 유로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국토환경부(Le Ministè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l'Environnement, MATE)
사업의 목적	마스카라 지역의 18개 시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해당 프로젝트는 통합 폐기물관리 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de Gestion intégrée des Déchets Municipaux, PROGDEM)의 일환으로 진행 됨
기대효과	-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 이전 및 처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설립 (Entreprises Publiques à Finalité Industrielle et Commerciale, EPIC) - 폐기물 수거를 위한 계획, 기관, 인프라·장비 설치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통합인프라 마련

자료: BTC 홈페이지

<표 3-22> 벨기에의 알제리 지원 사례(2)

사업명	쿠바지역 Bachir Mentouri 병원 폐기물 관리 사업 (Gestion des Déchets à l'Hôpital Bachir Mentouri de Kouba)
사업기간	2007-2011
사업예산	575,000 유로
사업수행기관	알제리 토지관리부 환경도시과
사업의 목적	Kouba 지역 병원 폐기물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기대효과	- 병원 내 폐기물 수거·관리·처리 및 유독성 폐기물 임시보관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장비 도입 - 전문가 인력대상 폐기물 소각관련 교육 - 병원 수준에서의 필요사항 대응

자료: BTC 홈페이지

라. 미국

미국은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평균 9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알제리 인근 유럽국가인 독일, 벨기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ODA 총액 대비 0.1% 이하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미국 총 원조지원 규모 대비 알제리에 대한 공여 규모는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 알제리 ODA는 전쟁 피해복구 및 난민 대상의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및 사회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인도적 지원 비중이 전체 ODA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3〉 미국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2013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22144.72	19794.81	24422.13	25526.94	27384.68	28278.10	26042.20	27266.16
알제리	0.78	1.69	9.11	8.07	8.58	9.14	10.74	8.04
비율	0.004%	0.01%	0.04%	0.03%	0.03%	0.03%	0.04%	0.03%

자료: OECD, DAC Statistics 재구성

미국의 알제리 대상 원조 활동은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효율적인 원조 지원을 위해 국별전략보고서(CDCS)를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알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⁰⁴⁾ 미국의 대 알제리 원조에서 강조되는 것은 안정된 사회제도 건설을 통한 안보 강화, 테러와 범죄 대책 마련, 알제리 시민 사회에 대한 지원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중동협력이니셔티브(MEPI)의 펀딩을 통한 민관전문 인력의 육성, 경제 발전 지원, 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⁵⁾

대표적인 원조 지원 사례로는 미국 국제개발청의 평화식량사무소(Office of Food for Peace, FFP)를 통한 알제리 남서쪽 Tindouf 지역 인근 난민수용소 대상으로 식량 및 가축사료를 지원한 사업이 있다. ¹⁰⁶⁾ 이 외에 기술인력의 미스매칭(mismatching)

104) USAID 홈페이지

105)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106) USAID 홈페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nstantine 지역의 멘토리(Mentouri) 대학 내 경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¹⁰⁷⁾

마. 스페인

스페인은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821만 달러를 지원하여 ODA 총액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5번째로 많은 금액을 알제리에 지원해오고 있다. 그 지원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급락하는 등 2006년 7,816만 달러에서 2013년 765만 달러로 그 지원금액이 1/10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수송인프라 개선을 위해 알제리 정부가 2006년부터 약 4년간 다량의¹⁰⁸⁾ 기관차와 지하철 차량을 스페인으로 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차관이 만료되고, 2009년 유럽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무상원조 금액이 추가적으로 감축된 결과이다.¹⁰⁹⁾

분야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수송과 같은 경제 인프라와 교육에 대한 비중이 각각 최근 3년 평균 20% 이상을 차지하여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스페인의 ODA 총액 중 알제리 지원 비중은 0.65%에 해당하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원조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107) USAID 홈페이지

108) 알제리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동디젤 기관차 17대 및 지하철 차량 14대를 스페인으로부터 차관 도입하였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알제리	78.16	63.96	70.50	60.02	16.17	14.96	2.01	7.65
Grant	26.9	24.87	7.42	11.86	11.37	14.96	2.01	3.44
Loan	51.26	39.09	63.08	48.16	4.80	-	-	4.21

109) PIGS중 한 국가인 스페인은 2011년 심각한 국가경제위기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전체 수원 대상국들에 대한 ODA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동디젤 기관차 17대 및 지하철 차량 14대를 스페인으로부터 차관 도입하였다.

〈표 3-24〉 스페인의 對 알제리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6-2013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2287.20	3544.50	5411.29	4739.73	7389.81	2578.61	1071.37	1174.34
알제리	78.16	63.96	70.50	60.02	16.17	14.96	2.01	7.65
비율	3.417%	1.804%	1.303%	1.266%	0.219%	0.580%	0.188%	0.652%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알제리에 대한 원조는 스페인 국제협력단(AECID)과 외교부(MFA)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알제리 대상의 지원전략이 수립된 상태는 아니나 스페인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협력 마스터플랜(Plan Director de la Cooperación Española 2013-2016)’에 따른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 애드보커시 확립 등이 알제리에서 지원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2011년부터 아랍권 정치·경제·사회 안정화에 힘쓰는 차원에서 마사르(Masar)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알제리에서도 사회 및 경제법 분야 이슈에 대한 기술전수, 역량강화 및 정책컨설팅이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스페인은 알제리의 경제인프라 부문은 주로 차관으로, 그 외 나머지 부문은 무상원조를 통해 지원해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랍권 경제·사회 안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 사업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 보인다. 또한 인도적 지원(난민 지원)도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153만 달러(20.1%)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이전 지원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근 스페인으로의 난민유입이 증가¹¹⁰⁾한 것과 연계 지을 수 있다.

〈표 3-25〉 스페인의 알제리 지원 사례(1)

사업명	알제리 2013 사법기관 운영시스템 현대화 및 기관 역량강화 (Algeria 2013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modernization, working processes of the judgeship system)
사업기간	2013년-
사업예산	139,405.20 달러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110) 6563('10)→6934('11)→7336('12)→9120('13),(출처: UNHCR 홈페이지 통계)

<표 3-26> 스페인의 알제리 지원 사례(2)

사업명	난민집중지원 센터 (Centers for the attention of refugees)
사업기간	2013년-
사업예산	717,684.36 달러
사업의 목적	주거, 보호 및 정신적 치료지원, 응급의료 지원 및 기타 사회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센터 설립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표 3-27> 스페인의 알제리 지원 사례(3)

사업명	Ceuta 및 Melilla지역 내 망명 및 보건지원 사업 (Grants of asylum and healthcare in Ceuta and Melilla)
사업기간	2013년-
사업예산	717,684.36 달러
사업의 목적	스페인 내 거주하는 난민들의 수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육성 및 Ceuta 및 Melilla 지역 내 임시보호소 내 위생 강화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유럽연합(EU)

EU는 최근 3년간 약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원조 규모면에서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EU의 MENA 지역 국가 대상의 ODA 총액과 비교했을 때 대 알제리 지원 비중은 2.9%로, 주변국인 튀니지(22.3%)와 모로코(21.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8> EU의 MENA 지역내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2년	3년 평균	
					규모	비중
1	튀니지	478.26	602.80	503.01	528.02	22.3%
2	모로코	419.27	505.74	574.65	499.89	21.1%
3	가자 지구	399.77	317.59	358.89	358.75	15.2%
4	이집트	112.65	796.45	121.84	343.65	14.5%
5	요르단	145.13	137.19	222.79	168.37	7.1%
6	레바논	117.60	84.93	203.22	135.25	5.7%
7	시리아	39.85	35.76	181.99	85.87	3.6%
8	알제리	79.74	60.39	67.53	69.22	2.9%
9	예멘	53.00	64.27	76.09	64.45	2.7%
10	이라크	13.35	91.58	84.30	63.08	2.7%
11	리비아	49.44	29.21	60.08	46.24	2.0%
12	이란	0.98	3.61	3.75	2.78	0.1%
합계		1,909.04	2,729.51	2,458.15	2,365.57	100.0%

자료: OECD, DAC Statistics 재구성

EU는 알제리 정부의 현안 이슈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개혁 및 산업다각화, 인권 문제 해결(민주주의, 거버넌스, 안보 확보 관련), 교육에 대한 MDGs 달성을 3대 지원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 8개 전략을 알제리 대상 ‘국가전략보고서(CPS)’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상자 3-1] EU의 알제리 대상 CPS(2007-2013)

- 민주주의 기반의 정치 개혁 및 굿 거버넌스 확립
- 사법제도 개혁, 이민자 관리, 범죄 대처, 돈세탁 및 테러리즘 방지
- 경제 다변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보, 경쟁력 있는 기업(중소기업) 성장, 경제성장 및 실업률 감소
- 환경, 사회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
- 교육의 발전, 기술교육, 고등교육, 과학 연구활동의 증진
- 예산 균형을 기반으로 한 사회프로그램의 강화
-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용이성, 평가의 표준화, 현대화된 관세 절차(안보 및 국제 공급망 적용)
- 국가 전역 및 지역단위 인프라 구축 및 유럽 지역과의 상호 교류 체계, 사회 부문에서의 정보 개발

자료: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2014. “Overview of Activities and Results 2007-2013”.

이 같이 구축된 전략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National Indicative Program, NIP)을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우선 2007년 발표 된 NIP(2억 2,000만 유로)는 경제발전 및 고용 증진, 사법구조 개혁, 공공서비스 부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NIP(1억 7,200만 유로)는 산업 및 무역다각화를 통한 경제 발전, 환경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해당 프로그램 하에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프로젝트와 예산지원 형식으로 지원되었으며, 특정 분야의 인력양성이 필요한 경우 기술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EU는 2011년 ‘아랍의 봄’ 사건 이후로 남지중해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화 및 경제개혁 추진에 대한 자금(Spring fund)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알제리도 거버넌스 구축 자금으로 1,0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표 3-29> EU의 對 알제리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NIP) 분야별 지원 규모
(단위: %, 2011-2013 기준)

프로그램명	예산지원	지원 우선순위	프로그램 지원 비중	예산 지원 비중
2007-2010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NIP)	- 프로그램: 2억 2,200만 유로 - 예산: 1억 8,410만 유로	경제 발전 및 고용	51.4	54.6
		기초공공서비스 강화	40.9	36.1
		사법구조 개혁	7.7	9.2
2011-2013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NIP) and SPRING	- 프로그램: 1억 7,200만 유로 - 예산: 1억 7,200만 유로 (Spring: 1,000만 유로)	경제 성장 및 발전	57.0	47.5
		지속가능 발전 및 문화	43.0	47.0
		민주주의 전환 및 제도 구축	n/a	5.5

자료: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Overview of Activities and Results 2007-2013”, 2014

세부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EU가 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경제·무역, 인프라, 환경 부문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EU는 알제리의 석유 의존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산업 및 무역다각화를

지원하고자 농업, 농가공업, 관광업과 같이 비석유 부문 중 수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제약과 식품업과 같은 주요 산업부문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산업협회 및 기술지원 센터를 통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EU와 지중해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송인프라 관련해서도 항공, 항만과 같이 EU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기반 구축부터 모니터링, 안전관리까지 전사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EU와 알제리간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수처리 및 재생에너지 부문의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환경, 에너지 부문 협력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 경제·산업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하여, 2010년부터 4년 간 진행한 지중해 지역 국가 대상의 통합 수자원 관리 메커니즘 구축 사업 및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지중해 청정에너지 도시(CES-MED) 사업을 통한 알제리 3개 도시 대상의 에너지 분야 액션플랜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¹¹¹⁾

<표 3-30> EU의 對 알제리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분류	프로젝트 명	기간	금액	내용
경제· 무역 다각화	AA ¹¹²⁾ 이행 지원(P3A)	2009.02-2017.12	7,600만 유로	AA(Assoication Agreement)이행 차원의 기술지원
	중소기업 지원(PME II)	2008.03-2014.03	4,400만 유로	PPP/산업협력채널 구축 및 경영 인프라 구축을 통한 ICT 기반의 중소기업 서비스 지원
	비석유부문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2011.01-2015.03	2,000만 유로	비석유 부문(농업, 농식품업, 관광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계)시스템 개선 및 인적역량 강화 지원
	북서지역 경제·사회 발전 지원 ¹¹³⁾	2014-2018	2,000만 유로	지역발전을 위한 북서 산간 6개 지역 중심의 직업훈련 및 소액대출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111) EU Neighbourhood Info Center 홈페이지

112) AA(Association Agreement)는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알제리와 EU 양자간 관계를 통치하는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로, 2005년에 발효된 이후 EU는 알제리의 경제 자유화(무역개방, 공개경쟁 등)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행 3단계(P3A)에서는 기술지원을 통한 AA 이행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3) 알제리의 사회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북서 산간의 6개 도(Wilayas)(Saida, Tiaret Qued, Tissemsilt, Ain Defla, Chlef, Medea)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소액대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서비스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류	프로젝트 명	기간	금액	내용
경제·무역 다각화	농촌개발 및 농업 부문 시범 활동 ¹¹⁴⁾	2014-2018	2,000만 유로	중부 3개 농촌 지역의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
	농업, 농식품 연구실 지원	2012.08-2014.08	117만 유로	농업 데이터 가공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농업연구소(INRAA) 내 농업 연구실 설립 지원
	수산업 및 수산양식업 발전 위한 국가연구센터 역량 강화	2012.07-2014.07	114만 유로	연구 역량강화를 통한 수산 자원 개발, 관리, 평가 지원
	통계역량강화 (MEDSTAT III)	2010-2013	700만 유로	통계 데이터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데이터 수집 지원
수송 인프라	수송인프라 부문 지원 II	2012.12-2016.12	1,650만 유로	수송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규제 개혁 지원
	민간항공 및 기상 안전관리 지원	2013.04-2015.04	145만 유로	알제리 교통부 민간항공 및 기상국(DACM)의 안전관리시스템 실행 지원(안전관리 연수 실시 등)
	해운 수송 지원 (MEDA-MOS II)	2010.10-2013.10	600만 유로	MEDA-MOS I 프로그램 모니터링, 물류 운영 개선, 제도적 기반 구축,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환경/ 수자원	지속가능한 통합 수자원 관리	2010.12-2014.12	2,200만 유로	수자원 악화로 인한 피해 진단 및 관리/개선 액션 수립
	식수 위생 지원(EAU II)	2014.09-2015.09	4,000만 유로 (EU:3,000만 유로)	알제리 정부의 식수 및 위생 전략 지원(예산 지원)
	환경 부문 지원 (PAPSE)	2013.12-2017.11	3,400만 유로	알제리 국가 환경부문 전략 수행을 위한 제도 모니터링 및 분석 역량 강화
에너지	에너지 작물 재배 지원*	2011-2015	182만 유로	에너지 작물 (자트로파(Jatropha)) 수확 및 추수 환경 개선
	지중해지역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 (CES MED)*	2013.01-2016.01	440만 유로	지중해 인근 18개 도시의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 액션플랜 준비 과정 지원,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재생 전력 관련 지역 협력*	2013.09-2017.09	747만 유로	대체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 통합을 위한 연구 및 분석

분류	프로젝트 명	기간	금액	내용
사회기반 서비스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분야 정책지원(PAP S-ESRS)	2011-2015	2,150만 유로 (EU: 1,710만 유로)	고등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수요에 맞춘 Licence-Master-Doctorate(LMD) 연계기반 강화, 산-학 연계기반 강화 기술지원
거버넌스	정치·경제 거버넌스 지원	2013.12-2016.12	1,245만 유로 (EU: 1,000만 유로)	국가 청렴도 강화 및 공공관리시스템에의 국민 참여 강화 차원에서 거버넌스 모니터링 지원

주: *는 지역협력사업임

자료: EU. 2014. “Rapport sur la coopération Union Européenne-Algérie 2014”

<표 3-31> EU의 알제리 지원 사례(1)

사업명	중소기업 지원(PME II)
사업기간	2008.03-2014.03
사업예산	4,400,000 유로
사업 배경	알제리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따라 EU는 570만 유로를 투입하여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범사업 및 신용보증기금 설립 지원 사업(PME I, 2007년 종료)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둠. 후속사업으로 2008년부터 알제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PME II) 실시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산업기술센터(Industrial Technology Center)와 전문협회를 통한 기술지원. 이 기관들은 주요산업분야(제약, 음료, ICT 등) 중심으로 중소기업에게 민관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인프라 질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 성과	- 총 235개 중소기업 중 140개 기업 대상으로 경영진단, 86개 기업 대상으로 활동 업그레이드에 대한 컨설팅 제공 - 110개 기업 대상으로 6개 전문협회(제약, 식음료, 벽돌, ICT 등)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지원 - 알제리제약협회 협조 하에 12개의 훈련모듈을 20개의 중소 제약업체에 적용 -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약, ICT, 기계 분야 사업 성공사례 공유

자료: EU. 2014. “Rapport sur la coopération Union Européenne-Algérie 2014”

114) 알제리 중부 농업지역의 3개의 도(Ain- Temouchent, Laghouat, Setif, Tiemcen) 대상으로 지역 산업다각화를 위한 산업컨설팅 및 기술인력양성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 3-32〉 EU의 알제리 지원 사례(2)

사업명	비석유부문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기간	2011.01-2015.03
사업예산	2,000만 유로
사업 배경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석유 부문 중 수출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의 정보 및 통계 시스템 개선과 관련 부처의 정책적 역량 강화
사업 내용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적 역량, F/S, 전략수행능력 진단. 프로젝트 형식(초청연수트레이닝, 컴퓨터 실험실 등의 장비 지원)으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Start-up) 지원 및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성과	-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춰 기술지원 진행 • 농업: 각 부처의 관리 역량 강화, 지역생산물에 대한 홍보 역량강화 • 농가공업: 타당성조사 지원(포장 관련 기술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시행), 스타트업 지원 • 관광업: 가이드 트레이닝 제공,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자료: EU. 2014. “Rapport sur la coopération Union Européenne-Algérie 2014”

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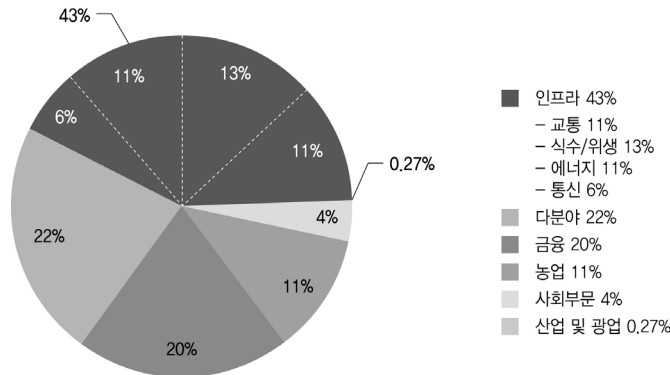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의 대 알제리 지원 규모는 다자기구의 최근 3년 간 지원 총액 대비 0.5% 미만을 차지하여 대 알제리 ODA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 최근 3년 간 지원 평균 금액도 25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변 국가인 모로코(116만 달러)와 튀니지(86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fDB의 대 알제리 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AfDB는 알제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무상원조보다는 차관 중심으로 지원해왔다. 1970년대부터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지속해오다가 그 이후 지원을 잠시 중단하였다. 하지만 알제리 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증대와 맞물려 수송인프라를 중심으로 차관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차관 지원 분야로는 교통, 수자원 부문을 포함한 인프라,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이 있다.

115) AfDB. 2011. “2011–2012 Algeria – Country Dialogue Note”

[그림 3-3] AfDB의 對 알제리 차관 지원 분야(2014)

(단위: %, 2013년)



자료: AfDB. 2014. "50 ANS DE PARTENARIAT STRATEGIQUE D'EXCEPTION"

AfDB는 중·소득국가(MICs)로 분류되는 알제리의 현 경제 수준을 감안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CPS)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반영한 지원전략을 수립 중이며, 그 과정에서 알제리 재무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지원 방법 및 접근법에 대해서는 내·외부 평가를 진행 중이다.

AfDB가 현재까지 대 알제리 개발협력에서 주력해온 분야로는 공공부문 역량강화, 민간부문 발전 지원, 지역 통합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 및 연구 지원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 CNED(National Development Equipment Institution) 기술 지원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알제리의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재무부, 중앙은행과 같은 공공금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혁(reform) 전략 수립 및 사업수행, 평가 역량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 육성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중재기능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공공은행의 정보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고, 민간부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대상의 지역통합전략(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수립 차원에서 무역 활성화 및 금융 통합과 같은 지역 중심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 형성 및 정부 공무원 을 포함한 관계자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AfDB는 알제리 대상의 사업지원 자금을 중소득국가 대상 기술지원펀드 (Technical Assistance Fund for Middle-Income Countries) 및 거버넌스 펀드와 같은 부문 별 지원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표 3-33> AfDB의 對 알제리 프로젝트(2007-2014)

프로젝트 명	기간	금액
농장 신설을 위한 기술지원 (Technical Support to Create New Farm)	2013.11- 계속	504,000 UAC
차세대 농업 경영인 지원 (Project to support the promotion of young agricultural entrepreneurs)	2012.12- 2015.12	504,000 UAC
금융기관의 자금중재기능 개선을 위한 공공금융기관 현대화 지원 (Support for Overseeing the Modernization of Public Banks)	2012.08- 2015.12	750,000 UAC
알제리 재무부 역량강화 (Reinforcement of Capacities of the Ministry of Finance)	2011.11- 2015.12	497,000 UAC
알제리 재무부 시스템 현대화 (Modernization of Collaboration/Communic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Finance)	2009.07- 2015.06	496,500 UAC
전자금융 발전 기술지원 (Electronic Banking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2007.11- 계속	494,800 UAC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반 강화 (Maghreb Leasing Algeria)	2009.04-	5,340,739 UAC
공공투자사업의 수행 및 평가 역량 강화 (Technical Assistance to CNED(National Development Equipment Institution))	2007.05- 2013.06	600,000 UAC
e-경작전략 구축지원 (Project to Support e-Algeria Cropping Strategy)	2014.02- 2015.12	798,652 UAC

자료: AfDB. 2014. "50 ANS DE PARTENARIAT STRATEGIQUE D'EXCEPTION"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2011년 아랍의 봄 사건 이후 MENA 지역 내 사회적 안정 및 시민사회 단결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알제리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MENA 지역 내 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전통적인 공여국이자, 과거 식민국가에 대한 원조 기여도가 높은 프랑스의 경우도 전체 ODA 지원 금액의 1.7%만을 알제리에 지원해오고 있으며, 전체 다자기구 지원 금액 중 95%를 담당하 EU의 경우도 주변국인 모로코, 튀니지에 지원하는 금액의 7분의 1 수준만을 알제리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유가 상승과 함께 지속된 경제 호황으로 인한 해외 차관에 대한 낮은 의존도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원조 수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추세는 알제리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원조 공여국 및 다자기구들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자국의 기술적인 비교우위 및 중소득국가라는 알제리의 수원국으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은 폐기물처리 및 민간부문육성 등 자국이 비교우위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심으로 기술협력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알제리의 산업·민간부문 육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아프리카 지역 정세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알제리에 기 진출한 독일기업의 활동기반을 확보하고자하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벨기에의 지원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벨기에에는 대표적으로 보건, 농촌개발과 같은 기초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원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기초사회부문 개발이 잘 되어있는 알제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기술을 활용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산업 및 경제개발 원조사업 외에 사회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로 국한되며 기초사회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다른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이 고유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원조 전략을 수행해오

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원조 전략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득국가라는 알제리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경제·산업 분야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비용대비 효과성 극대화 차원에서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중심의 기술이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독일과 벨기에의 사례는 한국의 對 알제리 ODA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4〉 국제사회의 對 알제리 지원 내용 비교

구분	프랑스 (Afd)	독일 (GIZ)	벨기에 (BTC)	미국 (USAID)	스페인 (AECID)	EU	AfDB
지원 규모 (2011-2013년 평균치, 백만 달러)	139.92	10.01	9.41	9.31	8.21	69.22	0.25
지원 특징	- 경제/산업발전 지원(중소기업, 인프라(차관), 수자원(차관) 등) - 알제리 민관관계자 대상 교육훈련 - 수익성 기반 민간투자자 금융지원 (개발금융 활용)	- 자국 경쟁력 확보 분야인 녹색산업 중심 지원(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녹색 관련 일자리 창출 등) - 자국기업 진출기반 확보	- 자국 경쟁력 확보 분야인 녹색산업 중심 지원(가정 및 병원 폐기물) - 자국기업 진출기반 확보 - 지역균형개발 지원	- 정치적 안정 지원(전쟁 피해복구 및 난민 지원)	- 경제인프라(수송 인프라 개선) 관련 차관제공 - MENA 지역 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및 인도적 지원 - 경제위기이후 대폭 예산 삭감	- 산업/무역 다각화 지원(수출경쟁력 강화, 민간부문 지원) - 수송인프라 개선 지원 - 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 민주화 지원 (spring)	-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차관 제공 - 공공/민간 부문 역량강화
지원 분야	경제/산업발전, 인적자원 개발, 시민사회, 환경 등	환경, 민간부문 육성 등	환경(폐기물), 지역균형개발 등	인도적 지원 등	거버넌스, 난민지원, 경제인프라 등	경제/무역, 인프라, 환경, 에너지, 사회기반서비스, 거버넌스	경제인프라 및 민간육성 (차관)
지원 방식	차관, 프로젝트, 인적역량강화, 기술협력	프로젝트, 인적역량강화 기술협력	차관, 프로젝트, Multi/bi(소규모)	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젝트, 기술협력	차관, 프로젝트, 기술협력	예산지원, 프로젝트, 기술협력	기술협력, 인적역량강화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한-알제리 협력현황

〈표 3-35〉 한국과 알제리의 관계

외교관계 수립	1990. 1. 15. 수교(북한과는 1963. 4. 18. 수교)			
주요협정체결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0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0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협정('04), 해상운송협정('06),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06)			
무역현황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백만 달러)	1,122	1,131	1,024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천연가스, 원유
수입(백만 달러)	130	302	893	
투자현황	2011	2012	2013	2013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3	2	2	34
천 달러	89	56	1,449	206,03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5년 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알제리와 한국과의 관계는 1990년 1월 양국 대사관 설치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비우호적이었다. 대신 알제리와 북한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과거 ‘알제리 전쟁’에서 북한이 알제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계의 기반을 다졌고, 1962년 독립 이후 알제리가 사회주의 노선을 본격적으로 채택하면서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친북성향의 알제리와의 협력은 한국에게 있어선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알제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1973년 석유파동 당시 비동맹 제3세력의 대표 국가로써 알제리는 공산 안(案)을 지지하고 반한정책(反韓政策)을 마련하는 등 한국과의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개방으로 알제리도 외교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소련의 경제 개방 이후 자국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필요성을 느낀 알제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면서 개발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다. 때마침 열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은 관계를 재정비하고, 1991년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게 된다.

수교 이후 알제리가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 여김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실질적으로 교류가 미미했던 북한과는 점차 거리가 생기게 되었으며 1998년 상호 상주공관을 철수하는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양 국가 간의 협력관계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¹¹⁶⁾

대 알제리 교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및 관련 부품, 건설 기자재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각종 토목, 발전,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자재 수요는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하여 알제리 정부가 수입 규제를 확대하면서 해당지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졌고, 이를 반영하듯 대 알제리 자동차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존 대 알제리 교역은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 탄화수소 관련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조만간 수입실적이 수출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원유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수입량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¹¹⁷⁾

2. KOICA의 지원현황

KOICA는 ‘KOICA 중기전략 2010-2015’에서 사업수행 선진화를 위한 여러 계획 중 하나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알제리는 OECD DAC 수원국 중에서도 중·고소득국에 속하는 국가¹¹⁸⁾로 한국의 원조대상국 목록¹¹⁹⁾에서도 제외되었다. 알제리는 현재 비중점 협력국에 속하며 CPS 또한 수립되지 않은 국가이다.

알제리에는 KOICA 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현재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다. 현재 26개로 선정된 중점 협력국을 보다 축소시켜 유·무상 원조

116)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117) KOTRA 알제 무역관 홈페이지

118) OECD. 2012.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12 and 2013 flows”. Paris: OECD Publishing.

119) ‘국회 정기국회(311회) 박주선 의원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중점협력국을 위해 제 1단계에서 DAC수원국 중 중하위소득 이하의 국가를 선별 후 제 2-3차에서 정량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DAC 수원국은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중고소득국으로 구분되며, 알제리는 중고소득국으로 분류된다.

에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과 KOICA의 중기전략 중 사업수행선진화 전략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알제리 대상으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KOICA의 대 알제리 지원 방향은 알제리의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수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2013-2014년의 경우 농수산업 활성화, 기초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 및 ICT 기술발전을 3대 목표로 추진되었다. 현재 KOICA는 알제리의 발전 정도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보다는 개발컨설팅, 정책자문, 기술협력,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 파견 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기대효과와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글상자 3-2] KOICA의 對 알제리 지원 목표 및 방향(2013-2014)

<목표 1> 농수산업 활성화

수산업 및 농업 분야는 알제리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비 원유부문으로의 산업다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KOICA 역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개발컨설팅사업(DEEP), 기술협력사업 등의 프로그램 지원

<목표 2> 기초 인프라 확충

주요 국가개발계획의 한 축인 기초 인프라 확충 분야는 알제리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확대 노력과 맞물려 다수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분야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알제리 정부의 추진 및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프로그램 형성

<목표 3> 과학 기술 및 ICT 기술 발전

과학기술 및 ICT 발전 분야는 2006, 2007년 양국 정상 간 교류를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첨단 기술 교육 및 연구, 기업 인큐베이팅 등 산학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여 '첨단아프리카센터 운영 지원 사업(2013-2018/1,200만 달러)'을 정상 약속 사업으로 추진

자료: KOICA 홈페이지

KOICA의 대 알제리 지원규모는 1992년 이래 2013년까지 총 2,148만 537 달러이며, 최근 10년 내 지원 규모는 2,085만 달러로 연도별 대 알제리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3-36> KOICA의 對 알제리 연도별 지원 규모

(단위: 천 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1,130	65	259	1,700	2,546	2,973	1,808	2,474	2,734	1,681	3,484

자료: KOICA 실적통계

KOICA의 사업은 프로젝트, 개발조사, 긴급원조,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2003-2013년 간 프로젝트는 총 6건(1,154만 655 달러)이 실행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 각각 1건의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 이후 별도의 추가 사업 지원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개발조사는 3건(234만 6,900만 달러)이 실행됐으나 최근 5년 내에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긴급 원조 1건(10만 1,000 달러, 2003년), 전문가 파견 1건(5만 2,500 달러, 2010년), 해외봉사단 1건(1만 3,600 달러, 2011년)이 이루어졌다.

최근 10년 내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연수생 초청이다. 연수생 초청은 2003-2013년 간 679만 9,338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2006년 이전(1991-2005)까지 진행된 초청 연수 참가자는 총 78명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부터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초청 수가 166명에 달하였다. 연수 분야 또한 점차 다양해져 최근 5년 내에는 정보통신, 해외직접투자, 신도시 개발, 철도·교통 및 인프라, 석유화학 발전, 수자원 개발, 경제개발 전략, 중소기업 육성, 농업 및 수산 정책 및 개발, 방송기술 역량 강화 등 다방면에 걸쳐 초청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7> KOICA의 對 알제리 초청연수 지원 규모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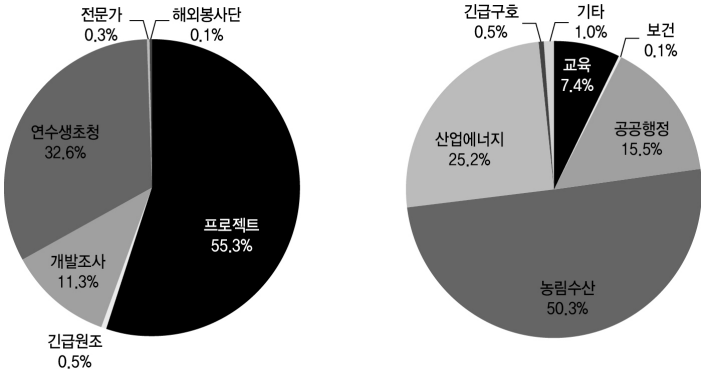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71	49	17	830	807	369	576	797	1,009	1,200	1,068
인원	14	11	2	95	91	61	99	102	134	166	114

자료: KOICA 실적통계

KOICA의 대 알제리 원조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 분야가 1,049만 4,205 달러(50.3%)로 가장 높으며, 산업에너지(525만 4,368 달러), 공공행정(322만 3,062 달러), 교육(154만 4,920달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KOICA의 對 알제리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2003-2012년)



자료: KOICA 실적통계

<표 3-38> KOICA의 對 알제리 무상원조 사업형태별 추진실적

(단위: 천 달러, 2003-2013년)

연도	사업형태	금액	사업내용
2003년	긴급원조	101.69	• 지진피해복구
	개발조사	957.70	• (신규) 시디압딜라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수생초청	71.58	
2004년	프로젝트	6.83	• (신규)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전조사
	개발조사	9.14	• (계속) 시디압딜라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수생초청	49.35	
2005년	프로젝트	241.35	• (계속)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전조사
	개발조사	0.2	• (계속) 시디압딜라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수생초청	17.82	• 정보통신정책 1명 • 한국어 교육(초급) 1명

연도	사업형태	금액	사업내용
2006년	프로젝트	869.15	• (계속)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전조사
	연수생초청	830.64	• 공무원특별연수 1차 - 자본시장 육성 21명 • 공무원특별연수 2차 - 기업관리 평가 20명 • 공무원특별연수 3차 - 민영화 22명 • 공무원특별연수 4차 - 공공서비스정책 21명 • 개별연수 11명
2007년	프로젝트	737.84	• (신규)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사업
	개발조사	1,000.24	• (신규) 국가산업정책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신규) 선박안전관리 체제구축 지원
	연수생초청	807.82	• 정보통신진흥 20명 • 해외직접투자 21명 • 신도시 개발 20명 • 체제전환 경제의 금융시장 22명 • 전력기술 등 6개 과정 개별연수 6명 • 학위과정 2명
2008년	프로젝트	2,223.59	• (계속)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사업 • (신규) 새우양식장 건설 및 양식기술 이전사업 • (신규) 산업정책개발 자문사업
	개발조사	379.63	• (계속) 국가산업정책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계속) 선박안전관리 체제구축 지원
	연수생초청	369.33	• 교통정책 수립 및 역량강화 20명 • 석유화학 발전 20명 • 수자원개발 정책 및 역량강화 20명 • IAEA 원전관리 개별연수 1명
2009년	프로젝트	1,232.03	• (계속)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사업 • (계속) 새우양식장 건설 및 양식기술 이전사업
	연수생초청	576.32	• 경제개발 전략 20명 • 중소기업 육성 18명 • 농업정책 수립 20명 • 수산정책 수립 18명 • 교통인프라 구축 19명 • ICAO 관리 개별연수 2명 • 학위과정 2명
2010년	프로젝트	1,623.88	• (계속) 새우양식장 건설 및 양식기술 이전사업 • (신규) 사막새우 양식기술 이전사업
	연수생초청	797.18	• 수산정책 18명 • 철도운영 현대화 18명 • 건설프로젝트 20명 • 경제개발전략 20명 • 오·폐수 처리 20명 • IAEA 개별연수 1명 및 학위과정 2명
	전문가파견	52.5	• 화훼분야

연도	사업형태	금액	사업내용
2011년	프로젝트	1,710.35	• (계속) 사막새우 양식기술 이전사업 • (신규) 씨감자 생산기술 2차 지원
	연수생초청	1,009.83	• 공공사업 개발 15명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20명 • 선진 관세행정 14명 • 농촌개발전략 16명 • 디지털방송기술 역량강화 20명 • 초임 외교관 연수 28명 • 폐광지역 복구 및 광해방지 15명 • ICAO 관리, IAEA 원전관리 개별연수 4명 • 학위과정 2명
	해외봉사단	13.64	
2012년	프로젝트	480.28	• (계속) 사막새우 양식기술 이전사업 • (계속) 씨감자 생산기술 2차 지원
	연수생초청	1,200.75	• 새마을지도자 육성 16명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19명 • 초임외교관 연수 20명 • 중소기업 개발 15명 • 선진 관세행정 15명 • ICT 개발 경험 13명 • 고속도로 관리 운영 15명 • 신재생에너지 개발 16명 • 첨단 미디어 기술 16명 • 국회사무처 연수 12명 • 개별연수 및 학위과정 9명
2013년	프로젝트	2,615	• (계속) 사막새우 양식기술 이전사업 • (계속) 씨감자 생산기술 2차 지원
	연수생초청	1,069	• 선진 관세행정 13명 • 국회 사무처 연수 9명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12명 • 직업훈련 교육 12명 • 고속도로 관리 운영 12명 • 농촌개발전략 13명 • 향만 관리 12명 • 초임외교관 역량강화 20명

자료: KOICA 무상원조 통계 및 KDS. 2013. 『대 알제리 경험 활성화를 위한 유망사업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가. 한-알제리 경험 T/F¹²⁰⁾

한-알제리 경험 목표는 한국과 알제리 간 차세대 전략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로 정량적 측면에서는 교역액 30억 달러, 전략적 투자 건수 3건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전략으로는 알제리 측면에서 알제리 정부의 국가정보화, 녹색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식기반 경제 구축, 한국 측면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알제리의 전략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등 사업형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들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녹색성장 전략수립과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ICT 분야는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차세대 국가 기간망 구축, 전자결제 활성화 및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전자주민관리와 지리정보 시스템 및 지적관리, 첨단아프리카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조업 분야는 섬유산업 고도화 전략수립 및 섬유분야 기술협력 확대, 제약 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및 제약분야 기술협력 확대, 자동차산업 고도화 전략수립 및 자동차 기술협력 확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첨단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국가전략 및 산업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과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형성 지원, 소규모 시범사업 및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지원, 국내초청연수 및 현지워크숍 개최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경험총괄 사무국을 설치하고 500억 원 규모의 한-알제리 공동협력기금 조성 및 알제리개발은행 및 수출입은행 간의 공동투자를 위한 신용공여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방한과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민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하였으며,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 증진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한국은 산업·자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20) KDS(2013) 연구진 재구성

45개 정부관련 부처, 경제단체,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알제리 경제협력 T/F를 구성하고 경제협력을 추진, 2006년 5월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3-39> 한-알제리 경험 T/F 회의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주요내용
경험 T/F 설치	2006. 4월/5월		• 2006.04.14: 한국 측 각 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진출 기업 등으로 구성된 알제리 경험 전담 T/F 구성(48명) • 2006.05.10: 알제리측도 민관 합동 T/F 설치(40명)
제 1차	2006.05	알제	• 총 72명의 민관합동조사단 파견 • 사업유형별 6개 분야로 나뉘어 경험 기본방향 논의: 경제·산업정책·무역·투자/자원·에너지 플랜트·건설/IT/농림/해양수산 • 주요 협력사업(41개): 알제리 지식공유사업, 산업정책 컨설팅, 알제리 공기업 민영화 참여지원, 원유 공동비축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투자환경조사, 플랜트 수주 참여, 전자정부 F/S 추진 등
제 2차	2006.11	서울	• 42개 기관 총 47명 방한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공유 및 정책교류, 알제리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한국기업 참여, 민간투자 협력 등 중점
제 3차	2007.06	알제	• 58개 기관 총 105명 파견 • 5개 분과별 회의 및 2개 특별 분야 협의를 통해 30여개 협력사업의 추진 방안을 구체화: 정책·무역·투자·IT/자원·에너지/건설·교통/농림/해양·수산 - 2개 특별 분야: 사하라개발, 첨단기술아프리카센터 • 전력 및 무역 분야 업무협력 MOU 체결 및 한국 기업의 알제리 진출 협조 확보
제 4차	2007.10	서울	• 21개 기관 총 49명 방한 • 4개 분과에서 40여개 협력 사업을 논의함: • 「첨단기술 아프리카센터」와 알제리의 공기업 민영화 및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제 5차	2008.07	서울	• 17개 기관 총 25명 방한 • 5개 분과별 포럼을 통해 40여개 양국 세부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 정책·협력/무역투자·IT/에너지·자원/건설·플랜트 / 농림·수산 • 양국 공통 관심사업 발표: 「첨단기술 아프리카센터」 운영방안, 한국 플랜트 산업현황 및 비전, 알제리 투자진흥·국토개발·공기업민영화 의 정책지원 등

	일시	장소	주요내용
제 6차	2009.05	알제	• 27개 기관 총 65명 파견 • 작년과 같은 5개 분과회의를 통해 양국 간 경험 및 기업현안 논의 • 「첨단기술 아프리카센터」 운영방안 구체화 • 양측이 정부 예산으로 매년 백만 달러씩 출연하여 5년간 천만 달러 조성한 「한-알제리 산업협력기금 조성 • 「한-알제리 기업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전경련-알제리 기업인협회) 체결
제 7차	2010.04	서울	• 11개 부처 7개 기업 총 26명 방한 • 알제리 측 에너지·자원 분과 관계기관의 불참으로 4개 분과별 회의진행 - 산업·IT/정책·협력/건설·교통/농림·수산 - 세부의제: 산업협력기금, 공무원연수, 신도시개발 및 농수산물 협력 • 알제리 시장진출 및 투자환경 세미나도 함께 개최됨 • 기존 협력분야 외에 섬유, 우편물류시스템, 제약, 폐기물 • 재처리 분야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제 8차	2011.05	알제	• 36개 기관 총 65명 파견 • 5개 분과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양국의 높은 관심 및 경험 확대 의지 확인: 정책·협력/산업·IT/신재생에너지/건설·플랜트/농림·수산 • 한-알제리 ICT 협력 센터(CACTIC) 개소식 개최 및 협력 • MOU 체결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알제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제 9차	2012.05	서울	• 10개 부처, 10개 기관 및 기업 총 32명 방한 • 5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됨: 협력/산업·IT/건설·환경/에너지·자원/농·수산 • 한-알제리 수자원 및 항만개발협력에 관한 MOU 체결 준비 및 34개 지역의 42개의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건설 및 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섬유전자 분야의 협력현황과 앞으로의 협의내용을 확인 • 씨감자 생산기술 및 새우양식 기술지원 1차 사업에 이은 2차 사업 외에도 기타 농업협력 사업이 알제리 주재 KOPIA센터를 통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자료: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경협 T/F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에서 경협 T/F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유망 협력 분야로는 산업 및 IT, 건설 및 환경, 농수산물, 에너지 및 자원 분야가 선정되었다.

<표 3-40> 한-알제리 분과별 유망 협력 분야

분과	유망협력분야
산업 및 IT분야	국가 기간망 등 통신망 구축과 전자 주민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금융시스템 현대화, 지적관리 등 국가 정보화 인프라 분야
건설 및 환경 분야	- 상하수도 분야, 슬러지 재활용분야, 대기오염 처리 분야, 대기 오염 모니터링 분야, 폐기물 재활용 분야 등 -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각종 서비스 산업, 도로망 확장에 따른 물류시스템, 유통 시스템, 각종 공산품 생산 설비, 전문 직업훈련 학교 등
농수산 분야	수산 ODA 효과성 제고 및 한국 기업체 진출을 위해 현지 시장조사와 타당성 분석 실시 필요
에너지 및 자원 분야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에 대해 한국기업과 알제리 양측 모두 협력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략과제(공동연구, 기업진출지원 등)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필요 - 한-알제리 스마트그리드 공동기술(AMI 등)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한-알제리 셰일가스 공동개발 등 - 에너지관련 교육프로그램 제시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 알제리 수자원 개발 및 상·하수도 건설·운영, 하천정비 등에서 협력

자료: KDS. 2013. 『대 알제리 경험 활성화를 위한 유망사업 발굴조사』

한국과 알제리의 첫 협정은 2000년에 이루어졌으며, 2006년 경제협력의 영향을 받아 이후 보다 많은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표 3-41> 한-알제리 주요협정

일시	내용		
2000년 8월	경제과학기술협정/문화협정	2007년 6월	형사사법 공조조약
2001년 9월	투자보장협정	2008년 10월	범죄인 인도조약
2004년 9월	EDCF 기본협정	2009년 7월	항공협정
2006년 4월	해운협정	2013년 5월	세관상호지원협정
2006년 8월	외교관/관용여권소지자 비자면제협정, 이중과제방지협정		

자료: 외교통상부, 국가 및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경협 T/F 출범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및 원조 규모가 확연히 드러날 만큼 성장하였으며, T/F의 요청에 따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다.

<표 3-42> 한-알제리 경험 T/F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규모	현황 및 계획
개발협력	산업정책컨설팅	250만 달러	완료(2009.12)
	지식공유사업	100만 달러	완료(2010.05)
	공무원연수	400만 달러	624명(2010년 누적)
정책지원	한-알제리 관세청장회의	N/A	2012년 처음으로 개최 (알제리 세관 현대화)
산업·IT	합작가전공장 설립	N/A	연간 65만대 생산 중
	신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2800만 달러	진행 중
에너지	원유공동비축사업	460만 배럴	진행 중
건설·플랜트	신도시, 정유플랜트 등	62억 달러 수주	8.4억 달러 규모 수주
농·수산	씨감자 생산기술개선사업 (2011-2014년)	8만 달러	2차 사업 추진 중
	새우양식장 건설 및 기술이전사업(2차)	6백만 달러	2008-2010년 1차(180만 달러) 후 2차 추진 중
녹색성장	환경개선마스터플랜	N/A	완료
	엘하라쉬 하천복원사업	190억 달러	2012년 6월 계약체결

자료: KDS, 2013. 『대 알제리 경험 활성화를 위한 유망사업 발굴조사』

나. 기타 정부부처별 지원 사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정부의 대 알제리 프로젝트 및 지원 사업은 경제협력 아래 추진되어 왔다. 그 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3> 한국 부처 및 기관별 대 알제리 지원 사업

부처 및 기관	사업명 및 내용
기획재정부	• (KSP) 알제리 PPP센터 설립지원(2013) • (KSP) 알제리의 국가비전 2030수립(2012) • (KSP) 알제리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2011) • (KSP) 알제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제리 개발은행의 역량제고 방안(2009)
안전행정부	• 한-알제리 전자정부 및 조달시스템 협력 MOU 체결(2013.07): 알제리 우정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분야 연구협력 양해각서(2012): 알제리 국립수산연구센터

121) 엔지니어링데일리. 2014.03.28. 환경부, 5,000억원 알제리 하수사업 한국수주 지원사격

부처 및 기관	사업명 및 내용
환경부 ¹²¹⁾	-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2012): 알제리 수자원부 - 환경협력 양해각서(2014.03) - 알제리 '폐기물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2014.03-현재 추진 중)
국토교통부 ¹²²⁾	- 수자원분야 협력 양해각서(2012): 알제리 수자원부 - 알제리 물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 협력(2014): 알제리 수자원부
해양수산부 ¹²³⁾	- 항만개발협력을 위한 합의의사록 체결(1차: 2012, 2차: 2014.03): 알제리 교통부 - 알제항 등 주요 6개 항만의 항만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산림청 ¹²⁴⁾	- 한-알제리 산림협정(2012): 알제리 농업농촌개발부 - 제 1차 한-알제리 산림협력위원회 개최(2014.09)
한국정보화진흥원 ¹²⁵⁾	알제리 정보접근센터(IAC) 설립(2013.12)
한국도로공사	동서고속도로 중부구간 부대사업 설계·시공 감리사업(2014.09)¹²⁶⁾: 알제리 고속도로 유지관리청

122) 이데일리. 2012.11.13. 국토부, 알제리와 수자원 협력 MOU

123) 건설경제. 2014.05.19.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알제리서 결실

124) 연합뉴스. 2014.09.23. '제1차 한국·알제리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125) 이데일리. 2013.12.22. 모로코·알제리·에티오피아에 한국지원 정보접근센터 개소

126) 아시아경제, 2014.10.22., 한국도로공사, 알제리·방글라데시서 700억 감리사업 수주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제4장

KOICA의 알제리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제1절 기본방향

우리에게 있어 알제리는 ‘비전통 또는 비중점 원조대상국’으로¹²⁷⁾, 그 동안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회성 또는 간헐적으로 원조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격의 원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알제리 대통령의 방한(한국 발전경험의 벤치마킹을 적극 희망한다고 피력)과 한국 정상(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장기 비전하에서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크게 미흡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정책도 좌표(목표와 방향성)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채, 단위사업 위주로 ODA를 간헐적으로 제공해 왔다.

물론 이는 양비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알제리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도국’으로 중점 협력대상국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있는데다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알제리가 21세기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한 마디로 아프리카의 숨어있는 잠재적 유망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는 한반도의 10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 면적과 대규모의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잠재력 측면에서도 다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는 지리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마그레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들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알제리의 이러한 잠재적 가치에 더하여, ‘개발협력파트너의 다양화’라는 필요성이 결부되면서 알제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중점 협력대상국 이외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을

127) 우리나라는 원조체제의 개선을 위해 2010년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한 26개의 중점 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원조를 집중해 오고 있다.

가질 필요가 있는 파트너 국가를 여하히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이념이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알제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 잠재력과 협력의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ODA 차원에서도 양국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즉, 우리의 對알제리 개발협력의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 내지는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쌓아 온 ODA 경험과 17.5억 달러를 넘어선 ODA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 발굴과 이를 통해 개발협력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배경에서 출발했는데, 본 절에서는 큰 틀에서 한국의 對알제리 ODA 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산업화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가. 알제리의 산업화 개발수요(여건)와 한국의 공급능력

알제리는 장기 내전이 종식된 1999년대 후반부터 산업 다변화와 이를 통한 경제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알제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제약요인들로¹²⁸⁾ 말미암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알제리에는 잠재력 못지않게 이의 실현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국가시스템 내에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알제리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며, 중동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8) 알제리와 같은 산유국에 있어 산업의 다각화는 석유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신(新) 성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내 자본축적이 열악하고 외자 동원이 제한적이어서, 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석유 및 가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유가 시대에는 이것마저 어렵게 되어 산업화를 위한 투자자원 확보가 쉽지 않게 된다. 알제리 역시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고유가 기조 속에서 미래의 투자자원인 오일머니를 축적했지만,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는 알제리 경제가 필연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큰 방향(국가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화를 통해 경제전환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사실, 알제리는 ‘산업화를 위한 제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수원국들과는 발전 잠재력 및 개발협력 여건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제리는 OPEC 회원국으로 막대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산유국이라는 점이다. 알제리의 원유 매장량은 120억 배럴로 아프리카 내 3위, 세계 16위이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아프리카 내 2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고유가 기조 속에서 축적한 외환보유고가 2013년 말 기준 1,900억 달러(34개월 수입분)를 상회하였으며, 외채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아 산업화 추진에 있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국제유가라는 대외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나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는 비산유국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는 자국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매진해 오고 있다. 또한 알제리는 세계적인 셰일가스(shale gas) 부국으로 중국,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많은 양(세계 3위)의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아래 <표 4-1>은 세계 주요국의 셰일가스 부존량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알제리가 미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세계 주요국의 셰일가스 부존량 비교

(단위: 1조 cubic feet, 기준: 2013년)

순위	국가	Estimated technically recoverable shale gas
1	중국	1,115
2	아르헨티나	802
3	알제리	707
4	미국	665
5	캐나다	573
6	멕시코	545

순위	국가	Estimated technically recoverable shale gas
7	남아공	485
8	호주	437
9	러시아	285
10	브라질	245
11	인도네시아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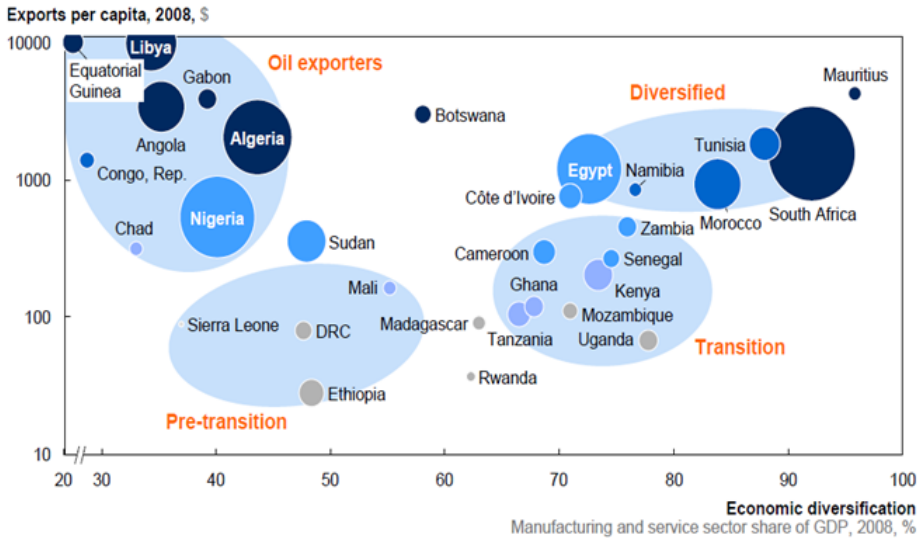
자료: United State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Technically Recoverable Shale Oil and Shale Gas Resources: An Assessment of 137 Shale Formations in 41 Countr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둘째, 알제리는 최빈국이 아닌 중소득권 국가에 속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3,800만 명의 인구에 경제규모(GDP)는 2,230억 달러로 1인당 GDP가 5,800 달러(경상가격 기준)에 달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의 산업화 실패를 감안하면 알제리의 산업화에 대한 전망도 어두울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소규모의 인구로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조건은 알제리와 다소 거리가 있다.

셋째, 알제리 정부의 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알제리의 산업화는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었으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절박함과 추진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불어 닥친 국제유가의 폭락과 저유가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면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전환에 대한 절박함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알제리는 그 동안 고유가라는 대외환경의 호재 속에서 경제적 호황을 누려 왔으나, 최근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알제리 정부는 현재의 산업구조 즉, 석유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알제리의 산업화는 수출산업 육성과 함께 수입대체산업 육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알제리는 국내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내수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청년층의 고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산업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의 석유 일변도의 산업구조로는 가중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산업 창출에 대한 정치적 및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아래 [그림 4-1]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구조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4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알제리는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과 함께 산업의 다각화 정도가 매우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공,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는 ‘다각화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알제리는 원유/가스 자원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 알제리 경제의 산업 다각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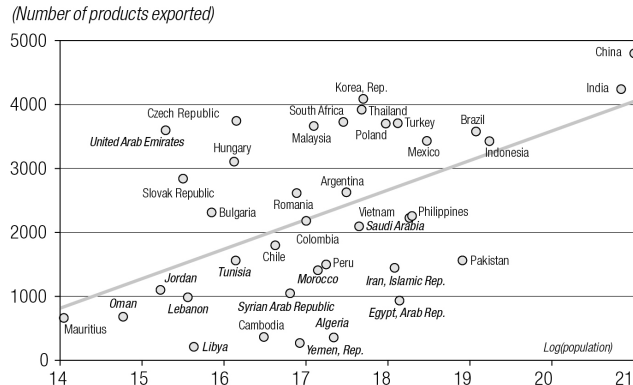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경제구조의 다각화 정도(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비중)를, 세로축은 경제의 글로벌화 정도(국민 1인당 수출규모)를 나타냄. 원의 크기는 GDP 규모

자료: Charles Roxburgh 외. 2010. “Lions on the move: The progress and potential of African Economies”. McKinsey Global Institute

아래 [그림 4-2]는 알제리의 수출 다각화 정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리비아, 예멘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알제리 경제의 수출 다각화 정도



주: Comtrade D/B 6단위 기준(2005-2007년)

자료: World Bank. 2009. From Privilege to Competition: Unlocking Private-Led Growth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알제리 정부는 이러한 후진적인 산업구조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지대경제(Rentier Economy)’¹²⁹⁾로 대변되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표 4-2> 알제리의 산업 다각화 방향과 정책

전략 방향	중점 분야
1. 탈석유 산업	- 석유 하류부문 개발 (정유산업 설비확장) (석유화학산업 개발)
2. 수입대체산업 육성	- 철강, 시멘트, 농공업, 자동차제조업, 제약 산업 개발
3. 산업인력 육성	- 중점 산업분야 인력 양성 - 지역 산업 중심의 직업 훈련
4. 민간부문 육성	- 주요 공기업 민영화 - 중소기업 육성
5. 외국인투자 유치	- 투자 단일창구화 - 합작투자 외국인지분제한 개정(예정)

자료: 연구진 작성

129) 네덜란드병은 자원 수출에 따른 외화자금의 급속한 유입이 국내 인플레이와 자국화폐의 고평가를 초래하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대경제는 특별한 노력 없이 얻어지는 자원을 수출하여 소득을 올리는 국가들은 경제개발에 노력을 기울일만한 유인 요인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산업다각화를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탈석유산업 중심의 수출산업 육성과 함께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들 수 있다. 알제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석유화학 하류 부문, 철강, 시멘트, 농공업, 자동차제조, 제약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확보한 석유 상류부문(Upstream) 역량을 기반으로 석유 하류부문(Downstream) 개발을 중점지원해오고 있다. 관련 설비 확장을 위해 새로운 원유정제소 및 석유화학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확장 계획에 따라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생산라인 확보 및 인프라 건립이 추진 중이다. 자동차제조와 제약 분야도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산업다각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산업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주요 산업 분야인 석유화학, 농공업, 건설업 등의 분야 종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업과 연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초점을 맞춰 해당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탈석유산업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영기업 중심 성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필요성을 인지하고 알제리 정부는 2001년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신 투자법’과 중소기업 육성 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신용보증펀드와 국가투자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 외에 중소기업 육성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개발청을 2005년에 설립하여 청년창업가 및 영세기업 등의 사업대상에 특화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공공투자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 및 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1년 신 투자법 제정을 통해 투자유치 창구를 단일화하고 투자가능 분야를 확대하였다. 2009년에는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창출된 이윤의 국외 반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어서 외국인투자제한조치가 발표되었으나, 이로 인한 외국인투자 감소로 인해 최근 정부가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두면, 우리나라의 알제리에 대한 ODA 기본방향은 사회개발 보다는 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 발전단계에 따라 수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현재 알제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 발전전략은 바로 산업의 다각화이다. 알제리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중견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자원 의존형 중소득국에 진입한 국가로, 탈석유 및 산업화를 통한 경제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에 매진하고 있다.

알제리 지도부와 정책당국은 한국의 발전경험, 그중에서도 산업화 노하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경험공유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한국을 방문한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알제리 등 개도국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선진 공업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산업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만 해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최빈국이었으나, 산업화를 통해 빈곤 탈출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고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세계은행 등은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가 이룬 성과를 ‘고도성장을 이룩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제 기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알제리 등 다수의 개도국들로부터 산업발전 경험공유에 대한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알제리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만큼 남-북 형태의 산업협력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는 석유 및 가스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기술력이 부족하고, 산업개발의 경험이 일천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알제리 측에서는 산업발전 노하우에 대한 전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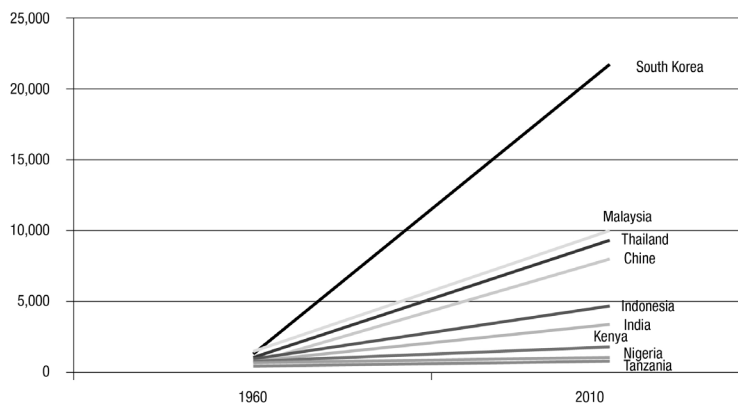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알제리는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개도국들 중에서 경제규모가 상위권에 속해 있고 국민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구조상 산업발전에

대한 개발수요가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3]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발전상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도에서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두말할 것 없이 급속한 산업화가 견인했으며, 교육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내부적인 역량을 키웠다는 것이 성공의 일등공신이었다. 한국은 다른 선발 개도국들과 달리 산업화를 위한 금융자본은 주로 해외에서 차관형태로 조달했지만, 기술 발전은 국내 토착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림 4-3] 한국의 경제발전(국민소득 변화)

(단위: 1인당 GDP, 1990년 달러 기준)



자료: Maddiso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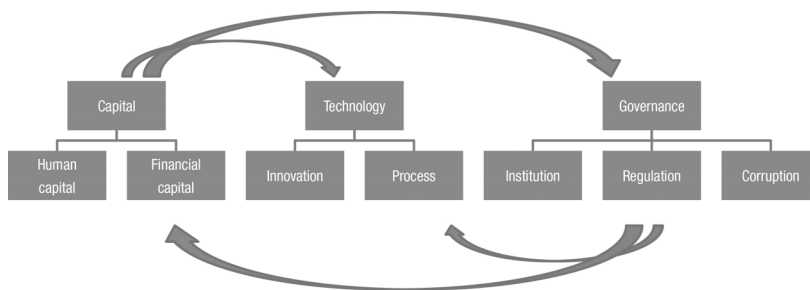
나. 산업개발역량 강화

개발협력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빈곤퇴치에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수단이나 노력은 상대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기반 자체가 없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최빈국에게는 식량 등 물자지원이 급선무이겠지만, 산업발전 잠재력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갖춘 개도국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알제리가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발전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그 동안의 많은 경험이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 노동 등 유형의 생산요소와 함께 기술, 지식, 인적자본 등 무형의 생산요소가 동시에 축적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산업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등 시장규율과 사회적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유무형의 생산요소와 제도적 요인이 결부될 때 산업발전이 가능하고, 이것이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¹³⁰⁾

아래 [그림 4-4]는 산업발전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fundamental requirements)인 자본, 기술, 역량(거버넌스)과 생산요소들 간의 주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생산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인적 및 물적)이 기술개발과 제도적 역량을 만들어 내듯이, 다른 생산요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발전을 이루어낸다.

[그림 4-4] 산업발전의 기본 전제조건



자료: Il Houn Lee. 2015.3.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Possible Lessons for Cambodia. 2015 Cambodia Outlook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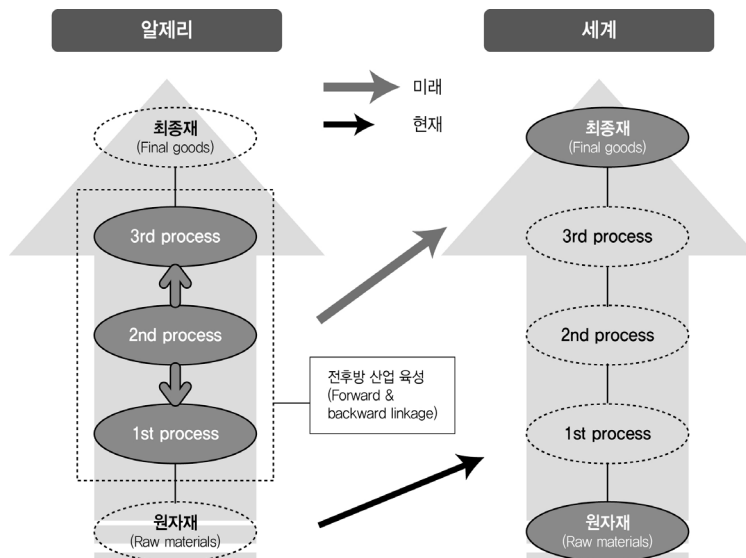
산업발전의 형태는 크게 ‘산업의 다각화’와 ‘산업의 고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국가의 산업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후자는 가치사슬(value chain) 선상 산업의 생산 활동이 저부가가치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전(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산업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개도국의 당면 과제이다(김종일·윤미경, 2012).

130)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동반되어 성장의 수혜가 경제 전반에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김종일, 윤미경,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알제리는 자원부국으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자원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5]는 글로벌 가치사슬 선상에서 알제리가 지향해야 할 산업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의 자원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생산체제에 합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개도국 산업발전의 핵심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의 편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4-5]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상 알제리의 산업발전 방향



자료: Il Houn Lee. 2015.3.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Possible Lessons for Cambodia. 2015 Cambodia Outlook Conference 수정

알제리는 어느 정도 물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신흥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화 지원에 있어 우리의 개발협력은 일차적으로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알제리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내재적인 개발역량이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개발역량은 법, 제도 등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기술발전은 국내 토착기업에 의해 내재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토착기업은 산업개발 역량 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기업은 개도국에 장기적으로 존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언제나 보다 좋은 조건의 장소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도국의 기술 축적에 대한 성공여부는 토착기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한-알제리 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자문, 기술협력, 인력양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과연 알제리의 산업역량개발에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산업역량개발을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은 크게 미흡했고, 초청연수사업이나 전문가 파견사업 역시 단기성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알제리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노하우를 감안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괄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구상될 필요가 있다. 산업역량 개발지원 분야는 국가 산업발전전략 수립능력 배양, 세부분야별 산업정책 자문, 중소기업 진흥정책, 무역정책, 산업기술개발 교육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KOICA가 알제리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나치게 거시적이거나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있어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례로 김종알·윤미경(2012)에 의하면 산업연구원(KIET)이 2007년 알제리에서 실시한 산업클러스터 조성관련 자문사업의 경우, 세 개 지역에 대해 입지계획은 수립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자문이 너무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알제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많은 경우 정책자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거대 담론적인 정책의 제시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낮으므로,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이나 기업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자문이나 기술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조의 구체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책자문 이외에도 생산기술 지원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이동을 시도하고 있는 알제리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산업생산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유망 세부분야를 여하히 잘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협력 유망산업의 선정 과정에서는 우리의 비교우위뿐만 아니라 상대국(알제리)의 정책적 수요(산업정책),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 수입대체 효과, 수출증대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당성 있는 산업협력 분야로 판명되면 해당분야에 있는 우리의 협력자원을 최대한으로 집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기술공단, 산업기술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조직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이 종합적인 산업분야 ODA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ICA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알제리에 대한 원조가 소규모라는 제약을 최소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개발원조는 현실적으로 복합적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대외정책이다.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수원국의 빈곤감축이 최우선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와 함께 현실적으로 공여국의 국익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후자 주장(인식)의 이면에는 국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사실, 개발협력은 반드시 인류애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치, 경제, 외교 등 전략적 이해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북유럽 등 일부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원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익을 위한 레버리지(leverage)로 원조를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원조정책은 그 기본정신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대국의 경계심과 반감을 초래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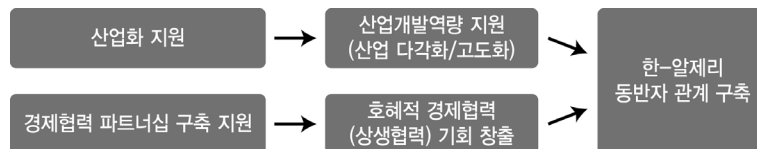
원조의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은 상대가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최빈국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불가

피하겠지만, 알제리와 같이 발전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에는 양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즉,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ODA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원-원’ 할 수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협력이 심화되면 사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 시장진출이라는 국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국들이 개발 원조를 앞세우며 알제리와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솔직한 이유도 자국의 국익 추구에 있다.

한-알제리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적 또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상생협력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경제적 이해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들의 협력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4-6] 한국의 對 알제리 ODA 기본 목표



자료: 연구진 작성

자원부국으로 중소득국인 알제리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발전 노하우이므로, 우리의 개발경험을 상생협력의 ‘소프트 파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성공모델이라는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생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혹은 경제발전은 다른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런 우리의 개발경험은 개도국과의 지식공유에 있어 적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금부터 길게는 약 200년 전, 짧게는 100년 전에 산업화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초기 산업화 과정은 아직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 산업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국제개발기구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는 다른 방식으로 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식민지의 경험을 갖고 경제개발을 달성했다는 점 역시 선진국의 경험과는 차별화되는 요소이다.

<표 4-3> 한국의 발전경험 ‘소프트 파워’

강점	내 용
성공의 경험	■ 기적으로 불릴 만큼 단기간의 성공적 경제발전 경험 ■ UN,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관심
최근의 경험	■ 서구 선진국과 달리 2차 대전 이후 산업화 시작 ■ 국제환경 측면에서 현재 개발도상국과 유사성 보유
워싱턴 컨센서스의 보완 혹은 대체	■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자유화 속도 조절 ■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인식
초기조건의 보완성	■ 천연자원 부존과 같은 자연적 시혜 요소가 약함 ■ 정책 모방가능성 높음
중규모 국가의 경험	■ 소규모 도시국가나 대규모 인구대국이 갖는 특수성이 없음 ■ 통상적 인구규모의 개발도상국에 의한 모방가능성 높음
다양한 단계의 경험	■ 단계적 발전을 통해 다양한 단계별 경험 보유 ■ 초기산업화, 산업구조고도화, 민영화, 개방화, 민주화, 지식정보화 등
해외시장 활용형 발전전략	■ 해외상품시장과 해외자본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 세계화시대의 개발도상국 발전전략과 일치
경험공유 과정의 유리함	■ 식민지 경험 공유로 개발도상국과 정서적 공감 형성 가능 ■ 강대국 지배에 대한 경계심에서 자유로움

자료: 박영호 외. 2008.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9.

산업화 등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KOICA의 개발건설탐사업인 DEEP 프로그램(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및 ODA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금물이며, 상대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고유의 개발경험을 활용하되, 현지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발전 공유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이 여러 개도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개발경험공유(KSP)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발경험 전수사업은 물품을 전달하거나 유형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과는 달리, 무형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성격상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지만, 과연 수원국의 필요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다. 알제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발경험 전수사업의 핵심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능력과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공여국 단독보다는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컨설팅(participatory consulting)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술컨설팅까지 제공함으로써 ‘정책자문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영호 외(2008)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사업이 수원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수원국의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발경험 전수사업은 다른 유형의 원조사업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요구하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영역이다. 따라서 몇 차례의 현지 출장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원국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정책반영도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DEEP 프로그램에서는 해당지역 진출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출신인사를 포함하여 국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회를 통해 산업 및 지역정보를 축적하고, 컨설턴트를 발굴해 간다면 수원국의 니즈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제리는 신흥시장으로 그 동안 비교적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바 있으며, 현재 3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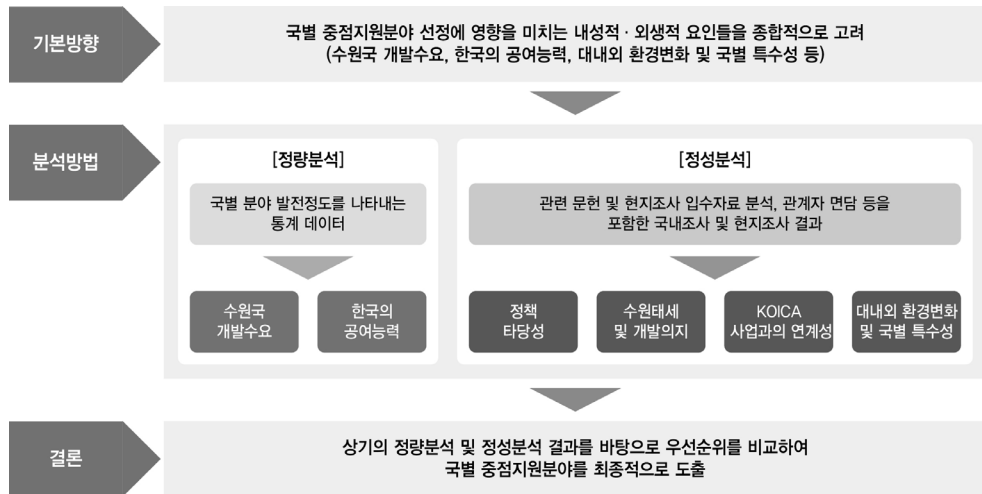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국의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선별·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량 및 정성 분석 방법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결과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 총 6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이는 KOICA의 사업분야¹³¹⁾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산업에너지의 경우, 광범위한 사업을 다루고 있어 이 중 인프라(교통, 통신 등)는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범분야와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모든 분야 및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함께 고려하였다.

상기의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지표를 선정하고,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정량 분석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를 측정하여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산한 분야별 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별 중점지원 분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131) KOICA 7대 사업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범분야(환경, 성평등, ICT, 인권), 기후변화대응으로 정해져있다.

[그림 4-7]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나. 정량분석

1) 기본방향

본 연구에 활용된 정량분석 방법론은 아프리카 협력분야 선정 관련 기존 선행연구¹³²⁾에서 사용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수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역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적 협력분야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간 상대적인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gap)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존 ODA관련 타 연구들과는 달리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상기 6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합산하여 분야별 지수값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야별 지수값은 벤치마킹 국가의 지수값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 격차 및 핵심 성장요인으로서의 잠재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역시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비교하여,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 차이를 분석했다.

132) 박영호 외. 2012.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KIEP. ODA 지역연구 12-04

2) 분야별 지표 및 비교대상국 선정

박영호 외(2012)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환경수행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그리고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ex, WDI)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6개 분야별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분석에 사용된 지표의 선정 근거와 각 지표별 자료 출처는 [표]와 같으며, 상세한 지표구성 및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4> 분야별 지표선정 근거 및 데이터 출처

분야	지표 선정 근거	데이터 출처
교육	교육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파악	GCI, HDI
보건의료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파악	GCI, HDI, WHO
농림수산	관개화율, 농업 생산성과 경제 기여도 파악	GCI, WDI, FAO
공공행정	정부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안정성 파악	GCI
산업에너지	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에너지 수급 환경 파악	GCI, WDI, UNIDO
인프라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보급률 및 발전 정도 파악	GCI, WDI, ITU

한편, 각각의 데이터는 모두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있기에, 분야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데이터를 같은 범위로 표준화하고 이를 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기준으로, 그 외 데이터들 역시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야별 발전정도는 수원국 대비 다음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 국가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상대적 발전 격차를 측정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경쟁력지수(GCI)보고서』를 통해 국가들의 경제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국 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표 4-5>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구분	1단계: 요소주도 경제단계 (1.0)	이행단계: 1단계 → 2단계 (1.5)	2단계: 효율성 주도 경제단계 (2.0)	이행단계: 2단계 → 3단계 (2.5)	3단계: 혁신주도 경제단계 (3.0)
국가 (예시)	방글라데시, 브룬디, 차드, 세네갈, 에티오피아, 인도,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앙골라, 볼리비아, 보츠와나, 가봉, 온두라스, 몽골, 필리핀, 리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자메이카, 요르단, 모로코, 페루, 태국, 튀니지	아르헨티나, 헝가리, 브라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터키, UAE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카타르, 싱가포르, 스웨덴

자료: Klaus Schwab et al.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표 4-6>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분석대상국가(발전단계)	비교대상국가(발전단계)
알제리(1.5)	이집트(2.0), 자메이카(2.0), 모로코(2.0)
모로코(2.0)	UAE(2.5), 터키(2.5), 오만(2.5)
튀니지(2.0)	UAE(2.5), 터키(2.5), 오만(2.5)
세네갈(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코트디부아르(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3) 수원국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우선 수원국 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수요 지수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벤치마킹 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1]을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때, 벤치마킹 대상국이 2개국 이상이면 평균값을 사용하여,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 대상국 간의 이질성에 따른 이상 값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발수요 지수값은 벤치마킹 대상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해당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부문이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N_{ci} = \left(\frac{G_{ci} - \overline{E}_c}{\sigma_c} \right) + 4$$

G_{ci}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대상국이 i 분야 지수의 값

$\overline{E}_c$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대상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값의 합
(협력가능 분야 개수)

σ_c =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국가 간 6개 협력가능 분야 값의 표준편차

다음으로 한국 공여능력 지수값 산출을 위해, 연구대상국의 지수값과 한국의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2]를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여능력 지수값은 수원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이는 분야별 한국의 상대적 공급역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S_{ci} = \left(\frac{G_{ci} - \overline{E}_c}{\sigma_c} \right) + 4$$

G_{ci} =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i 분야 지수의 값

$\overline{E}_c$ =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값의 합
(협력 가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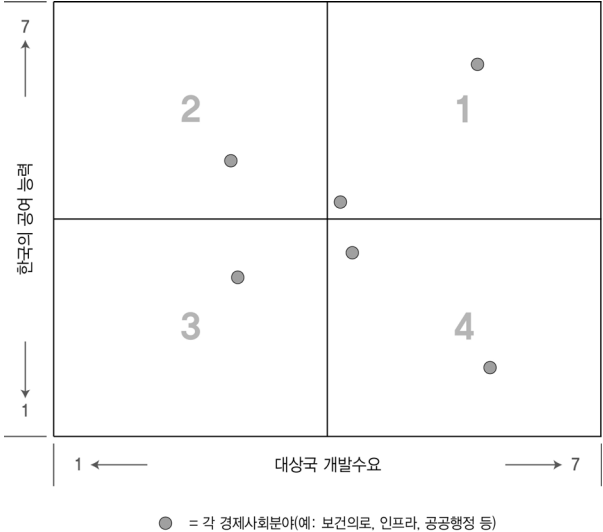
σ_c = 연구대상국과 한국 간 6개 협력가능분야 값의 표준편차

4) 중점지원 분야 도출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중점지원 분야란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이 동시에 충족되는 영역으로, 상기 산식을 통해 산출된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 지수값과 한국의 공여능력 지수값을 동시에 비교하여 도출 가능하다. 이는 [그림]과 같은 사사분면 공간 배치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후 최종 중점지원 분야 선정 시 정성분석 결과와의 합산을 위해, 개발

수요 지수값과 공여능력 지수값에 각각 가중치 50%를 곱해 합산한 최종 지수값 결과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측정한다.

[그림 4-8]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 주: 제1사분면: 최적 개발협력 분야
제2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는 낮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
제3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도 없으며 한국의 역량도 없는 분야
제4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 충족에는 필요하나 한국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

다. 정성분석

1) 기본방향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 자료로 쓰인 분야별 데이터들이 과거 특정 시점에만 집중하여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량분석만으로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재검토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하여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국의 개발수요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량분석을 통해서만 분야별 상대적 발전격차만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수요로 유추할 수 있을 뿐, 연구대상국의 정책적 의지 및 수원태세, 실제 분야별 개발 수요와 같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헌조사, 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및 개발의지 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분석만으로는 KOICA와 연구대상국 간의 기존 협력관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없다. 연구대상국에 대한 KOICA의 원조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이미 현지 대사관 및 주재원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협력관계 및 사업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공여능력을 기증증한 결과일 뿐 아니라, 향후 KOICA의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 가장 밑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국의 개발의지나 우리와의 기존 협력관계와 별개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정세 변화 등 국별로 ODA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구대상국별로 고려한 특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4-7>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연구대상국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알제리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수요
모로코, 튀니지	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	사헬(Sahel) 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량분석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량분석과의 결과 합산 및 편의를 위해 분야별 점수를 계량화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분석 대상

우선 수원국 정책타당성은 국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야별 발전의 중요성 및 정책 반영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KOICA 지원의 지속가능성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발전전략(NDS)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섹터별 전략, 지역협력기구 전략 및 정책적 담화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평점을 주었다. 다음으로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의 경우, 현지조사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을 통해 파악된 현지 정부 부처별 실제 지원요청 여부 및 적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KOICA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사업 추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OICA와의 사업 연계성은 기존 지원현황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평점을 매겼다.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와의 면담과 입수자료를 통해 분야별 기진행 사업 및 예정사업의 개수와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된 분야를 분석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검증된 분야도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및 KOICA 사업과의 연계성과는 별개로, ODA 사업 진행 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국제적 환경 변화 및 특수 요소들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 중점지원 분야 도출

상기 4개에 대한 분야별 점수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수행한 국별 연구진이 리커트 5점 척도¹³³⁾를 사용하여 평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했다. 더불어 각 지표마다 본 연구에 고려해야할 필요성 및 중요도가 다르므로 지표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고 분석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과소·과대평가의

133)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s)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응답척도로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채택된 방법이며, 1점(매우 낮음)과 5점(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능성을 보완하여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지표별 평점 및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한 점수를 결과로서 도출하고, 분야별로 최종 값을 비교하여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게 되었다. 아래 [표]는 정성분석에 사용된 지표 및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8> 분석 지표 및 가중치

분석 지표	가중치
국가발전계획(NDS) 및 정책과의 부합성(정책 타당성) - 국가발전계획(NDS) 및 주요 현안 - 섹터별 전략 - 지역협력기구 전략	0.25
해당부처 지원요청 및 수원태세 정도(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 결과	0.1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 기존 지원현황 - 향후 지원계획	0.40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예: 알제리-북아프리카 민주화, 국내기업 진출수요 튀니지/모로코-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사헬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0.20

라. 종합결과 분석 및 중점지원 분야 최종 도출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은 각각의 방법론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정량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7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되어 산출되었으나, 정성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5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는 등 척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두 분석 결과를 종합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량 및 정성분석 결과값을 각각 5점 기준으로 표준화¹³⁴⁾하였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간 가중치는 각각 30:70으로 산정하여 합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정량분석이 과거의 한 시점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한 데 반해, 현지 방문을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실제적인 수요, 기존 KOICA 추진사업 및 계획과의 연계성, 국별 특

134) 7점 기준의 값을 α 라고 했을 때, 산식 $(2\alpha+1)/3$ 을 통해 5점 등간척도의 값으로 표준화하였다.

수성 등 현지의 최신 동향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분석의 특성 상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진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 활용 시, 분야별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최종 지수값이 산출되며, 이를 비교하여 분야 간 우선순위를 도출해낼 수 있다.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text{분야별 최종 지수값} = (\text{분야별 정량 표준지수} \times 30\%) + (\text{분야별 정성 표준지수} \times 70\%)$$

2. 분석 결과

가. 정량분석 결과

수원국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인프라 부문의 지표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의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프라의 경우, 알제리의 수송인프라 전반의 발전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여능력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인프라 부문의 지표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산업에너지, 교육, 농림수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프라 부문의 경우는 통신인프라가, 산업에너지 부문은 첨단기술수준, 발전량 등이 알제리 대비 한국의 발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원국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종합한 결과, 해당국 개발수요도 높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높은 분야로는 인프라,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순으로 선정되었다.

<표 4-9> 정량분석 결과

분야/지표	알제리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능력	합계	우선 순위
가중치	(50%)	(50%)		
교육	3.49	4.14	3.82	4
보건의료	3.91	3.48	3.70	5
농림수산	4.36	4.11	4.24	3

분야/지표	알제리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능력	합계	우선 순위
가중치	(50%)	(50%)		
공공행정	4.75	2.59	3.67	6
산업에너지	3.72	5.12	4.42	2
인프라	5.45	5.35	5.40	1

나. 정성분석 결과¹³⁵⁾

해당분야 지원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관련 부처의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기존에 수행된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내지 향후 연계 가능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에너지와 농림수산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인프라, 교육, 공공행정, 보건의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에너지의 경우, 알제리 정부의 석유산업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수출산업 및 민간부문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은 점, 현지 출장시 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육성 선정된 점, 기존에 KOICA를 통해 알제리 대상의 산업정책개발자문 사업과 석유화학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관련 국별연수가 다수 진행된 점, 정부 발전계획에 따라 전력발전, 석유화학, 기계/전자 분야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순위 협력유망분야로 선정되었다.

농림수산의 경우, 소득증가 및 인구증가로 인한 해외식량수입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높은 점, 유관부처인 농업농촌개발부의 농업생산성 증대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와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한 향후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가 높은 점, KOICA에서 알제리 대상으로 씨감자 생산기술지원 사업을 2차에 걸쳐 지원한 점(수산업부문 포함) 등을 고려하여 산업에너지와 함께 공동 1순위 협력유망분야로 선정되었다.

135) 분야별로 보다 세부적인 정성분석의 근거는 [부록2]에 기재되어있다.

인프라의 경우, 내전 이후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인프라 재건 및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알제리의 정부의 높은 정책적 의지, 수출비용절감, 산업발전 기반 구축, 지역격차 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는 점, KOICA를 통해 Sidi 과학기술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및 인프라 관련 다수의 국별연수가 진행된 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한국기업이 이미 다수 진출한 점과 지속적인 알제리 정부의 개발수요에 따라 도로·항만·수자원 분야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순위 협력유망분야로 선정되었다.

교육의 경우, 심각한 실업난, 특히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고, 유관부처 면담과정에서 고위급 및 실무급의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의사가 높은 점이 확인되었으며, 5년간 약 1,200만불 지원 예정인 ICT 고급기술인력 양성 사업(첨단아프리카센터 운영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점, 북아프리카 민주화 문제와 연계하여 실업문제에 해결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술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동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낮아 협력유망분야 3순위로 나타났다.

〈표 4-10〉 정성분석 결과

분야 \ 지표	지표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수요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합계	우선 순위
	가중치	(25%)	(15%)	(40%)	(20%)		
교육		4	5	4	3	3.95	3
보건의료		3	1	1	1	1.50	6
농림수산		5	5	5	1	4.20	1
공공행정		3	1	3	3	2.70	5
산업에너지		5	5	3	5	4.20	1
인프라		4	3	3	5	3.65	4

다. 종합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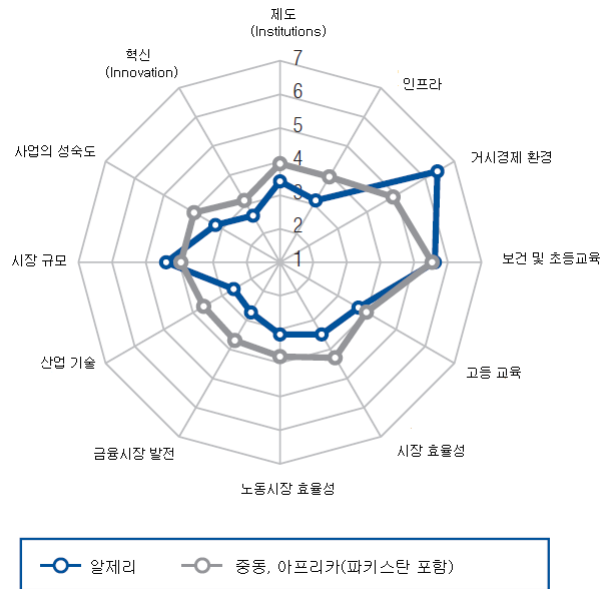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 산업에너지가 1순위, 농업이 2순위, 인프라가 3순위 유망협력분야로 선정되었다.

<표 4-11> 종합분석 결과

구분	정량분석(30%)		정성분석(70%)		최종 종합(100%)	
분야/지표	평점 (1-7)	표준화지수 (5점만점)	평점 (1-5)	표준화지수 (5점만점)	종합 평점 (정성 70%+ 정량 30%)	우선 순위
교육	3.82	2.88	3.95	3.95	3.63	4
보건의료	3.70	2.80	1.5	1.50	1.89	6
농림수산	4.24	3.16	4.2	4.20	3.89	2
공공행정	3.67	2.78	2.7	2.70	2.72	5
산업에너지	4.42	3.28	4.2	4.20	3.92	1
인프라	5.40	3.93	3.65	3.65	3.74	3

큰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보고서의 알제리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제리는 거시경제의 기초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보건 및 초등교육 역시 MENA 지역 국가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규모 면에서도 주변국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기술 및 인프라 등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산업 다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낮은 기업경영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민간부문 육성의 필요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비즈니스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관료주의 및 각종 규제, 취약한 금융 환경 등이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산업 다각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나, 본 연구의 유망협력분야에서 공공행정이 제외된 관계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림 4-9] 알제리의 분야별 경쟁력 수준 비교



자료: Klaus Schwab et al.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1. 산업에너지

경제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에게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는 경제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알제리와 같이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의 경우 산업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결과, 자원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제 산업다각화를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제리의 산업다각화 추진을 위해서는 석유 일변도의 발전에서 탈피하기 위한 탈석유산업과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육성, 더불어 관련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민간부문과 산업인력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발전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 개념을 도입하여 탈석유산업 분야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큰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협력방안과 산업다각화를 위한 필수요소이나 국영기업 중심 성장으로 인해 발전이 상당히 취약한 민간부문 육성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석유화학산업 육성사업

산업에너지 분야 중 알제리는 세계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그 만큼 석유화학산업¹³⁶⁾의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일찍이 1960년대 초반부터 석유화학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외국인투자과 취약한 국내 기술기반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알제리에 석유화학산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¹³⁷⁾ 알제리 정부는 석유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석유화학산업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술노하우 축적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알제리의 석유화학산업은 크게 2단계의 발전 전략을 통해 추진되어 오고 있다. 1단계는 2005년에

136)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 정제 시에 나오는 나프타와 천연가스 등을 이용하여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만들고, 다시 이를 원자재로 하여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성유 등을 생산하는 방대한 계열 산업이다.

137) 현재 알제리에는 Skikda 주에 에틸렌(Ethylene) 단지가 있으며, 벤젠 및 p-자일렌(p-xylene) 등의 방향제 생산설비가 있다. Arzew 및 Annaba 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암모니아요소(Urea) 공장이 있다.

시작된 것으로 기초제품¹³⁸⁾을 생산하는 것이며, 2단계는 1단계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알제리 석유산업은 기초제품을 생산하는 1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¹³⁹⁾, 앞으로는 대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¹⁴⁰⁾

이처럼 석유화학산업 육성은 알제리 산업 다각화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알제리에 있어 석유화학산업은 석유/가스 이외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import substitution strategy)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현재 알제리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내수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1) 석유화학산업 육성전략 구축을 위한 종합컨설팅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의 쌀’로 불릴 만큼 제조업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¹⁴¹⁾ 다른 제조업은 물론 농업, 광업보다 부가가치 창출력이 훨씬 높은 산업이다. 알제리는 원유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워낙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¹⁴²⁾ 이렇게 생존이 더욱 어려워진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알제리가 중장기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정착시키는 위해서는 고도의 국제 경제 및 산업 전망에 대한 판단과 국가 및 산업, 기업 차원의 매우 치밀한 석유화학산업 육성 전략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138) 기초제품은 에틸렌, 프로필렌, MEG, MeOH, NH₃, 폴리올레핀계열 등 중간재를 의미한다.

139) 현재 알제리의 기초제품 생산능력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높다. 연간 에틸렌(Ethylene)은 130,000 tpa까지,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은 178,000 tpa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확장에 따라 석유 정제능력이 2017년 6천만 톤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40) 알제리 정부의 의욕적인 석유화학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중국, 중동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알제리가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알제리가 추구해야 할 석유화학산업 정책은 일차적으로 수입대체를 위한 내수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41)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산업발전 주력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핵심기간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비(석유화학단지 건설에 15억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142) 미국, 중국, 사우디, 한국, 일본 등 상위 순위에 개도국의 진입이 점차 증가할 것이며 중국의 지속적인 설비 증설로 미국도 머지않아 중국에 밀려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에 석유산업은 물론 석유화학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석유화학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급성장하고, 석유화학 플랜트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설치하였으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이 알제리 석유화학산업 육성전략 개발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 같은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한 생산규모 확보를 위한) 알제리 석유화학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과 핵심 석유화학 기술개발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알제리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컨설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석유화학산업 기술이전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유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 관련 인력의 개발과 그에 따른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아래 <표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제리 석유화학 발전을 위한 기술인력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우수한 한국의 석유화학발전 경험 및 기술을 알제리에 이전하는 차원에서 한국 내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정부 연구기관은 물론 공기업, 민간 대기업 연구소, 국공립 대학 등을 활용하여 알제리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술인력, 관리인력,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대상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알제리 정부를 통한 민간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인력수급실태 조사,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직무분석과 역량 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변화하는 엔지니어링 유관 국제 자격증(CPE, PMP) 획득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된 엔지니어링 대학원 설립 자문을 통해서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민관 관계자 역량강화 및 엔지니어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간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 간(G2G) 협력 기반을 우선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정부는 물론 양국 민관 및 민간 간 교육훈련 협력을 추진해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표 4-12〉 알제리 석유화학산업의 강점과 약점

강점	약점
- 대규모의 원유/가스 매장 - 저렴한 원재료(석유/천연가스/나프타 등) - 유럽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 정치적 안정성 및 석유화학산업 육성 의지 - 석유화학 제품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전문 인력(기술 및 운영 노하우)의 부족 - 석유화학 관련 산업의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 - 신흥 개도국과의 경쟁 치열

자료: 연구진 작성

3) 석유화학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지원: 생태산업단지(EIP)와 연계

석유화학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동시에 대형화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중요하며, 동시에 수송편리를 위한 수송인프라가 주변에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지조건을 고려해야하는 까닭에 생산체계가 집중화된 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집중 육성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단지에서 생성된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진 가능한 ‘생태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제리 정부도 석유화학의 기초제품 생산단계에서 더 나아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알제리에는 Skikda 주에 에틸렌(Ethylene) 단지가 있으며, 총사업비 100억 불을 투입하여 연간 30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제품(주로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생산이 가능한 6개의 신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석유화학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유해 폐기물¹⁴³⁾이 Skikda, Annaba와 같은 동부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매립 방식을 통해 산

143) 알제리 내 산업유해폐기물은 연간 약 33만 톤 씩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석유화학산업 폐기물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업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궁극적으로 가용 토지자원을 잠식하고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도 높아져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EIP)’ 개념과 연계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나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고도화 정책의 병폐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생태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하여 폐기물 재이용(자원화)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국이 알제리의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울산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알제리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동부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단지 운영 및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정부 및 민간관계자 대상의 역량강화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글상자 4-4] 생태산업단지 개요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란 산업단지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한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의 한 분야이다. 2003년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3개 지역(포항, 여수, 울산)을 시범사업으로 지정, 2014년 대상단지 12개 지역 105개 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폐기물 재이용 및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폐기물량의 최소화 및 무 배출을 지향하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산업단지 개요



자료: 민경범. 2015. “지금은 EIP 사업 시대로 간다” 환경미디어(<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436928913>)

특히, 울산시의 사례는 많은 산업단지들의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예시로 꼽힌다. 2011년 기준 인구 100만 규모의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연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울산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해 온 주요도시 중 하나이다. 1962년 특정 공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산업의 병폐로 환경오염이 함께 진행되었다.

울산시는 자원순환형 도시 및 폐기물처리 체계 구축, 환경도시계획 수립 등 10개 분야 112개의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2004년부터 2회에 걸쳐 총 10년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비용절감 372억 원, 신규 매출 1,915억 원으로 경제적 효과 2,287억 원 및 신규투자 789억 원의 사회적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자원 순환분야인 쓰레기 매립분의 양을 2001년 34.5%에서 2010년 9.6%로 절감하고 재활용을 38.6%에서 67.2%로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자료: 이상현. 2013. 울산형 생태도시 모델의 평가.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나.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국제 개발원조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원조 형태이다. 민간부문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 산업의 다각화, 고용 창출, 중산층 형성 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원조는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협력수단으로, 사업의 토착화 등을 통해 ODA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발효과’와 ‘수익성’이 동시에 기대되는 개도국 민간사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민간부문이 취약한 알제리와 같은 개도국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원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10]은 알제리의 민간부문 비중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알제리 경제는 국영석유공사 등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지탱하고 있는데다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민영화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발전이 크게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 발전이 크게 지체되어 있는데, 이는 북아프리카 주변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⁴⁾ 알제리에서 민간부문개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해 모색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4-11]은 유럽과 지중해 권역 국가들의 실업률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튀니지를 제외한 대상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알제리의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알제리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 생산역량 강화 및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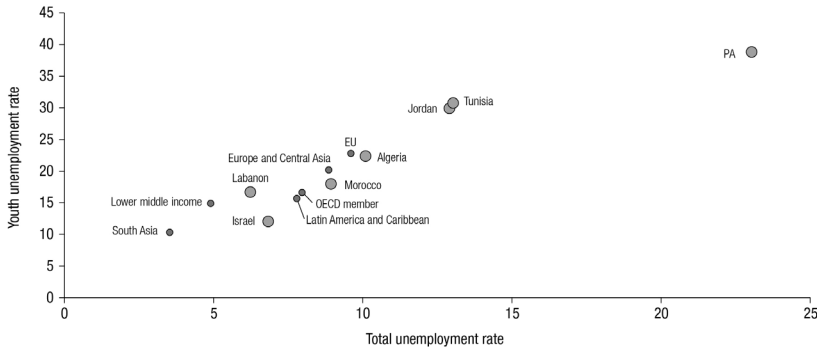
[그림 4-10] 알제리의 민간부문 비중



자료: Marco Stampini 외. 2011. "How Large Is the Private Sector in Africa? Evidence from National Accounts and Labor Markets", IZA Discussion Paper No. 6267

144) 2012년 중소기업 집적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알제리(18.2)는 주변국인 모로코(25.4) 수치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중소기업 고용률도 전체 고용률 대비 13.9%로 모로코(21.6%), 튀니지(59%)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림 4-11] 유럽-지중해 지역 경제권 실업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및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지원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내 중소기업들은 신용위험이 높고 보증이 부족한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의 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알제리도 전체 산업 대비 취약한 민간부문의 육성 차원에서 국가신용보증펀드 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과 같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전체 신용대출 대비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20% 미만(‘12년)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한국도 경제발전 시기 산업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중소기업전담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그 자체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현상 타개를 통한 중소기업 연쇄 부도현상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중소기업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알제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여타 공여국 및 다자기구도 알제리 민간부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접근성 개선 사업을 실행한 바 있다. EU의 경우 2007년까지 570만 유로를 투입하여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범사업 및 신용보증기금 설립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프랑스도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를 통해 2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방법 개발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제리 대상 정책자문 수행 시 여타 공여국의 선행사업 목적, 범위, 성과를 분석하여 최대한 사업간 중복을 피하면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농업

알제리를 포함하여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빠른 소득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높은 식량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여타 산업에 비해 농업에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생산기술의 부재, 인프라 및 투입재 부족, 가공 및 수확 후 관리 시설 미비, 유통 및 판매 시설 및 시스템 미비 등 농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 있는 문제로 인해 획기적으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농업생산성 저하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식량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상당수 국가들이 식량 부족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식량 부족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협력 차원에서 각국의 농업 가치사슬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제리에서 농업은 사하라 이남 국가 및 북아프리카 주변국에 비해 경제생산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 국가 대비 어느 정도 상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높은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영향으로 급등하는 식량수요를 생산량이 뒷받침하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아프리카 주변국의 정치적 혼돈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인 식량 문제를 해소하여 식량안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같은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알제리의 농업 발전 정도를 가치사슬 범주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농업 R&D 기반 구축, 기술보급체계 정비, 선진 영농기술 보급, 생산기반 정비, 농업 관련 제도 정비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공여능력 및 사업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영농기술 이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알제리가 속해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이 풍부한데, 한국 농업은 이들 작물의 재배 및 생산에서 나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¹⁴⁵⁾

사실 우리나라(KOICA)는 알제리에서 우량 씨감자 개발과 보급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알제리는 방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농업개발이 부진하여 농산물 소비의 5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주요 소비 작물인 씨감자의 경우, 매년 약 21만 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5-8만 톤을 전량 유럽에서 수입하여 공급선을 유지해왔는데, 이 같은 수입의존적인 농산물 공급은 공급처의 작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¹⁴⁶⁾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KOICA 및 농촌진흥청 고령지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사업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감자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제리의 농업 여건(기후, 토양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씨감자 사례에서 보듯이 농업생산기술 전수에 성공했다. 불과 몇 년 전만에도 불모지로 여겨왔던 알제리에서 한국의 농업생산기술 전수가 단기간 내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씨감자 사례는 한국의 알제리 농업기술협력의 출발점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업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채소의 재배 및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을 고려해볼 만 하다. 실제 현지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듯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알제리 사무소에서는 알제리 국립농업연구소(INRAA)와 협력을 통해 신선채소 양약배재 기술에 역점을 두고 시

145) 1960년대 초반 한국의 농업 R&D 기반은 매우 취약했지만 1970-9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46) 일례로, 유럽의 씨감자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알제리 수입가격이 폭등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샀던 일도 있었다(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KOICA 알제리사무소 사업현황, 2014 및 농촌진흥청, 2012 아프리카를 감동시킨 한국형 씨감자 생산 기술)

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알제리 식문화에서 중요한 작물 중 하나인 생과용 토마토에 대한 재배 및 관리 기술이전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재배 작물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는 단위생산량이 한국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품질이 불량하여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 알제리는 생과용 토마토 생산을 위한 육묘기술 및 시설재배관리 기술 수준이 매우 낮으며, 수확 후 선도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수확 후 손실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알제리 KOPIA 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생과용 토마토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추진 중¹⁴⁷⁾이나, 향후 토마토를 포함한 시설채소에 대한 소비 증가를 고려하여 기술협력 연구를 생산기술과 관리기술로 나누어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효율적인 연구협력을 위해서는 현지(알제리) 농업전문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공동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품종 개발 등 연구 착수단계부터 시험의 전 과정에 현지 농업 전문가를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이들을 기술 보급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글상자 4-5] KOICA의 알제리 씨감자 사업 성공 사례

한국과 알제리는 2차에 걸쳐 씨감자 개발과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KOICA 및 농촌진흥청 고령지연구소가, 알제리 측에서는 농업농촌개발부가 중심이 되어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사업('07-'09)에서는 생산을 위한 인프라(조직배양실, 수경재배온실, 순화실, 준비실, 저온냉장고 등)를 구축하였고 조직배양, 수경재배, 병해검정 등의 씨감자 생산 핵심기술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지원한 '추백' 등 3개 품종에 대하여 수경재배를 진행하였고, 4회 시험가동 끝에 94,000개('09-'11)를 생산하였으며, 매해 1억 달러 정도의 씨감자 수입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47)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INRA와 매칭펀드 형태로 육묘기술 확립 및 대추야자피트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토양, 양액, 병충해 방제, 온도관리 등의 시설재배관리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수확 후 선도 관리·유지 기술을 현지에 맞게 개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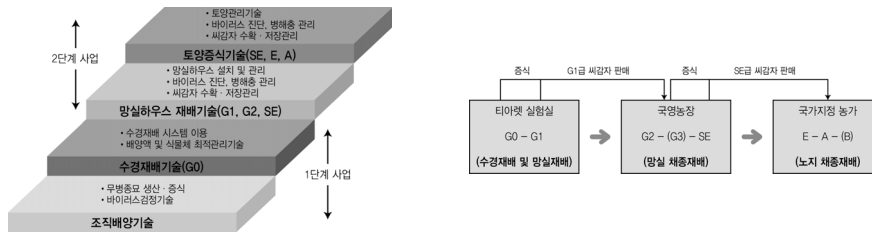
1단계 사업 현황



자료: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코이카 알제리사무소 사업현황. 2014

2단계 사업('11-'14)은 망실재배, 병해충·바이러스 검정, 저장유통 등의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씨감자의 토양증식과 실용화 안정생산기술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Pre-basic(G0-G1-G2-G3) 및 Basic(SE-E)등급의 감자 생산성이 강화되어 씨감자 채종 전 단계의 생산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배양모 순화실 이식 및 토경온실에서의 배지재배



자료: 농촌진흥청. 2012 아프리카를 감동시킨 한국형 씨감자 생산 기술.

3.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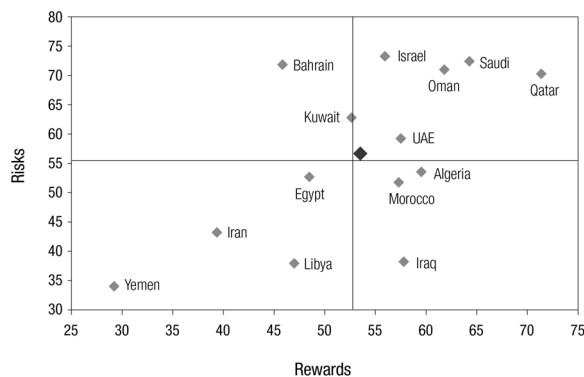
알제리를 포함하여 많은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에 있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산업분야 중 하나는 단연 인프라 분야이다. 이는 빈곤 해소이든 산업발전이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프라 개발을 도외시키고 개발협력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데, 인프라 구축 시작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큰 이유는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잠재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알제리는 다른 어느 신흥 개도국보다 인프라 건설시장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아래 [그림 4-12]는 MENA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시장에서의 잠

재적 기대수익과 예상되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여 사사분면에 표시한 것인데, 이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위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알제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 중동의 전통적인 시장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수익성이 높고 안정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은 개도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여국의 선진화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건설업계의 진출을 촉진하는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즉, 인프라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은 국내 건설업의 진출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는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다는 점에서 협력의 여지가 그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알제리는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시장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다. 이미 교통인프라 부문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차관제공을 통해 알제리 철도운송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의 소규모 무상원조로는 거대 인프라 건설시장인 알제리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발굴을 위한 개발조사사업과 같은 현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2] MENA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시장의 기대수익과 위험 포지션



주: 100점 만점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양호

자료: BMI Research. 2014. "Algeria Infrastructure Report 2015". London: BMI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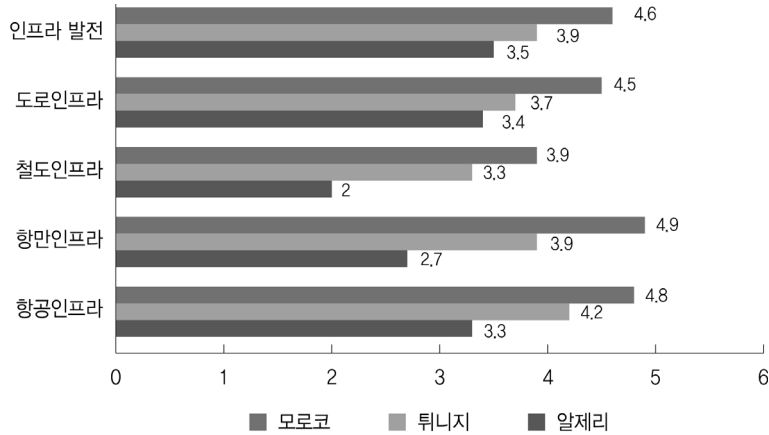
가.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알제리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지식공유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 분야(신규 건설/운영/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발경험 전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건설 기술력 및 노하우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을 방문한 알제리 등 개도국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눈부신 인프라 발전수준에 놀라워하며 기술공유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¹⁴⁸⁾

현재 알제리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현안 중의 하나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반 인프라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개도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그림 4-13]은 북아프리카 3개국의 인프라 발전정도를 비교한 것인데, 도로, 항만과 같은 제반인프라의 발전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알제리가 가장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13>은 알제리 인프라 분야에 대한 SWOT 분석을 정리한 것인데, 기술력 부족이 인프라 개발을 지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8) 경부고속도로 추진 당시 세계은행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금 지원을 거절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보상금 일부를 투입한 가운데, 국내 건설업체의 자체적인 기술만으로 공기(工期)를 앞당기며 완공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1973년 중동 오일쇼크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의 숙련된 건설인력을 중동 지역에 대거 파견함으로써 외화 획득의 일등공신 역할을 담당했다.

[그림 4-13] 북아프리카 3개국의 인프라 발전 정도 비교



주: 발전정도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측정

자료: Klaus Schwab et al.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Geneva: World Economic Forum

<표 4-13> 알제리 인프라 SWOT 분석

구분	주요 내용
강점	• 대형 다국적 건설업체(Alstom, Orascom 등)들이 인프라 건설시장을 주도 • 대규모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자금 마련이 용이 • 공공부채 및 외채부담이 낮음(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의 여력이 생김) • 인프라 투자정책의 지속
약점	• 알제리 건설업체의 열악한 기술력 및 경쟁력 • 건설기술 인력의 부족
기회	•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 • 중국, 러시아(우라늄 개발 및 원자력 플랜트) 등의 진출 확대로 인프라 개발 붐 확대 •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박차(중기적으로 600-1,200억 달러 투자 계획)
위험	• 공공부문의 비능률 구조와 부정부패 • 에너지 가격 폭락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에 따른 정치 사회적 불안

자료: BMI Research. 2014. "Algeria Infrastructure Report 2015". London: BMI Research

돌이켜 보면, 한-알제리 협력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양국 대통령의 상호 방문과 200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으며, 고조된 협력 분위기 속에서 KOICA에서는 산업에너지, 건설,

환경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설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사업도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중요성과 협력 니즈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개발, 상하수도 건설, 교통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신기술 장려제도, SOC 민자 유치제도,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제도 등 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매우 유익한 건설한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인프라 신규 건설은 물론 운영, 유지보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알제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¹⁴⁹⁾

아래 <표 4-14>는 현지 출장,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알제리 측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교통 분야의 기술협력 수요를 예시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들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술협력의 여지가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알제리 시내의 전체적인 도로교통 네트워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특히 교통신호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알제리의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14> 알제리 교통인프라 분야 기술협력 수요(예시)

- 효율적인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교통 혼잡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자동차이력 통합관리시스템 - ICT를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 개선 - 무선통신 기반 실시간 자동차 교통시스템 - ICT 융합 교통서비스 기술개발 -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차로 신호시간 최적화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관리 시스템 개선(버스터미널 및 승객용 시설구축 및 운영) - 자동차 성능검사 기술개선(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 자동(ICT 기반) 과속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통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D/B)
--	--

자료: 연구진 작성

149) EU의 경우 무상원조를 통해 교통인프라 전반의 안전/서비스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지원사업, 민간항공 및 기상국 안전관리 시스템 실행 지원사업, 물류 운영 개선 사업,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나. 개발조사 사업: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

통상적으로 인프라 사업은 중장기 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 등을 통해 초기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발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 중인 알제리의 동-서 간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인프라는 이미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획된 사업들이다. 물론 PPP 방식으로 개발조사사업에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개발조사사업을 통해 그 동안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비구속성(untied)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KOICA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교통관련분야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로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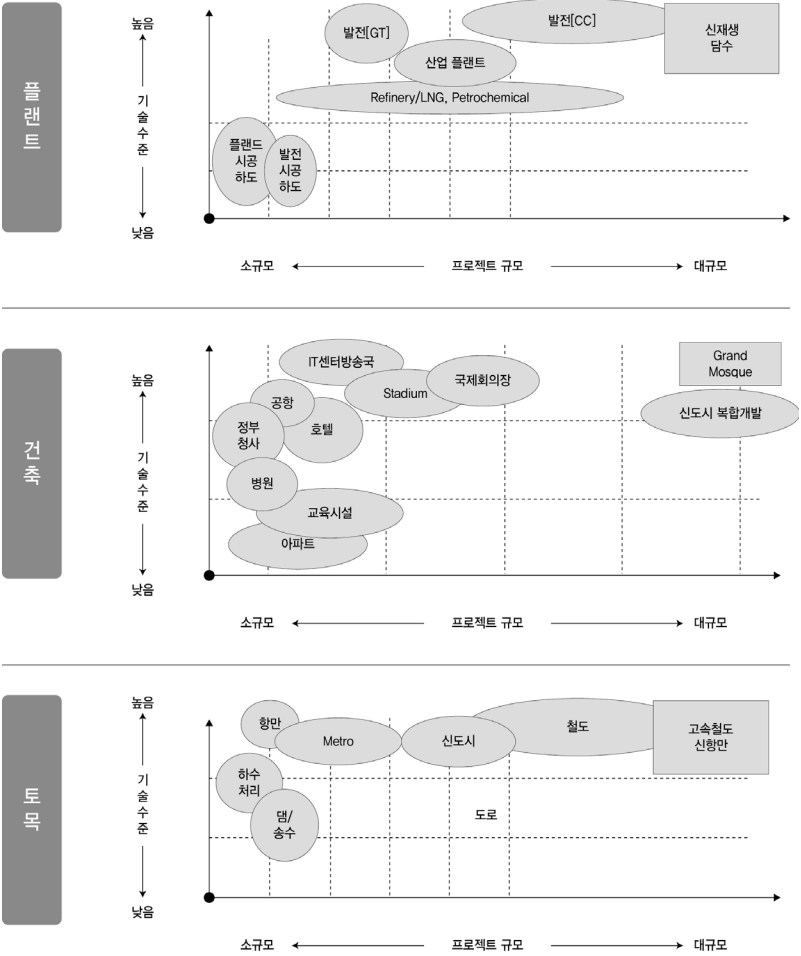
아래 [그림 4-14]는 알제리 인프라 건설시장의 공종별 시장세분화(Segmentation) 또는 분야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와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발조사사업의 주요 대상 분야로는 발전플랜트, 산업플랜트, 신도시 복합개발, 철도, 고속철도, 신항만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는 현지 업체들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에서 일정부분 떨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KOICA와 AfDB 신탁기금의 매칭 펀드를 통한 개발조사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회원국으로부터 신탁기금(trust fund)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술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자문용역, 훈련비용, 학술연구 등에 지원되고 있다. KOICA에서는 신탁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진출 초석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KOAFE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말 AfDB 내에 신탁기금(KOAFEC Trust Fund: KTF)을 출연하였다. 아직까지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5년 KOAFEC 자문단회의에서는 출연

금액을 1,500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KOAFEC 신탁기금은 인프라, IT, 경제개발경험 공유, 인력개발, 농촌개발, 녹색성장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을 지원하고 있다. 신탁기금은 비교적 활발하고 집행되고 있는데, 2013년 5월 기준 총 3,172만 달러를 출연하여 2,073만 달러의 사업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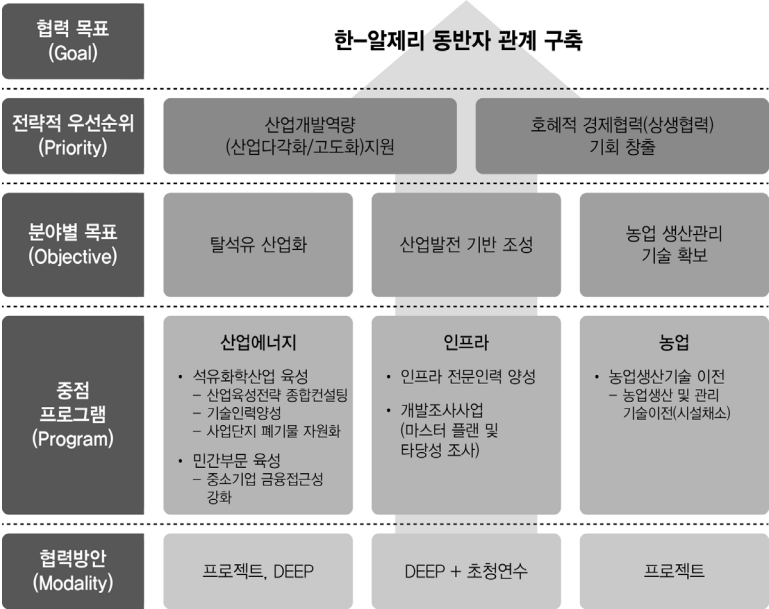
[그림 4-14] 알제리 인프라 건설시장의 공종별 시장세분화(Segmentation)



자료: 국내 모기업의 내부 자료, 연구진 일부 재구성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그림 4-15] 한국의 對 알제리 개발협력 프레임워크



그동안 알제리는 우리에게 있어 ‘비중점 협력국’으로 분류되어, 알제리 대상의 ODA는 그 정책적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단위사업 위주로 원조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제리의 시장 잠재성이 재평가 받으며 아프리카의 잠재적 유망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알제리 대상 ODA 가치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원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기존의 중점 협력대상국 이외에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는 파트너 국가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알제리 대상 ODA에 대한 재평가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제리 대상으로는 산업화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지하다시피 알제리는 여타 수원국들과는 발전 잠재력 및 개발

협력 여건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자원 부존량, 일정 규모 이상의 내수시장과 중소득국가에 달하는 경제적 지위 등 그 단어만으로도 기본 개발협력 대상국들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잠재성과 우호적인 협력 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산업다각화 정도는 주변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청년층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라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같이 여겨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 같은 산업화(산업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해 관련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알제리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하는 방향은 알제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로의 편입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자원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글로벌 생산체제에 합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등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내재적인 개발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발전은 국내 토착기업에 의해 내재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알제리의 산업다각화와 산업고도화 단계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우리의 비교우위와 알제리의 정책적 수요, 대내외적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협력 범주 안에서 지원 가능한 관련 유망협력분야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최우선 유망협력분야로는 알제리 산업다각화와 직결되는 ‘산업에너지’가 선정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알제리 정부의 산업 다각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고,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의 공여 경험이 상당하고,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서 상위 유망협력분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에너지’가 산업화 관련 모든 분야가 속할 정도로 광의의 개념인 점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석유화학산업과 그 중요성 대비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민간부문 육성이 세부협력분야로 선정되었다. 석유화학분야 협력방안은 알제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감안하여 정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개발역량 축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협력 프로그램들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알제리 석유화학산업

대상의 종합컨설팅을 추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점검을 통한 알제리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에 적합한 전략 방안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관련 민관 관계자들의 정책 및 관리 능력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유관기관과 연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외에 환경 이슈를 고려하여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포괄적인 개발협력 범주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책자문 형식으로 현실 제약이 큰 알제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망협력분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선정되었다. 인프라 중에서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인프라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도로, 항만 분야의 선진기술을 보유한 공여국 건설업체의 현지 진출을 촉진하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협력분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인프라 관련 개발조사(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 등 인프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 사업이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중요성과 현지의 협력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 유망협력분야로는 여타 산업대비 생산 규모의 비중은 낮으나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그 중요도가 높은 농업이 선정되었다. 알제리의 식량안보 문제는 영농기술, 생산기반 및 유통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등 농업 가치사슬 범주 상 여러 부문과 연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농업(생산, 관리)기술 부문에 대한 협력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에 걸쳐 진행된 우량 씨감자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성공을 귀감으로 삼아 현지 수요가 높은 시설채소 생산 및 관리 기술 이전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의 알제리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사무소의 생과용 토마토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중이나, 향후 토마토를 포함한 시설채소에 대한 소비 증가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술개발연구를 생산기술과 관리기술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 선택된 유망협력분야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꼽으라면 산업에너지를 들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알제리가 탈산업화와 산업다각화를 통해 경제전환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산업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향후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발협력을 통한 알제리의 산업화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인프라와 농업 분야 협력도 지금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그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현지 협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중요도를 놓고 산업에너지 분야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기에서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면, 알제리와 같이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협력의 보편적인 가치와 더불어 국익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양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ODA 정책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상생협력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호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상생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의 경제적 이해만이 아닌 알제리의 협력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점 ODA 대상국은 아니지만, 여러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가능성)이 높은 알제리를 대상으로 개발협력의 좌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알제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개척 신흥시장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비중점 ODA 대상국’으로서 알제리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은 부신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개발협력의 좌표 설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알제리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추진방향으로 산업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알제리 정부는 석유일변도의 ‘단일 경제구조(mono-culture)’ 또는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탱할 수는 ‘기술혁신형’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즉, 알제리는 산업화라는 발전모델을 통해 석유 일변도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알제리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ODA 수단으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외에도, 알제리의 협력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자원부국이자 중소득권 국가인 알제리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의 원조 공여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협력수요는 자금지원보다는 기술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알제리 개발협력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수단이 보다 명확해진다. 자금력이 풍부한 알제리가 우리의 ODA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자신들이 실패한 산업화를 한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이다. 알제리는 제반 경제적 상황이나 산업화에 대한 개발수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아프리카 저개발국들(특히 사하라이남)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 해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의 개발환경 및 과제, 국제사회의 지원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공여능력과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포괄

하는 정성·정량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원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알제리 대상의 협력유망분야와 그 분야별 협력방안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유망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협력분야를 도출해보았다. 그 결과, 최우선 유망협력분야로 산업에너지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농업, 인프라 분야도 협력가치가 높은 분야로 선정되었다.

최우선험력분야로 선정된 산업에너지는 산업화와 직결되는 분야로 알제리가 막대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발전 잠재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해 산업 다각화가 지체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여지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수출의 대부분이 석유 관련 상품이라는 점, 열악한 국내산업기반으로 인해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유망세부협력분야로 석유화학산업 육성과 민간부문 육성을 제시하였다.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개발 여지가 큰 여러 협력 분야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알제리의 막대한 규모의 자원 부존량을 고려하였을 때 그 만큼 개발 잠재력이 크며, 정책적으로 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석유화학산업이 협력 유망분야로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탈석유산업화를 통한 산업 다각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영기업 중심 성장에서 탈피한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부문 육성이 알제리의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협력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 개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내전의 영향으로 제반인프라 발전이 미진하여 그 개발 수요가 상당히 높다. 한편 이미 인프라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수 알제리에 진출해있다는 점에서 협력 여지가 그 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의 경우, 산업화 및 산업 다각화와 직접적 연계성은 떨어지나,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알제리의 정치적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이 시급한 분야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농업 관련 사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 시 상당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산업에너지 대비 국가 생산에서의 그 비중이 낮고, 대외

변수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협력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한 원조에 있어 인도주의 원조와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경제협력파트너) ODA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온 우리나라의 원조 방식으로는 이 같은 양자적 접근을 채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향후 대 알제리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PPP 방식의 협력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무상원조 자금만으로는 알제리와 같은 신흥 개도국과의 기초적인 협력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통해 민관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세계 주요 공여국들은 PPP 방식의 개발원조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주도의 개발협력 사업을 민관협력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민간부문의 역량(자금, 기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수원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장점과 함께 공여국의 입장에서 볼 때 PPP 방식의 개발원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수원국 시장개척, 기업의 이미지 구축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을 ODA 사업에 결합하여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율성의 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참여기업의 이미지 구축과 시장개척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의 실행에 앞서 우리나라 ODA 실정에 맞는 PPP 협력 방식 개발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건설경제. 2014.05.19.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알제리서 결실
- 김종섭 외. 201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KIEP
- 김종일/윤미경. 「2012.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정책연구 12-0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EMERiCs). 2014. 「알제리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망」
- 박영호 외. 2007. 「알제리의 주요 산업: 석유/가스/IT/석유화학/플랜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7-05
- _____. 2008.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9
- _____.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2.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KIEP. ODA 지역연구 12-04
- 알제리 농업농촌개발부. 2014. “2014년-2015년 농업분야 액션플랜 (Plan d'actions pour la Campagne Agricole 2014-2015)”
- 알제리 정부. 2007.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France-Algérie 2007-2012”
- 엔지니어링데일리. 2014.03.28. 환경부, 5,000억원 알제리 하수사업 한국수주 지원사격
- 연합뉴스. 2014.09.23. '제1차 한국·알제리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 이데일리. 2012.11.13. 국토부, 알제리와 수자원 협력 MOU
- _____. 2013.12.22. 모로코·알제리·에티오피아에 한국지원 정보접근센터 개소
- 이상현. 2013. 울산형 생태도시 모델의 평가.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 조상우. 2009. KOICA 교통 인프라 분야 무상원조사업 현황과 과제. 월간교통 통권 제139호
- 주동주 외. 2012. 「중동 GCC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2-160
- 한국개발연구원. 2013.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알제리』. 서울: KDI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3. 「대 알제리 경험 활성화를 위한 유망사업 발굴조사」
- 한국국제협력단. 2002. 「알제리 Sidi-Abdellah 과학기술신도시 개발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업무자료 개발사업 2002-4-29

- _____. 2013. 「알제리 수산자원 평가를 통한 수산업 현대화 사업」. 업무자료
서아프리카 2013-02-153
- 한국수출입은행. 2015. 세계국가편람
- _____. 2015. 『2015년 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알제리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한림학사. 2007.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서울: 청어

<국외문헌>

- AECID. 2013. “Plan Director de la Cooperación Española 2013-2016”
- AfD. 2014. “Annual Report 2013”. Paris: AfD
- AfDB. 2011. “2011-2012 Algeria - Country Dialogue Note”
- _____. 2014. “50 Ans de Partenariat Strategique D'exception”
- _____. 2014. African Economic Outlook: Algeria.
- Audiguier, Cindy. and Garbis Iradian. 2014. “Algeria: Time for Change”. Washington
D.C.: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 Bertelsmann Stiftung. 2014. "BTI 2014-Algeria Country Repor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 BMI Research. 2014. "Algeria Infrastructure Report 2015". London: BMI Research
- _____. 2015. “Middle East & Africa Oil and Gas”. London: BMI Research.
- BP Global. 2014.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BTC. 2014. “Cooperation Programme Between Belgium and Algeria 2014-2017”
- Charles Roxburgh 외. 2010. "Lions on the move: The progress and potential of African
Economies". McKinsey Global Institute
- Collyns, Charles et al. 2014. "After the Fall: Consequences of Lower Oil Prices".
Washington D.C.: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Country Report: Algeria”.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U. 2014. “Rapport sur la coopération Union Européenne-Algérie 2014”
- EU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12. “Higher Education in
Algeria” Alger: The Tempus
-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Overview of Activities and Results
2007-2013”, 2014

- Furceri, Davide. 2012.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Issues in Algeria By Davide Furceri" Washington D.C.: IMF
- Groupe AFD. "Annual Report 2013". 2014
- Il Hounq Lee. 2015.3.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Possible Lessons for Cambodia. 2015 Cambodia Outlook Conference
- IMF. 2014. 1. IMF Country Report for Algeria. Report No.14/32
- _____. 2014.12. Algeria: 2014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14/341
- Jean-François Arvis 외. 2014. "Connecting to Compete 2014;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 Klaus Schwab et al. 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 Marco Stampini et al. 2011. "How Large Is the Private Sector in Africa? Evidence from National Accounts and Labor Markets", IZA Discussion Paper No. 6267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MECOMeter. Algeria: Manufacturing Statistics
- Miller, Terry. and Anthony B. Kim. 2015. "2015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 _____. Anthony B. Kim. and R. Holmes. Kim. 2014.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Algeria. and Ministry of Finance of Algeria 2007. "Document cadre de Partenariat France-Algérie 2007-2012"
- OECD. 2012.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12 and 2013 flows"
- _____.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TF. 2014. "SME Policy Index: The Mediterranea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14". Paris: OECD Publishing.
- Oxford Business Group. 2014. "The Report: Algeria 2014". London: Oxford Business Group
- PwC. 2013. "Africa Gearing Up". Johannesburg: PwC
-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2014. "Plan D'action du Gouvernement pour la Mise en Oeuvre du Programme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 _____. 2014. "Plan National Cancer 2015-2019". Alger: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 Stads, Gert-Jan. M'hamed Alt-Oubelli. and Raed Badwan. 2014. "Algeria: Agricultural R&D Indicators Factshee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Tarik Benbahmed 외. 2014. "Algeria 2014". Moulineaux: African Economic Outlook
- Tizi Ouzou. "Les réformes en Algérie : formation professionnelle, enseignement supérieur, insertion professionnelle 1. Présentation liminaire". Université Mouloud Mammeri
- UN Comtrade. UN Service Trade. 2014. "Country Profile: Algeria".
- UN Statistics Division. 2014.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Algeria".
- UN. 2014. "MDG Country Progress Snapshot"
- UNESCO. 2015. "UNESCO Global Monitoring Reports 2015".
- UNDP. 2013. "The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 The Rise of the South: Human Progress in a Diverse World"
- _____. 2014.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 Sustaining Human Progress: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 World Bank Group. 2015.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5: Having Fiscal Space and Using It".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World Bank. 2009. From Privilege to Competition: Unlocking Private-Led Growth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_____. 2011. "CPS for Algeria for the Period FY11-14"
- _____. 2013. "Doing Business 2014: Country Profile Algeria".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2014. "Doing Business 2015: Country Profile Algeria".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Yonah Alexander. 2014. "Terrorism in North Africa and the Sahel in 2013" Virginia: Inter-University Center for Terrorism Studies

<인터넷 웹사이트>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www.mosf.go.kr/news/news05.jsp>
-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KBC/alger/KTMIUI010M.html>
- 미국 국무부 <http://www.state.gov/r/pa/ei/bgn/8005.htm>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http://www.cmegroup.com>

알제리 교육부 <http://www.mfep.gov.dz/fr/>

알제리 국립통계청 <http://www.ons.dz>

알제리 보건부 <http://www.and.s.dz/>

알제리 재무부 산하 Algeria Customs' National Centre of Data Processing and Statistics(CNIS) <http://www.douane.gov.dz/applications/stat/>

알제리 중소기업개발청 <http://www.andpme.org.dz/>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http://dza.mofa.go.kr/korean/af/dza/main/index.jsp>

주 알제리 프랑스 대사관

<http://www.ambafrance-dz.org/AXES-PRIORITAIRES-D-INTERVENTIO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AfD <http://www.afd.fr/home>

BTC <http://www.btcctb.org/>

EU Commission의 ERAWATCH <http://www.erawatch.jrc.ec.europa.eu/>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

FAO. FAOSTAT <http://faostat.fao.org/>

GIZ <http://www.giz.de/>

ILOSTAT Database <http://www.ilo.org/ilosta>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JICA <http://www.jica.go.jp>

MEsteel <http://www.mesteel.com/>

Nations Online Project <http://www.nationsonline.org/>

Proparco <http://www.proparco.fr/>

Santander <http://en.santandertrade.com/>

Trading Economics. Algeria <http://www.tradingeconomics.com/algeria/indicators>

UNCTAD Statistics <http://unctadstat.unctad.org/>

UNHCR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home>

USAID <http://www.usaid.gov/algeria/food-assistance>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_____.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_____. Indicators data.worldbank.org/indicator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알제리

부 록



[부록 1] 정량분석 방법의 분야별 지표 및 지표 출처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교육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Internet access in schools	
	Availability of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s	
	Extent of staff training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Mean years of schooling	Human Development Index
	Expected years of schooling	
보건 의료	Tuberculosis cases/100,000pop.*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Business impact of tuberculosis	
	HIV prevalence, % adult pop.*	
	Business impact of HIV/AIDS	
	Infant mortality, deaths/1,000 live births*	
	Life expectancy/years*	
	Density of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HO
	Density of nursing and midwifery personnel per 1,000 population	
	Health expenditure, public(of GDP)	World Bank
	Mortality rate, under-5(per 1,000 live births)	
	Maternal mortality ratio(national estimate, per 100,000 live births)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 of population with access)	
	Hospitals per 10,000 population	
	Improved water source, rural (% of rural population with access)	
	Improved water source, urban (% of urban population with access)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농림수산	GCI Agricultural policy cost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3)
	Total area equipped for irrigation / Total L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Machinery & Equipment area of Agricultural area	
	Agriculture, value added(of GDP)	World Bank
	Fertilizer consumption(per hectare of arable land)	
	Cereal yield(kg per hectare)	
공공행정	Property rights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iversion of public funds	
	Public trust in politicians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Judicial independence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gregs.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Business costs of terrorism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Organized crime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Ethical behavior of firms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0-10(best)*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산업 에너지	산업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UNIDO(2010)
		Share of Medium and High-Tech Activities in Total MVA	
		Industry, value added	World Bank
	에너지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Electricity production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1)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2010)
		Alternative and nuclear energy	
인프라	교통 인프라	Quality of road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Quality of rail road infrastructure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Airtransport,registeredcarrierdeparturesworldwide	World Bank
	통신 인프라	Fixed telephone lin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Telecommunication /ICT Indicators(2013)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Internet users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부록 2] 알제리 정성분석 상세결과

지표	분석 내용	결과
[산업에너지]		4.2
정책타당성 (25%)	- 석유산업 일변도의 경제구조 다각화 및 수출 다각화 필요 - 수출산업 및 민간부문 육성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 - 제조업 육성을 통한 높은 부가가치 제품 생산 집중 - 2015-2019 NDS 상 상위과제로 경제다각화 추진 언급	5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유관부처 면담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타 공여국/기관 면담을 통해 수원국의 높은 정책적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 현지출장 시, 한국 건설/인프라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의 기술협력수요 확인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국가 산업정책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사업(07-08/100만불) - 산업정책개발자문 사업(08-09/150만불) - 국별연수(석유화학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 사업 없음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국내기업진출가능성, 북아프리카 민주화)	- 북아프리카 민주화로 인한 변화 가능성 낮음 - 다수의 한국기업 진출(종합상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 상위의 발전소 사업 수주 실적(2014년 33억불, 전체 3위) - 정부의 산업다각화 계획에 따라 석유화학, 기계·전자 분야 한국기업 진출 가능성 증대	5
[농업]		4.2
정책타당성 (25%)	- 소득증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소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곡물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 - 관광업과 함께 차기 5개년 계획의 주요 육성분야로 선정	5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유관부처 면담을 통해 농림수산 개발과제 파악 가능 - 유사사업에 대한 여타 공여국/기관 사업 대비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론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요청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씨감자 생산 기술지원 사업(07-10/180만불) - 씨감자 기술지원 2차 사업(11-14/48만불) - 보리새우양식장 건설 및 기술이전 사업(08-11/240만불) - 사막새우 양식기술 이전 사업(10-15/600만불) - 어업 및 양식 생산력 지속가능한 증대 및 산업화 컨설팅(14-17/500만불)	5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국내기업진출가능성, 북아프리카 민주화)	- 북아프리카 민주화로 인한 변화 가능성 낮음 - 한국기업 진출가능성 낮음	1

지표	분석 내용	결과
[인프라]		3.65
정책타당성 (25%)	- 내전의 영향으로 기초인프라 재건 사업 필요 - 경제·사회개발 지원 위한 인프라부문 공공투자 유지 - 수출비용절감, 산업발전기반 구축, 지역격차 완화 목적의 인프라 전반 현대화 및 확장사업 추진 전망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유관부처 면담에는 제약이 있었으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타 공여국/기관 면담을 통해 수원국의 높은 정책적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 현지출장 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의 협력의지 확인	3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Sidi 과학기술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03-04/100만 달러) - 선박안전관리 체제구축지원사업(07-08/50만 달러) - 국별연수(교통수송정책, 고속도로/항만/철도 관리·운영 등) -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 사업 없음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국내기업진출가능성, 북아프리카 민주화)	- 북아프리카 민주화로 인한 변화 가능성 낮음 - 다수의 한국기업 진출(종합상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 정부의 지속적인 기초인프라분야 정책수요에 따라 도로/항만/수자원 분야 한국기업 진출 가능성 증대	5
[교육]		3.95
정책타당성 (25%)	-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 시장수요 기반의 기술인력 양성 필요 -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연구 위한 전문기관 역량강화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 - 2015-2019 NDS 상 상위과제로 인적자원개발 추진 언급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유관부처 면담(외교부)을 통해 ICT 분야 기술인력양성에 대한 높은 협력의지 확인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직업훈련원 지원사업(04-06/100만불) -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으로 '첨단아프리카센터 운영지원사업(13-18/1,200만불)' 있음	4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국내기업진출가능성, 북아프리카 민주화)	- 북아프리카 민주화 발생시 실업 증가에 영향 미침 - 한국기업 진출가능성 낮음	3

지표	분석 내용	결과
[공공행정]		2.7
정책타당성 (25%)	- 사회주의적 사고방식과 제도로 인한 행정비효율 개선 필요 - 국가금융/재정/세관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개혁 준비 중 - NDS 상 민간기업활동 환경 및 외국인투자활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 - 하지만 국내외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존재	3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유관부처 면담에는 제약이 있어, 한국대사관 및 KOTRA, 타 공여국/기관 면담을 통해 수원국의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협력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1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국별연수를 통해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금융시장, 해외 직접투자, 민영화, 공공서비스정책 등) -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 사업 없음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국내기업진출가능성, 북아프리카 민주화)	- 북아프리카 민주화 발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공공행정력 강화 필요 - 한국기업 진출가능성 낮음	3
[보건의료]		1.5
정책타당성 (25%)	-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시스템의 변화 필요 - 보건전략에 따라 의약품 공급 강화 예정 - 2015-2019 NDS 상 의료시스템의 질적/양적 발전 의지 표명	3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유관부처 면담에는 제약이 있었고, 한국대사관 및 KOTRA, 타 공여국/기관 면담을 통해서도 수원국의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확인이 어려웠음	1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물자지원(의료기기지원) - 향후 포트폴리오 내 지원예정 사업 없음	1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20%) * (국내기업진출가능성, 북아프리카 민주화)	- 북아프리카 민주화로 인한 변화가능성 낮음 - 한국기업 진출가능성 낮음	1

연구자료 서아프리카 2015-14-171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알제리

발 행 2015년 8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서아프리카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이프리트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